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2월 25일(음력 2월 1일) 수요일(주간)

삼·고·초·려

호진 스님 中僧大 총장 고사 '화제'

세간과 출세간을 막론하고 명예를 좇는 이들이 넘쳐나는 요즘, 출가자로, 불교학자로 세수 고희(古稀)를 앞둔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 사진)이 승가교육기관의 수장격인 중앙승가대 총장직을 하심과 무소유 정신으로 고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진 스님(69)은 1964년 출가해, 1981년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초기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까지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를 역임했던 스님은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건립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진 스님은 제대로 된 <부처님의 생애>를 저술하겠다며 2008년 인도를 찾기 전, 자신이 유고하면 책 등을 중앙승가대에 기증하라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앞서 2002년 동국대 교수직 퇴임 때도 "후학을 위해 길을 열어주겠다"며 물러났을 뿐 아니라, 퇴직금 6000여만원을 모두 중앙승가대에 기부하는 등 중앙승가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학승이다.

이런 까닭에 종단에서는 종범 스님을 대신할 차기 총장에 호진 스님만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회(이사장 지관)는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1차 이사회를 열고 호진 스님을 제5대 중앙승가대 총장에 추대했다.

이날 이사들은 장시간의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호진 스님의 총장 선임을 결의했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스님의 선임을 머뭇거렸던 것은 지관 스님을 비롯해 정념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의 "(이사회가 결정해도) 호진 스님의 총장직 수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발언 때문이었다.

정념 스님은 "학덕과 인망을 두루 갖춘 총장 후보를 찾다보니 호진 스님을 추대하게 됐다. 하지만 사전에 스님의 승낙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2월 12일자로 발송된 호진 스님의 서신을 꺼내 보이며, "호진 스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중책을 맡기에 나이가 많으니 총장직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관 스님은 "'사방에서 적임자라 하니 스님이 희생해 달라고도 직접 통화도 해봤고, 호진 스님의 은사인 법인 스님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봤지만 소용없었다. 특히 도반인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장)도 호진 스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청화 스님(교육원장)의 "호진 스님이 사적으로 요청했을 때는 고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해 요청한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이사들은 마침내 추대를 결의하고, 고사 중인 호진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종하, 청화, 정념 스님을 교섭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사회 직후 중앙승가대 구성원들과 경주 기림사를 찾아 호진 스님을 면담한 월우 스님(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은 "이사회의 뜻을 전하며 '중앙승가대의 학풍을 바로잡아 달라'며 재차 강조한 결과, 금명간 교섭위원 스님들이 호진 스님을 만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이 없는 사람이 어찌 조실을 맡겠냐"며 봉암사 조실을 사양했던 적명 스님이나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으니 총장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호진 스님. 두 스님의 겸양은 탐욕으로 고통을 자초하는 대중들에게 가뭄의 단비요,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편안한 세상으로 가시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17일 오전 정념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등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을 찾아 김수환 추기경 선종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재완 기자

"모든 이를 위하라는 가르침 이어지길"

불교계도 김수환 추기경 추모·조문 잇따라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에 불교계 지도자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하며, 종교간 평화와 사회화합을 이끈 김 추기경의 가르침이 부단히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김 추기경의 선종 당일 종교를 초월한 도반으로 30여 년 사회활동을 함께했던 월주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은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다.(월주 스님 인터뷰 3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애도문에서 "추기경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왔다"며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고인이 보여준 평생의 지표가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애도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평화와 봉사,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가슴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각각 애도문을 발표했다.

정산 스님은 "어려운 시대에 정신적 지도자로서 나라의 나아갈 길과 국민의 진로에 희망을 던져 준 추기경님의 큰 뜻이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원했다.

회정 정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종교간 화합과 대화, 민주화 노력 등에 종교인 모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17일 오전 정념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등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명동성당을 찾아 조문했다.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도 20일 추기경의 영결미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조동섭 · 노덕현 · 김진성 기자

"마음건강하면 당당한 삶"
선지식을 찾아서 ▶14 정관 스님

"가는곳마다 주인되기"
나의 수행출가 이야기 ▶5 미산 스님

▶ 7 불교학회 겨울워크숍
▶19 사진계의 선각 김아타

가뭄 속 타는 농심에 감로수 전달

조계종, 가뭄피해지역 긴급 구호물품 전달

역사상 유래없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고생하는 각 지역에 불자들의 시원한 손길이 뻗치고 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위원장 지관)는 2월 19일 강원도 정선군에 생수 1만 5000개를 전달했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정암사 주지 정광 스님과 함께한 봉사대는 유창식 정선군수에게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가뭄극복을 기원했다.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기금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생수지원과 더불어 조계종은 '자비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강원지역 생수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국사찰에 동참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긴급지원에 앞선 2월 13일에는 월정사(주지 정념)가 태백시청과 정선군 고한읍에 생수를 비롯한 물품과 구호기금을 전달했으며, 2월 12~15일 도선사(주지 혜자)도 108산사 순례행사로 구미 도리사를 찾아 가뭄극복 기원법회를 열고, 구미시 등 경북 · 강원남부 지역에 생수 5000개를 전달했다.

한편, 겨울가뭄이 극심한 지역은 강원 · 전남 · 경북일대로 이중 정선 · 태백지역은 급수원인 광동댐이 바닥을 드러내 제한급수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전남지역은 80년 만에 최악의 겨울가뭄으로 도내 258개 마을, 3만 2000여 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5개 군 33개 마을은 소방차나 급수선으로 식수를 공급받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후원문의 (02)723-5101

노덕현 기자

법구경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축복의 꽃밭길을 간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초종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NAVER 통합검색 산상차 검색 을 검색하여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수환 추기경 신드롬을 보며

당나라 때 보화(普化) 스님은 요령을 들고 다니며 가르침을 폈다. 입적할 때를 미리 알았던 스님은 스스로 관을 만들었다. 관을 짊어진 보화 스님은 대중들에게 "내일 동문 밖에서 열반하겠다"고 알렸다. 큰스님의 입적 소식에 대중들이 운집했다. 보화 스님은 "오늘 말고 내일 남문에서 가련다"고 말했고, 다음 날은 서문에서, 그 다음 날은 북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루하루 미뤄질 때마다 사람들은 "속았다"며 스님의 입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북문에 이르러 아무도 오지 않자 스님은 "이제야 갈 때가 됐다"며 한참 요령을 울리고는 관 속에 들어가 입적했다.

보화 스님은 죽음을 거추장스럽게 남에게 보이려하지 않았고, 남과 함께 하려고도 않았다.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 선종(善終,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마친다'는 善生福終의 준말)에 전 국민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40여 만명이 이념 · 계층 · 종교를 초월해 김 추기경을 만났다.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김 추기경의 행적이 '착했던' 까닭에 추모를 위한 인파가 몰려 그를 '복되게' 한 것이지만, TV와 신문 보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19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불교와 사회 포럼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선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역대 대통령까지 찾는 조문 행렬에 불교역할을 돌아보게 됐다"는 참가자부터, "추기경 권한을 가진 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고 존경받아야 한다. 가톨릭이 가진 권력과 불평등에 대비해 불교 정신을 부각시킬 대안이 시급하다"는 참가자까지. 이들은 무엇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 명동성당으로 이끈 미디어의 위력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만 봐도 1993년 성철 스님 열반 당시 스님의 열반 소식과 생애 · 업적의 단 두 꼭지뿐이었다. 김 추기경과 관련해서는 안치된 유리관 온도까지 알려주며 매일 주요 뉴스로 대여섯 꼭지 이상 내보냈다. KBS는 물론 조선 · 중앙 · 동아 등 일간지도 예외는 아니다.

미디어들의 과잉 보도를 보며 해당 기관 이사회나 제작진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는 쉽다. 불교 미디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불사 타령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몰래 행동하고 은밀히 행함(潛行密用)'을 미덕으로 여기던 가풍을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관련조항 삭제!

교과부, 불교계 의견 수용 금주 중 공식공문 회신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대학설립 · 운영 규정 개정안'에 종교시설 설립 조항이 삭제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 종교평화위원장)는 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과부가 2월 중으로 종교시설 설립 조항 삭제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문종수 사무관(대학경영지원과)은 "불교계 의견을 수렴해 종교시설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구두 결재한 상태며 종자연과 종평위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종교시설 규정 조항 삭제는 잇따른 불교계 항의에 따른 것으로 교계는 종교 간 갈등 유발 및 종교 자유 침해소지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번 조항 삭제에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중인 세영 스님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월 9일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이의 신청 마감일인 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내부결제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대응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월 5일 안건 심사기구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의의견을 접수시키고, 13일 세영 스님이 직접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에게 불교계 목소리를 강력히 전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종교 침해 판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과부에 개정조항 삭제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종교편향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종평위와 종자연 등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종교편향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재가단체와 이를 알린 교계언론, 강력한 의사표명으로 조항삭제까지 이끌어낸 종단이 함께 대처한 하나의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10·27법난 실무사무소 현판식



10 · 27법난의 진실을 기록하고 명예회복 하기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2월 1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명예회복 실무사무소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명예회복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해, 보선 스님(중앙종회 의장), 등 조계종스님들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현진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성희롱 파문 조사 착수

2월 17일 조사위 구성하고 진상 규명키로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K씨가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 포교원 인사위원회(위원장 혜총, 이하 인사위)가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섰다.

성희롱 발언 사건은 지난 해 12월 29일 불교상담개발원 직원 B씨가 서울노동지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사무총장 K씨가 자신(B씨)과 C씨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는 것.

직원 B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교상담개발원의 명예가 실추됐지만 이 기회로 더 나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씨도 "K씨의 상습적인 성희롱적 발언에도 원장스님과 상담개발원에 누가 될까 염려해 참아왔다"며 "K씨의 사과라도 바랐지만 끝까지 거부 당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 K씨 "내 발언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전혀 몰랐다.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위 구성은 서울지방노동청의 "불교상담개발원장은 2월 25일까지 징계 등 제출하라"는 공문에 따른 것이다. 조사위는 조사 후 징계수위를 인사위에 상정하게 되며, 차기 인사위 회의는 23일로 예정됐다.

이상언 기자

불자생도·초급장교 포교 나섰다

군종교구 표창장… 불자카드 등으로 자긍심 고취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스님, 군법사, 불자생도 일동이 힘찬 군 신행생활을 다짐하며 웃고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초급장교 및 사관생도 집중포교에 나섰다.

군종특별교구는 2월 18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안국선원 수불 스님을 계사로 63기 임관 및 67기 생도 입교 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24일에는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49기 임관 환영법회를 개최했고, 25일에는 3사관학교에서 44기 생도 임관 및 46기 환영법회를 개최했다. 3월 3일에는 공군사관학교에서 57기 임관 및 61기 입교 축하 법회가 열릴 예정이며, 4일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65기 임관 및 69기 입교 축하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임관 및 졸업법회에서 우수 불자생도에게 총무원장 표창등을 수여하고, 각 부대에서 시계 및 금박불자카드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장교 신행정보화 방안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사회
국제포교사 연수생 모집

조계종 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에 헌신할 제 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모집한다.

조계종 소속 스님이나 재가신도로서 영어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3월 6일까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승려증 및 사본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개소식

여성 불자들이 여성인권신장, 성평등 구현과 성폭력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사)지혜로운여성은 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계 최초 여성인권상담소인 나무여성인권상담소(원장 김영란)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일법 스님(중앙종회의원), 이은영 원장(불교여성개발원), 손안식 부회장(중앙신도회), 박광서 대표(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축사에서 "사회약자,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소통의 통로가 생겼다"며 "포교원도 여성 인권의 질적 향상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포교원, 포교·신도단체대표자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 · 신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포교역량결집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심산 스님(동련 상임이사), 강홍원 단장(포교사단), 박상필 회장(국제포교사단) 등 각 신도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계성 스님(포교부장)은 "지금까지 스님 중심의 불교였다면 앞으로는 재가자중심의 불교가 돼야할 것"이라며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각 재가신도단체의 역량 강화와 각 단체와 조직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3월 포교역량결집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결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이 대원불교문화대학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 신입생 모집안내 (2년 4학기 과정 / 주 · 야간반)

2009학년도 전학기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 2009년 2월 10일(월) ~ 2009년 3월 4일(수)	
모집학과	◇대 학 : 불교인문학과정Ⅰ, 불교문화학과정, 불교명상상담심리학과정 ◇대학원 : 불교인문학과정Ⅱ (심화과정)
입학자격	◇대 학 : 재가불자 (일반인, 직장인) ◇대학원 :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강의시간	◇주간반 : 15:30 ~ 18:00 / ◇야간반 : 19:00 ~ 21:30
수 업 료	◇대 학 / 한 학기당 30만원 ◇대학원 / 한 학기당 30만원 *카드결제 가능 *교재비 별도
장학혜택	성적우수 장학, 근로 장학 외
특 전	대원불교사상강좌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개설하는 국내외 명사 초청 강좌 무료 청강
상담 및 문의 (원서교부)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교과과정 및 교육목표

불교인문학 과정 — 대학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있는 모든 자들의 존재 의의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인간의 정신과 추구하는 가치를 고양함과 동시에 그 구현 과정과 방법을 탐구하는 바탕이라는 점에서 불교 정신과 사상은 그 자체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 위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인류, 복지, 생태, 환경 등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의 획득과 심화과정을 교육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특성에 입각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각기 별도 분리된 개별 분야로 취급하기보다 상관 · 상의관계를 살펴나가는 통섭과정을 교과과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불교와 사회철학 Ⅰ,Ⅱ, 현대사회와 불교사상, 불교의 인문사회사상, 불교와 사회생물학, 불교와 현대물리학,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Ⅰ,Ⅱ

불교문화학 과정 대학
인류유산의 정화인 불교문화의 이해를 위하여 불교의 원리와 관련 사상 및 역사관을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와의 관계와 문화예술 측면을 중시하는 이론과 경험을 통하여 새 시대에 맞는 불교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과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불교문화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근본불교의 이해, 한국불교문화사,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불교명상상담 심리학과정 대학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포함한, 상담의 제반이론과 기법을 통섭하고 불교를 통해서 상담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상담을 통하여 부처님법을 실현하여 다양한 명상방법으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명상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또한 불교에 명상과 상담을 접목시켜 가능한 한 이상적인 교육방법에 접근시키고자 한다. 명상과 상담 양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이론과 실전위주 교과과정으로 교육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마음챙김과 명상 Ⅰ,Ⅱ, MBSR이론과 실제, 자애명상 Ⅰ,Ⅱ,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 정신분석입문과 이상심리학, 호흡명상심화과정

불교인문학과정Ⅱ (심화과정) 대학원
불교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보다 깊은 상관관계와 상통하는 원리들을 연구, 교육하고, 역사와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반 학문이 추구하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인간생활의 달성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함으로서 새로운 현대 지식인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호 관계 및 상통하는 원리 파악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 연구함으로써 인문 · 사회 · 과학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양필수 : 불교의 이해 Ⅰ,Ⅱ,Ⅲ,Ⅳ
●전공필수 : 자아초월과 뇌과학 Ⅰ,Ⅱ, 현대철학의 문제의식 Ⅰ,Ⅱ,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명상상담과 심리치료, 불교예술과 심리치료,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문화대학 www.kbpf.org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불교방송) 3층 ☎02-707-1072

“예수님은 몸 바쳤다며 금십자가 내놓던 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회고하는 김수환 추기경

데스크 초대석



1997년 2월 월주 스님,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사회지도자들은 시국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보금융 특혜를 가능케 한 외압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대불교자료사진

“IMF 국제금융사태로 금모으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YWCA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났어요. 금십자가를 가져온 추기경에게 ‘신앙의 성물(聖物)인데 내놓으시냐’고 물으니 추기경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예수님은 몸도 바쳤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더군요.”

한국 가톨릭계의 지도자이자 사회적 양심이라 불리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즈음해 종교계 지도자로 30여 년 사회운동을 같이 해온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74 · 영화사 회주)은 남다른 애도를 표했다.

-스님께서는 故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가장 먼저 조문을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추기경의 선종을 맞은 애통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2월 16일 저녁뉴스에 김 추기경의 선종 속보가 떴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입원했을 때 몇 번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김 추기경의 병환이 걱정돼 작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대화합을 위해 큰 업적을 세우신 나라의 큰 어른이니 만약 타계하실 경우 국민장에 준하는 사회장으로 모셔달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부리나케 준비해서 찾아가니 빈소도 채 차려지기 전이더군요. 김 추기경의 시신이 안치되고 미사집전을 마친 정진석 추기경이 찾아와 조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 30분쯤 기다렸어요. 김 추기경은 열린 사고를 지닌 개방적인 종교지도자였습니다. 김 추기경은 종교를 초월해 국민화합, 민족화해, 인도적 지원 등 사회 정의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사회 갈등해소 화합에 헌신

-김 추기경과는 언제부터 어떤 일을 주로 함께 하셨는지요? 중요하게 기억되는 부분들을 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추기경을 처음 만난 것은 1971년 청담 스님 빈소였습니다. 김 추기경은 그때 청담 스님을 조문 왔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종단 일을 시작했던 나는 그때 홍보역을 맡고 있었지요. 이후 총무원장이 된 후로는 국방부 ‘군종의 밤’ 행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후 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공동대표, 이사장으로 활동할 때 김 추기경은 꼭 찾아와 축사했고 함께 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때도 김 추기경과 나는 청와대에 함께 초청 받아 시국현안 등을 살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 통일고문회의에서 활동한 것을 비롯해 국가 · 사회적 원로초청모임마다 함께 활동했어요. 사회적 이슈와 갈등 해결과 화합에 김 추기경과 강원룡 목사님 그리고 내가 트리오로 활동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 보며 ‘감동’

-같은 종교지도자로서 김 추기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2000년 5월 김 추기경이 심산(心山)상을 받았습니다. 심산상은 항일독립투쟁가로 초대 성균관대 총장을 지낸 심산 김창숙 선생을 추모해 제정된 상인데 불교계로 치면 만해상과 같습니다.

수상 후 김 추기경과 서울 수유동 심산 선생 묘소를 찾았는데 주저 없이 절을 하는 겁니다. 개신교쪽에서 성직자가 절했다고 비난이 컸습니다. 그래도 추기경은 담담했어요. 김 추기경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물으니 ‘어른에게 절한 것은 당연하다. 민족지도자인데 어떠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때 동아일보 사설 중에 ‘돌아가신 지도자에게 살아있는 지도자가 절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기억납니다.

또 김 추기경은 젊은 시절 석굴암에 감동 받아 1시간 동안 부처님 앞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가톨릭 추기경이었지만 불교와 유교의 피가 흐르던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화해와 화합으로 표현하셨지요.

종교간 화합을 위해 불교에서는 내가, 개신교는 故 강원룡 목사가, 가톨릭은 김 추기경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故 강 목사도 나이가 많았지만, 김 추기경도 나보다 13살이 많았어요. 13살 어린 내게도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총무원장 스님’이라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김 추기경은 겸손하고 부드럽고 조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항상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내포돼 있었고요. 하지만 말보다는 깊은 의미가 담긴 웃음과 낮은 곳을 향한 실천으로 주변을 설득하던 분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한없이 부드러운 친절로 대하면서 불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왔고요. 부당한 것에 대해 강론과 담화 등으로 대항한 실천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탐욕이 경제파탄의 원인

-요즘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 김 추기경의 선종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시대에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가꾸고 추수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를 어기고 탐욕으로 금융질서를 악용한 결과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공황입니다. 특히 미국 뉴욕 월가의 탐욕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중남미와 유럽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금융제도가 문제였으니 제도를 바꿔야지요. 상생(相生)을 염두에 두고 제도개혁을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국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7(Group of Seven)으로 대표되는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빈곤국과 함께 공생(共生)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종교편향은 포교등한 과보

-이제는 종교편향도 중요한 사회현상이 됐습니다.

“종교편향은 피해 입은 불교를 넘어 국민화합을 깼다는 점에서 분명 잘못된 현상입니다. 사회정의와 도덕성 앙양을 역행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원인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포교를 등한시해서 얻은 과보지요. 장 ·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과 교육현장에서 종교편향이 심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종교편향 금지법 등으로 제동장치가 마련됐으니 일단 지켜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종교에 대한 외면을 불러 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종교는 왜 필요하고, 한 사회에서 종교가 참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할까요?

“종교인이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추기경이 선종했어도 그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김 추기경을 모델로 삼아 요익중생(饒益衆生) 하는 종교인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비우고 살면 편안해 진다

-김 추기경께서 생전에 민주화와 낮은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스님께서도 지금도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십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때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셨습니다.

“불교는 경전 등을 배워서 알고 수행을 통한 체험으로 이를 확신하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 개인적 수행으로만 끝나면 중생과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공(空)사상에 근거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 일체중생에 자비를 베풀라는 요익중생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것, 불법을 세계에 전해 중생을 일깨우자는 것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입니다.

경실련 운동 등은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공명선거 운동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전개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도덕 운동이 생활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한국불교는 자기 수행과 기복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비우고 살면 편안해집니다. 법열(法悅)을 맛봤다면 이를 남과 나누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대담=임연태 부국장, 정리=조동섭 기자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所長 方弼錫

주역 개인지도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前 世界佛教徒 友誼會 弘報次長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

수행하자!

생활인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경전공부와 수행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직장인이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늘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마음을 낸다면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 불교 경전 공부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응해 많은 신행단체나 사찰에서 다양하고도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수행의 길을 안내해주는 봄같이 반가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어 한 자리에 모아봤다.

서울 백운암 상도선원 등에서는 기초교리와 수행방법을, 금강선원 등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다. 제따나와선원 등에서는 위빠사나 수행을, 법왕정사에서는 염불삼매 체험을 마련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각 사찰 및 수행단체 프로그램

장 소	프로그램	일 정	전화번호
서울 상도선원	마음수행 코칭과 불교입문 강의	3.5~5.31	02-815-3391
부산 법왕정사	염불삼매 체험 집중수련회	3.6~3.8	051-583-7886
서울 금강선원	기초참선과정	3.2~6.1	02-445-8484
서울 동국대 사회교육원	자비명상과정	3.10~5.26	02-2260-3730
안성 활인선원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	3.13~3.15	031-671-7707
함양 벽송선원	재가불자 벽송선회	3.15~3.22	055-962-5661
계룡 무상사	무상사 참선반	3.2~6.29	042-841-6084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4.6~5.5	033-339-6777
서울 보리수선원	〈아비담마〉특강	4.24~5.9	02-517-2841
연기 위빠사나 붓다선원	오온관찰법과 표적관찰법	2.26~6.29	041-868-3119
서울 제따와나선원	청정도론 특강법회	3.17~6.9	02-595-5115
천안 호두마을	주말 집중 위빠사나 수행	매주 금~일	041-567-2841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원시불교 경전 읽기 모임	4.8~7.29	02-3411-8103
서울 불교인재개발원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나를찾는선	3.23~5.25	02-735-2428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무비스님 〈임제록〉대강좌	4.1~8.19	02-735-2428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명상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3.6~5.22	02-2236-5306

4년간 사찰전문털이 40대 구속

사찰만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월 18일 사찰 법당과 요사채가 빈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 모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4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사찰에서 47차례 걸쳐 총 3900만원 상당을 훔친 범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빈방 털이와 더불어 긴 꼬챙이에 양면 테이프 등을 감아 불전함 현금을 빼내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스님들은 잘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 사찰을 택했다"며 "반 년정도 사찰생활 당시 새벽예불 때 방이 거의 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스님들은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며 경찰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증가 등 일선 사찰에서 성보 및 보시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덕현 기자

"이사장 지욱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서불대 비대위, 기자회견 열고 이사장 사퇴 촉구

"서불대를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학생 · 교수 · 교직원 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장 지욱 스님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서불대 사태가 확산일로에 쳐했다.

서불대 비대위는 2월 17일 우리 함께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병운 교수(대학평의회 의장), 조옥경 교수(교수협의회 회장)와 황성옥 학생회회장, 황혜연 직원협의회회장 등 학내 구성원별 기구대표를 비롯해 서불대 이사회(이사장 지욱)에 의해 해임된 박성현 · 성승연 교수와 김준범 前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대위는 '서불대를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사퇴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총장에 대한 3번의 직위해제와 2번의 해임, 석박사 35명의 제적,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직 박탈, 4명의 직원해임과 1명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교수 2명의 재계약불가 통보를 비롯해 제적생 학교출입 금지와 총장실 폐쇄를 위한 용역배치 등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욱 스님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당신 발 앞에 무릎꿇고 참회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구성원은 누구든 여지없는 인사징계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파행행정을 넘어 서불대 존립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욱 스님은 속히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서불대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박성현, 성승연 교수의 부당해임 철회 △직원들의 부당해임 및 직위해제 철회 △인사비리 관련자 사퇴 △황윤식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중지 △지욱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을 촉구했다.

(상세기사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하나원 법당 2월 28일 첫 이전법회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안성 하나원에서 2월 28일 오후 2시30분 법당 이전 및 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새터민들의 입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하나원은 2007년 10월부터 128억 5천만원을 투입, 본원내에 교육관과 생활관, 직원 숙소각 1동을 새로 건립하고 운동장과 주차장도 넓히며 작년 12월 18일 준공을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관은 법당, 강의실, 컴퓨터실, 놀이방,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숙소인 생활관은 3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또 이번 증축으로 교육생 동시 수용규모가 300명에서 600명, 연간 1800명에서 36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규모가 4배 이상 커진 법당에는 불단을 조성한 뒤 관세음보살상도 새롭게 모셨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안성사암연합회(회장 각현), 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회가 법회에 참석해 법당 개원을 축하하고 새터민들을 격려한다.

이날 법회에 앞서 오전10시 안성 청룡사에서는 하나원생을 초청해 조상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이상언 기자

"진흥원 주도로 btn과 BBS 통합해야"

선상신 상임이사, 불교와사회포럼서 주장



2월 19일 대한불교진흥원이 개최한 불교와사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불교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 미디어의 미래를 위해 btn(불교TV)과 BBS(불교방송)는 조속히 통합돼야 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2월 19일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미디어의 역할' 주제로 개최한 불교와 사회 포럼에서 btn과 BBS 통합이 주장돼 귀추가 주목된다.

행사에는 사회를 맡은 김규칠 상임이사(대한불교진흥원)를 비롯해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김재영 지도법사(총보리회), 박광서 원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반영규 선생(불교음악가), 선상신 상임이사(한국언론재단), 이용부 前 문화부 종무관, 홍사성 前 불교방송 상무가 참여했다.

BBS 보도국장을 역임한 선상신 상임이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기관의 통합은 필수"라며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둘 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 이사는 "자원 · 인력 등을 집중시켜 컨텐츠에 고민할 때"라며 "현실적으로 종단을 대신해 진흥원이 나서야 한다. 1000~2000억 규모의 불교계 미디어 펀드를 조성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웃종교 방송인 기독교 방송은 명칭에서 '기독교'를 빼고 'CBS'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합미디어기관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제7회 법계장학금 전달식

청도 운문사서 6명에 1800만원



명성 스님(오른쪽)이 2월 18일 청도 운문사에서 6명의 스님에게 18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명성 스님이 혜총 스님(왼쪽)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이 올해로 7회째 법계장학금을 전달했다. 2월 18일 청도 운문사에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현정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혜총 스님(경주 동국대 한국음악작곡과), 찬영 스님(동국대 선학과), 진량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지은 스님(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명법 스님(서울대대학원 미학과) 6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1800만원을 전달했다. 법계장학회는 명성 스님이 마련한 장학금과 후원금으로 신심이 돈독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부대중을 후원하는 장학 제도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전국최고의 불자로 거듭나라~!"

서울시 공불련 창립 1주년 기념 및 신년법회



창립1주년을 맞은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는 2월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뒷줄 오른쪽부터 하복동, 이동우 회장.

서울특별시 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이동우)는 2월 16일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및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문사 주지 영재스님, 서초구 사암연합회장 법안 스님,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안홍부 前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이동우 서울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서초 · 금천 · 강남 · 성북 · 송파 · 관악 · 용산 · 은평 · 구로구청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제 스님은 "불법과 어려운 인연을 맺은 만큼 항상 기도를 하면서 선량하게 잘 살면 곧 부처님이 될 것"이라며 "불자 공무원의 한량없는 자비와 베품으로 시정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복동 회장은 축사에서 "지역단위, 전 공무원 불자회 모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古佛叢林白羊寺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공고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에서는 2009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 사교과 00명 / 사집과 00명 / 치문과 00명
■ 모집기간 : 2월 10일 ~ 3월 20일까지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 · · · · · · · · · · · · ·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 · · · · · · · · · · 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 · · · · · · · · · · 1부
-. 승려증(행자교육필증,수계증명서) 사본 · 1부
-. 사진(만의복장, 2×3규격) · · · · · · · · 4매
■ 준 비 물 :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 서류심사 /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승가대학 061)392 - 7324
종 무 소 061)392 - 7502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

古佛叢林白羊寺

고불율원 율원생 모집요강

고불총림 고불율원의 율맥은 조선시대 대은, 금담, 초의스님을 비롯해 근대의 만암, 서옹스님을 걸쳐 30여년이 넘도록 백양사에 주석하시는 율주 동성혜권스님께 이르렀습니다.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청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율원생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모집인원 : 0 名
■ 모집기간 : 2월 10일 ~ 3월 25일까지
■ 교 과 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2×3규격) 4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종 무 소 : 061)392-7502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

가는 곳마다 주인되기… 간절한 마음 이어져야



미산 스님은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겨울워크숍에서 진솔한 출가수행담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모았다.

미산 스님의 '나의 출가수행 이야기'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몸이 약했다. 집에 있으면 단명해 스물 안에 죽을 수 있으니 스물까지만 절에서 살라면서 부모님이 열두 살 때 백양사로 보냈다. 절에서 어릴 적 별명이 생영감 혹은 다섯 개의 완두콩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숙해 말과 행동이 어른스러웠던 모양이다. 속명이 김완두이기에 학교에선 완두콩이라 놀림 받았다. 지인들은 나의 둥실둥실한 성격과 외모에 이 별명이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백양사 주지스님이 입적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내가 스물 안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 방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스물을 넘기지 못하고 저런 죽음을 맞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도저히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때 선방에서 공부하던 스님을 통해 "나고 죽는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선"이라는 소리에 학교도 그만두고 무조건 선방스님을 따라나섰다. 물론 은사스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초여름 날 선방스님과 도망치듯 첫차를 타고 김용사로 가 다시 삭발을 하고 금선대라는 암자로 가서 몇몇 수좌스님들과 정진을 시작했다.

집에서도 찾아 나섰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 하루는 암자에서 큰절로 내려가니 선생님을 비롯해 60여 명의 급우로부터 편지가 왔다. 아이들이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 같이 공부하자는 내용이고, 선생님은 절 생활이 어려워 나간 줄 알고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니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긴 위문편지였다. 그러나 당시는 그러한 내용이 왜 그리 세속적으로 들렸는지 몇 개를 읽다가 모두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다. 거처가 알려져 부모님을 피해 동화사, 법주사 강원 등으로 갔다. 그런데 강원은 원하지 않는 공부가 너무 많았다. 급한게 생사문제라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일어특강, 한문특강 등 죽음 문제와는 무관한 과목만 있는 것 같아 강원도 그만두고 문경 원적암의 서암 큰스님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공양주를 시키시며 밥하는 것 불 때는 것 등등을 자상하게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 2시간 직접 데리고 앉아 좌선정진을 하도록 하셨다. 나머지 시간은 손잡고 다니시며 나물도 뜯고 밭도 매면서 일상사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불을 때고 있으면 옆에 와서 허리를 쿡 찌르면서 "화두 들어"하고 다그치면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이뭣꼬 화두를 처음 받아 참구하며 한 철을 신심과 열정으로 짬지게 보냈다. "보고 듣고 숨쉬는 자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뭣꼬? 이뭣꼬?…." 이렇게 일하면서 화두 드는 것을 익히고 나서 서옹 큰스님의 회상이었던 봉암사 선원에서 한 철 지내게 됐다. 큰스님의 지도로 계속 정진했다. 이곳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공양주 소임을 맡게 됐다. 현재의 봉암사는 종립선원으로 수좌들도 많고 그 위상이 매우 높지만 1970년대 초반 만해도 집도 몇 채 되지 않았고 주로 참선을 오래한 구참 납자들이 약 20여명 모여 자유롭게 정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덕망 높은 구참스님들께 공양을 지어 올리는 공덕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됐다.

서암 큰스님께 처음부터 동중 공부를 배웠기에 공양주하면서 이뭣꼬 화두 드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참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좌선시간이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좀 해이해진다는 생각이 들어 초발심자들을 친절히 지도하신다는 송광사 구산 큰스님을 참예했다. 방부를 들여 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구산 큰스님이 허락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의 가행정진을 하기에 너무 어리다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도 한 고집하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매일 7일간 아침마다 예불 끝나면 구산 큰스님께 절하고 "생사대사 해결해야겠으니 방부 들여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나오곤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일째 되는 날, 스님이 허락하셨다. 단 하루 8시간 정진하면서 한 철 잘 살면 본방에 방부를 들여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반 철 남짓 지났을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 폐결핵 늑막염 3기라 더 이상 정진이 불가능했다. 어린 나이에 육단심(肉袒心)으로 밀어부쳐 병이 난 것이다. 백양사에 내려가 치료를 받아야 했고 6개월 정도 지나니 괜찮아져 다시 선방으로 가려하니, 은사스님과 어머니를 비롯해 주변의 만류가 있었다. 학교만이라도 마치라는 것이었다.

이뭣꼬 화두를 들고 3년 동안 몸도 돌볼 겨를 없이 정진했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니 죽음의 공포는 많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헐떡이는 마음도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행해가면 화두도 타파하고 생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수행이론과 실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전공부를 하고 싶었다. 이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바르게 하기위한 불교학을 연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하여 동국대, 인도 뿌나대,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하바드대 등 긴 학문의 역정이 시작됐다. 사실 동국대를 졸업하고 선방과 유학 사이에서 갈등하다 유학을 결심했다. 빨리어와 범어를 공부해 초기경전을 공부하고 싶어서였다. 먼저 스리랑카에서 2년, 인도의 뿌나대에 가서 3년간 원전 공부를 했다. 그러나 인도의 불교연구는 훈고학적인 면은 강하지만 비판정신이 부족해 체계적인 현대학문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길을 찾다 옥스퍼드에서 유학 온 영국학생으로부터 옥스퍼드대에 좋은 교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고, 바로 영국행이 이루어졌다. 지도교수와 인연이 닿으려고 했는지 마침 경전읽기모임에 초청받아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을 맡았다. 나름대로 영어공부도 하고 통역기법도 익히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에 결과가 좋았다. 덕분에 지도교수의 인정을 받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며 은혜를 많이 입었다. 옥스퍼드에서 6년 만에 '초기불교 찰나설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하버드대에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가서 1년간 세계 여러 종교를 전공한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학문의 길에 들어섰지만 항상 수행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 방학 때만 되면 고엔까 명상센터, 틱낫한 스님의 프럼빌리지 등에 가서 초기불교경전에 나오는 수행법을 배워 일상 속에서 실천해보았다. 경전의 말씀을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환희심 넘치는 일이었다. 학문을 하는 동안에는 주로 초기불교 수행법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수행센터를 탐방해 선지식도 친견하고 자료수집도 했다.

생사문제 해결하는 것이 참선이라는 말에 선방 정진
수행이론과 실제 정리 위해 학문과 각종 수행 섭렵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동국대에서 한 학기 강의하다 서옹 큰스님의 권유로 백양사 운문암 선방으로 가서 정진했다. 이제 실참실구(實參實求)해 생사문제를 해결해야지 불교학문만 해서는 죽을 때 아무 소용없다고 하시며 화두참선을 다시 하도록 경책하셨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지금까지 한 참선 공부에 대해서 점검하셨다. 유학시절에는 주로 경전공부와 초기불교수행을 중점적으로 했고 간화선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소년시절에 했던 이뭣꼬 화두를 다시 주시며 참구하라고 했다. 어려서 화두 참선하던 것을 되살리고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을 정리도 할 겸 하안거 동안 운문암에서 열심히 정진했다. 지금까지 수행정진을 바탕으로 해 이뭣꼬 화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이뭣꼬 화두의 특징은 여타 격외어로서의 화두와 달리 나 자신의 실존에 관한 의문이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숨쉬는 구체적인 존재 현상에 관한 궁극적 물음이다. 늘 깨어있어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존재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한 의심이다. 본래면목으로서의 '나', 아니 '나'라는 이름 붙이기 이전의 한 물건인 것이다. 혜능스님은 "나에게 한 물건(一物)이 있다"라고 해 '나' 혹은 '본래면목'이라는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실체론적 입장을 경계한다. 나아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하는 혜능 스님의 물음에 대해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희양 스님의 대답 속에는 더욱 철저한 중도적 언어표현을 통해 '나' 혹은 '본래면목'을 객진번뇌 속에 있는 소소영영한 실체적 존재로 착각하게 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척파한 것이다. 편의상 주인공, 한 물건, 참나, 자성청정심, 불성, 참사람 등등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지만 온전히 그것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간절한 의심이 일어난다.

도대체 보고, 듣고, 숨쉬는 존재가 여기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답을 찾아 뛰어든 것이다.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다. 답답하다. 답답한 마음 상태의 지속은 폭발 직전의 감정으로 굳어져 간다. 의정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되뇌일 필요가 없다. 오로지 답을 찾는데 몰입한다. 어떠한 관념의 때도 묻지 않도록 단지 답만 찾는다. 이렇게 해 의심→의정→의단이 형성돼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일념이 형성된다. 일념이 만년이 되도록하면 의단독로(疑團獨路)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의 상태에서 전후 좌우 상하 모든 길이 끊어져 오고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은산철벽에 갇히게 된 신세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 한번 크게 죽었다 살아난다. 온몸을 의단이라는 용광로 속에 던져 한 송이 연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육조단경> 기연품의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여여(如如)하다"는 말씀처럼 보고, 듣고, 숨쉬는 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뭣꼬 화두는 이것을 드러내어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성자여(自性自如)의 존재모습을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내어 연기-공-중도의 실천행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다. 날마다 마음 빛을 돌이키면(廻光返照) 있는 그대로(如實知見)란 실감 속에서 이뭣꼬 화두 자체가 드러나 공부가 순숙해진다. <임제록>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주인으로 지금 여기에 참다운 삶(隨處作主 立處皆眞)"을 살아가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간화선 등 명상에서 해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물론 자기 반조(返照)로 '참나'를 찾던 이들의 수행은 동안거 해제 후에도 그칠 줄 모른다. 수행으로 삶의 고통을 녹여 온 불자들의 열기는 2월 14일 공주 마곡사 연화당을 가득 채운 200여 사부대중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에서 '명상, 이 뭣고?'를 주제로 겨울워크샵을 개최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 관련 불교학자 10인이 발표한 행사는 그간의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에 관한 토론회와는 달리 실질적인 수행경험과 실천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상도선원장)은 '나의 출가수행과 이 뭣고 화두'를 주제로 출가수행담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기사 7면

발표에 앞서 미산 스님은 "현재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어려서의 정진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생사문제의 해결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초발심을 바탕으로 한 정진의 삶은 든든함과 더 큰 원력을 갖게 해준다"고 말해 발심과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산 스님의 출가수행담을 소개한다. 조동섭 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침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동국대의 5배)

국립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 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0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남경재경대 학	4년	20명	· 경제학, 법학, 공학, 외국어, 예술디자인과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서울시내대학편입가능 · 학자금대출가능
· 집업의사(국제중의사)자격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9년 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86-25-84028478 / 86-13-585195431
· 팩 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8년 본과 입학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김동성(중일고) ▲한승미(우송대)
▲안성환(김천고) ▲김도경(진선여고)
▲도현운(영남대) ▲백지훈(동신대)
▲윤두경(일동고) ▲임제곤(부산과학대)
▲조영성(사직고)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강성우(호남대)
▲이종환(우석대) ▲최종건(UCLA)
▲황성환(대건고) ▲박선규(반포고)
▲서연호(한국항공대) ▲오진영(천안중앙고)
▲김현진(동국대) ▲김범태(화홍고)
▲김지효(경동대) ▲정선호(동명정보대)
▲김범진(동아대) ▲최혜련(서인천고)
▲김태우(부산대) ▲남우열(주성대)
– 석사과정 합격자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분교)
삼화불교 대 학 림

한국 총장 손혜인

해 외 WORLD

달라이 라마 '독일미디어상' 수상

이탈리아 로마 · 베네치아 명예시민증도 받아

달라이 라마가 '독일미디어상'을 받고 이탈리아 명예시민증을 받는 등 유럽 국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일본 교도 통신은 "달라이 라마가 '독일미디어상'을 받았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독일미디어상'은 국제 여론과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끼쳐온 인사에 수여하는 것으로 달라이 라마가 50년에 걸쳐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현대사에 기억될 인물로 활동한 점을 높이사 수여했다.

독일미디어상은 1992년 창설됐으며 매년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 남아공 前 대통령과 빌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는 2월 8일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로마 시장인 지아니 알레마노는 "인류의 정체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불의를 거부한 도덕적인 상징"이라며 달라이 라마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티베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그의 투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명예시민증을 받은 달라이 라마는 "오늘의 영광스러운 일은 내가 비폭력 투쟁을 벌여나가는데 많은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10일에도 베네치아를 방문해 베네치아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이나은 기자

불교연구센터 건립 학술대회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가 2월 16~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타임즈(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연구소(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는 최근 불교연구센터를 설립한 기념으로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국제불교컨퍼런스에는 이란과 미국, 독일 등 각 나라에서 온 150여 학자, 교수, 승려 및 신학자들이 참석해 '아시아 불교: 불교적 지식과 문화교류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주제로 동남아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는 불교문화에 대해 토론 했다.

동남아연구소장 케스바파니(Kessvapany)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 중동 국가들이 내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웃종교에서도 강조했던 불교의 핵심사상 '자비, 평화, 비폭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며 "이번 학술대회는 순수 학문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며 정치나 종교색을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부디스트 서킷' 호화열차 도입

인도 관광청이 비하르 주(州)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열차 관광 상품 '부디스트 서킷'에 호화 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인도 언론 '더 타임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가 2월 6일자 기사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관광청 칸티 싱 장관은 "고급 열차를 도입해 내국인들이 불교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인도 열차관광 상품인 '바퀴달린 궁전'은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국내 여행객들도 불교성지 순례 동안 고급열차를 이용하도록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청 산자이 코타리 비서관은 "이번 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 2008년 증가한 외국인 관광 입국비율 만큼 국내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뭄바이 테러 사건 발생 후 일어난 이후 내국인 관광 증가 추세는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치사리 5년만에 공개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5년 만에 공개된다.

주 스리랑카 대사관에 따르면 스리랑카 캔디(Kandy)시에 위치한 불치사(佛齒寺, 달라다말리가와 사원, daladamaligawa) 주지는 "불치사의 성물인 부처님 치아를 3월 6~16일 매일 오후 1시~5시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의 송곳니를 소장하고 있는 불치사는 치아사리를 5년 만에 공개하는 것이다.

기원전 4세기, 인도의 카링가 왕녀가 싱하라 왕가로 시집올 때 부왕이 딸의 행복을 기원하며 딸의 머리카락에 부적으로 부처의 치아를 남모르게 숨겨서 보냈다. 스리랑카로 건너온 치아는 싱하라 왕조와 함께 각지를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캔디의 절에 봉안됐다. 이렇게 해서 불치사(佛齒寺)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모셔진 부처님의 치아는 보석이 가득 박힌 일곱 겹의 상자에 보관돼 있으며, 불치 축제 때만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나은 기자

"국내 최초 실버문화벨트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새해계획 발표

"종로를 중심으로 실버문화벨트를 형성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 · 사진)는 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로 실버문화벨트 사업' 등 2009년 주요 운영계획을 밝혔다. 일문 스님은 "노인문화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복지를 강화하고자 생활 및 예술문화가 어우러지는 국내 최초의 종로 실버문화벨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창업훈련 강화 및 고령자기업 설립 △요보호 어르신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핵심사업으로 소개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실버문화벨트 조성은 서울시의 노인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됐다.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28.4%)가 건강활동(38.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어르신 232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를 통해 종묘 · 탑골 공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렴한 비용의 공연장(69.5%)과 무도장(33.5%), 전시장(24.0%) 등 노인문화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활기 · 활발 · 활력의 新 노인문화 구축'을 목표로 △예술공연(실버영화관, 노인영화제 개최) △노인문화 지원(종로 실버라디오 방송국 개설, 시니어 북카페 운영, 동아리 활동) △일 · 봉사 · 세대통합(노인용품 전문점 운영) △교육 및 상담(어르신 상담센터 개설, 실버 인문학 강좌 운영) 등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과 자기계발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 취업훈련을 확대 강화한다. 취업알선과 훈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버카페(찻집)와 아트샵 및 노인용품점 등을 취급하는 고령자 기업을 직접 설립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고용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일문 스님은 "일본에는 노인전용 거리, 미국에는 시니어타운이 있듯 국내에도 어르신을 위한 최초의 실버타운이 형성된다"며 "이번 실버타운 형성 프로젝트가 노인문화공간 확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 전국적으로 노인문화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로터스월드·김안과 자비의술 펼쳐

캄보디아 BWC 어린이도서관도 완공

1달러로 4인 가족이 하루 식사를 해결하는 나라. 문맹률이 60%에 달하며, 수많은 아이들이 AIDS, 백내장 등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의료 불모지 캄보디아에 자비의 슈바이처들이 광명을 선사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서울 김안과 병원은 2월 7~14일 로터스월드가 설립한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어린이센터를 비롯한 씨엠립 빈민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성주 병원장을 비롯한 14명의 김안과 · 고려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명이 참가한 이번 의료봉사에서 의료진들은 2000여 환자를 진료하고, 백내장, 안구 종양 등 크고 작은 72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로터스월드는 2002년부터 캄보디아 빈민 구호 사업에 나섰으며, 2006년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에 고아원 및 교육 · 의료시설이 있는 BWC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2008년에는 보다 활발한 의료봉사를 위해 BWC센터 내 진료소를 개설했으며, 이번 의료봉사를 진행한 김안과를 비롯 KT&G봉사단, 경희의료원불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김안과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의료혜택을 받은 캄보디아인은 무려 9000여 명, 무료수술은 25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 쓰레이 리(여 · 13)를 현지 병원을 임대해 집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또한 현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소아백내장 환자 기 디나(여 · 9)양을 서울 김안과 병원으로 후송해 2월 17일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현재 기 디나양은 회복 단계로 2월 27일경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번 현지 의료봉사와 수술 전 과정은 탤런트 이윤지씨가 동행해 2월 21일과 28일 'KBS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방영된다.



탤런트 이윤지씨가 캄보디아 BWC센터에서 캄보디아 아이들 돕기를 호소했다.

한편 2월 11일에는 KT&G복지재단이 후원한 캄보디아 BWC어린이 도서관도 완공됐다. 도서관 준공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KT&G복지재단 김재홍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인근 지역민 200여 명이 참석해 문맹퇴치의 출발을 축하했다. 어린이 도서관은 하루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터스 월드는 "현지에는 출판시장이 열악해, 한국에서 영문서적 등을 기증받고 있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02)725-4277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홍보

생명나눔실천본부

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관용)에는 평소의 10배가 넘는 800여 명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다. 명동성당 앞에서만 하루 100여 명이 장기기증서를 제출했고, 탤런트 정한용, 가수 장윤정 · 서인영, 개그맨 양원경 등 연예인 10여 명도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나섰다.

박용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팀장은 "평소에는 일일 평균 10~15건의 장기기증 문의 · 접수를 받았으나, 故 김 추기경의 각막 기증 소식이 전해진 후 30~45건으로 문의가 늘었다"며 "2008년 장기기증 서약은 1000여 건이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기증 홍보를 강화해 1500여 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에 두 번 장기기증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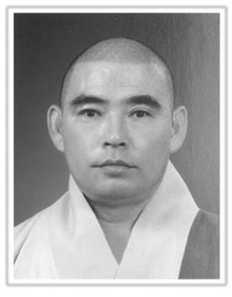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화,수,목 (숙식가능)

간화선 vs 위빠사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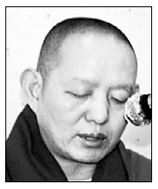
불교학연구회 '명상, 이 뭣고' 주제 겨울워크숍 '묻고 답하기' 진지

'간화선과 위빠사나, 위빠사나와 간화선' 어느 것이 먼저일까? 남과 북을 남측에서는 남북, 북측에서는 북남이라며 서로 순서를 앞다투 듯 간화선 수행자들은 위빠사나 수행이 소승 수행법이라 폄하하고,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석가모니 재세 시 간화선은 존재하지 않았던 수행법이라며 비판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두고 중국 조사선 일색이던 한국불교에 1990년대를 정점으로 상좌부 불교와 티베트불교 등이 유입되면서 생긴 일시적 문화 충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 수행법을 따르는 수행자간에 진솔한 소통이 부재했던 까닭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 연화당에서 '명상, 이 뭣고'를 주제로 개최한 2009 겨울워크숍은 부제를 '간화선과 위빠사나, 위빠사나와 간화선'이라고 적어 양측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반증했다. 이날 100여 평 규모의 연화당을 가득 메운 200여 사부대중은 신라 자장 율사가 마곡사를 창건했을 때 법을 찾아 삼밭의 삼(麻)처럼 모였던 모습이다. 대중들은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대결을 지켜보며, 자신에 맞는 이고득락(離苦得樂)할 방편을 찾아 고민하거나 자신의 공부를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자 각 5명이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자신의 수행체험을 곁들여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위빠사나 측에서는 성오 스님(홍원사 주지)과 일묵 스님(수행공동체 제따와나), 김열권 법사(위빠사나 지도자), 안병남 박사(델리대),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이 발표했다. 간화선 측에서는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 무각 스님(공생선원 선원장), 박영재 교수(서강대, 선도회 지도법사), 혜봉 오원명 원장(사단법인 밝은세상)이 발표했다.



◇성오 스님은 '마하시 수행 전통과 쉐우민 수행 전통의 공통점과 다른 점'에서 "△사념처관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선호했으며 △수행점검을 필수로 한 것은 같다. 마하시 수행은 몸의 느낌을 성찰하는 것을 중점으로 단계적 수행에 충실하지만, 쉐우민 수행은 마음의 성찰을 중점으로 일상 동중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묵 스님은 '파욱 수행 소개'를 통해 "순수 위빠사나가 대부분이던 미얀마 수행에 파욱 스님은 <청정도론>을 근본으로 사마타 수행을 통한 위빠사나 수행을 강조했다. 유위법에 대한 애착을 끊고 무위법에 도달하려면 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이 세상을 비어있는 것(空)으로 봐야한다고 한 것에서 마음은 완전한 비어 있음이 아니라 철저히 깨어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겨울워크숍에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연화당을 가득 메웠다.



◇김열권 법사는 '상좌·대승 위빠사나에 대한 소고'에서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야 한다. 위빠사나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상좌 위빠사나, 북방 대승불교의 대승 위빠사나로 나눌 수 있다. 원효 스님도 <금강삼매경론>을 보면 무상관(無常觀)과 무생관(無生觀) 등 근본불교에 가까운 관법을 했다. 불법수행의 핵심은 사념처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근본경전에 따라 체험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남 박사는 '고엔카 전통의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인도에서 유학하며 위빠사나를 수행해왔다. 위빠사나 명상은 허구에 찬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준다.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명상이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를 체험해야 한다. 미얀마의 수행법 가운데 고엔카 수행은 재가자를 위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고엔카는 '샴파잔냐(지혜로 깨어있음)'를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의 이론적 토대와 화두실참'에서 "간화선 수행의 사상적 연원은 혜능의 선법이다. 간화선 용어 가운데 자성청정(自性淸淨), 본래면목(本來面目), 주인공(主人公) 등은 (힌두교의) 실체적 진아(眞我, 아트만)의 의미로 설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공, 무아, 중도를 나타내는 존재의 참모습을 선종 용어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조사선과 초기불교에서의 정념은 일치한다. 화두참구는 화두로 '깨어' 지혜를 계발하고, 화두로 '열려' 자비를 증진시키는 수행법"이라고 풀이했다.



◇무각 스님은 '한암 선사의 불교사상과 실천행'에서 "한암 선사는 참선과 염불이 둘 아닌 이치를 밝힌 선지식이다. 염불, 간경 등은 자성을 반조하는 데 있어 좌선과 다르지 않다. 공생선원은 선어록 위주로 선수행 지도를 하는 도량이다. 선어록을 많이 듣다보면 성문에 이르고, 참구하다보면 "말하기가 (한 생각 내기가) 무섭다"는데 연기의 도리를 자각한 연각의 경지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비가 발현된 이가 바로 보살"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 누구를 위한 수행법인가'를 통해 "어릴 적 마마보이였다가 대학에 진학 후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간화선을 접했다. 간화선을 하려면 수식관(數息觀) 수행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선도회는 석가세존과 무문혜개 선사, 의현종달 노사에 귀의하고, 지속적으로 스승에게 점검을 받는다. 누구나 매일 2시간씩만 좌선하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놀랄만한 성취를 체득할 힘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혜봉 오원명 원장은 '한국불교의 간화선 수행,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서 "부모를 일찍 여읜 탓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불교가 이슬람으로 대체된 사실 바로 알아야 한다. 간화선 수행법이 최고라는 수행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위빠사나가 간화선에 묻다

일묵 스님: 간화선에서 의심을 해소하는 구조는 어떻습니까?

월암 스님: 위빠사나가 현상에서의 마음챙김 즉 있음에서의 수행이라면 간화선은 조사선 사상에 기인해 오온의 일체가 공하다는데서 시작합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각각 공과 있음으로 출발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면 위빠사나와 간화선은 둘이 아닐(不二) 것입니다.

선가에는 중도를 강조한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두라는 강력한 의정으로 생멸심을 차단하는 것이 간화선이며, 의단이 깊어져 정점이 이르렀을때 화두가 타파됩니다.

일묵 스님: 부처님이 세세히 설했음에도 왜 깨닫기는 어려운가요?

월암 스님: 업을 정화시키는 구조는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같습니다. 특별히 간화선을 지칭한다면 간화선 매뉴얼이 부재한 것을 이유로 꼽겠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자끼리는 갈등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일묵 스님: 미얀마에는 순수 위빠사나와 파욱 스님으로 대표되는 사마타-위빠사나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자들간에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위빠사나를 위해 사마타를 할 뿐입니다.

성오 스님: 사띠(念)를 강하게 증장하면 저절로 위빠사나(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알아차리려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사띠가 이끌어 줍니다.

마가 스님: 간화선 수행자들은 자비가 없어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미산 스님: 간화선의 역동성이 무자비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절함이 간화인 생명인만큼 정견 확립이 중요하겠지요.

월암 스님: 무자비성이라고 했는데, 임제선이 일어난 화북 지방이 군사문화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제 선사가 군인들 앞에서 일도양단하는 법을 펼치다 보니 그렇게 비쳐지기도 합니다.

#간화선이 위빠사나에 묻다

박영재 교수: 간화선을 하다 위빠사나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 스님: 출가 후 선방에서 다섯 철 나봤습니다. 선방에서 누구에게 물을수도 가르침 받지도 못하는 상태가 줄곧 계속됐고 그냥 관습적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있느라 용쓰는 용맹정진만 했습니다. 묻는 답에 자비롭게 답해줄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위빠사나는 달랐습니다. 매 순간 친절한 지도를 해주더군요.

한국불교를 봅시다. 동안거 해제로 2000여 수행납자들이 용맹정진했다는데 그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간화선에 대한 실참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전무합니다.

월암 스님: 간화선 점검 체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원청규>에도 보면 방장, 조실스님이 선방에 나가 직접 지도하고 대중들은 조석으로 점검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법문이 결제와 해제에 한정되거나, 조실이나 방장스님이 선사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이런 모습들은 간화선 정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화선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고 대중에 다가갈 방편을 찾는 등 현대화를 병행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간화선 본래의 수행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박영재 교수: 월암 스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실스님 방에 입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간화선의 생명인 간절함이 더 길러집니다. 이를 두고 호랑이 굴 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하지요. 선도회만 해도 점검 후 1주일간 긴장이 유지돼 수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행점검 시스템을 복원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간화선은 좋은 스승 아래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봉 오원명 원장: 가정사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위빠사나도 해보고 염불, 주력 등 안해본 수행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위빠사나는 고부간의 갈등 등 구체적 사례와 귀신병 등에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화두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화두를 들다보니 삼보(三寶, 불·법·승)에 대한 귀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버릴 요량으로 티베트불교를 찾았습니다. 그때 티베트 승려가 "소중한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버림은 부모를 잃는 것과 같다"며 귀한 법이니 절대 버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티베트불교에도 화두 수행과 유사한 마하무드라 수행법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정견(正見)을 키우고, 보리심과 육바라밀 등을 고급단계에서 닦는 수행법입니다.

무각 스님: 수행법을 차제로 따지면 선후와 심천이 생깁니다. 하나에 전체가 포함되고 전체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불이(不二)의 정견입니다.

혜봉 오원명 원장: 대학에서는 모두 되지만, 초등~고등학교 단계는 차제가 존재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간화선과 위빠사나, 정견으로 회통하다

월암 스님: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롯해 수행법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간화선 수행자부터 최상승선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혼자만 옳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의에서 경전에 따라 장단점을 논할 수는 있지만 서로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 정법의 흐름이 방편 따라 설해진 것 뿐입니다.

중생의 일념에서 부처의 일념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하기'가 '수행나누기'로 확대돼 요익중생하는 포교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김열권 법사: 부처님에 대한 정견이 확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묵 스님: 경전에서는 선정(禪定)의 황홀함이 인간이 경험하는 최상의 황홀함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견이 중요합니다.

박영재 교수: 부처님 등 스승에 비춰 나의 현위치가 어디인지 자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붓다가 20세일 때 나의 20대는 어떠한가가 예입니다.

안병남 교수: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위빠사나와 간화선 어느 것이든) 수행은 직접 해봐야 압니다.

사찰 건축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시공됩니다
• 포작제작과정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 완공된 법당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은 확실히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특징 저렴합니다 / 간편합니다 / 섬세합니다 / 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가인불교건축
시멘트 고건축의 대명사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76-45 2층
전화. 02)436-1155 Fax. 02)436-1154

일주문



인드라망 24기 불교귀농학교 개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4일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제24기 불교귀농학교를 개강한다.



불교환경연대 정기총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넷째 금요일에 각계 사회인사를 초빙해 불교미래사회 포럼을 개최한다.



명장사 제8대 주지 취임

천태종 재무부장 용암 스님은 2월 18일 명장사 대승전에서 봉행된 주지 취임법회에서 제8대 주지에 취임했다.



반야정사 제4대 주지 진산식

태고종 청주 반야정사 주지 법정 스님은 2월 28일 오전 10시 제4대 주지 진산식에서 취임한다.



'여몽환포영' 사진전

부평 무상사 주지 정암 스님(인천불교인권위원장)은 2월 16~21일 갤러리 이룸에서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했다.



btn '전통 사경' 강좌 개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매주 금요일 2시~3시30분 불교TV 법당에서 '전통 사경' 강좌를 연다. (010)4207-7186



'서예문화' 초청작가전

고인숙 서예가는 2월 23일~3월 1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린 '서예문화' 초청작가전에 '꽃과 마음' 주제 작품 26점을 출품했다.

인사 동대경주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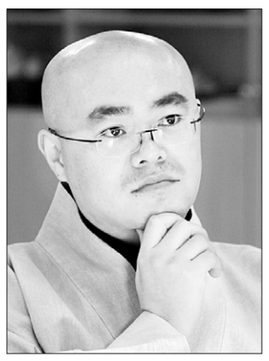
동국대경주병원장(이하 경주병원)에 이경섭 교수(비뇨기과)가 선임됐다. 신임 이경섭 병원장은 2007~2009년 3년 연속 영국 인명사전(IBC)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받는 교수로도 선정됐던 인물로 1993년부터 경주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현재 대한비뇨기과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구호단체 제휴 통해 모금·투자담당해요"

불교 벤처캐피탈 자비은행 대표 묘장 스님



'뒷바라지'라는 말은 법회 시 뒤에서 목탁을 치며 돕는 '바라승'에서 나왔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꿈과 희망을 가진 구호단체를 '뒷바라지'하는 불교계 벤처캐피탈 '자비은행(대표 묘장 · 사진)'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2월 21일 'MBC경제야 놀자' 우승택 삼성증권 지점장의 경제강연으로 첫 발을 디딘 자비은행은 영세한 구호단체가 보다 구호영역에 치중할 수 있도록, 사업제휴를 통해 모금 및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다.

묘장 스님은 출범 기념강연회에 앞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주위를 돕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일반인들에게 기부를 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난에는 전문가의 혜안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는 국제개발 · 구호사업이라면 언제든 자비은행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며 "영세한 구호단체라도, 금융전문가의 투자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자비은행이 실적을 보이면 취지에 공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비은행이 주목받고 있는 까닭은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이 영세해 모금과 홍보영역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되고 새로운 나눔의 실천'을 모토로 자비은행은 국제개발 · 구호전문 인터넷방송 'Promise TV'를 운영하고, 금융전문가의 투자상담을 통한 '나눔투자상품'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에는 '모금전문가 양성과정'과 '국제구호 글로벌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각종 행사 수익금은 전액 국제구호단체에 투자된다.

묘장 스님은 "'Promise TV'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모금전문가 양성과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이 그 취지로 모금가에 대한 정의부터 역사까지 듣고, 활동가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들으면서 재미와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연화사 주지로 부임해, 회기동 연화문화센터를 운영하고, 2007년 경희의료원 자비원을 개설, 경불련 및 구호단체 프라미스에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자비행을 펼치는 묘장 스님은 "'인재전쟁'인 요즘도 국제구호 분야는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해외로 오지에서 헌신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이 꾸는 꿈을 '자비은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3210-1119

노덕현 기자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

충북교육청 이기용 교육감



"불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해 도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 모두의 가슴에 더 높은 꿈과 희망이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학력평가에서 초 · 중학생 학력이 최하위를 기록한 충북교육청 이기용 교육감(사진)이 2월 16일 인터뷰에서 인성교육 강화와 더불어 학력증진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 교육감은 기존 충청교육의 방향에 대해 "바른 인성을 지닌 학생을 키우기 위해 '기본이 선 일류충북학생' 만들기 운동을 전개 하고, '친구사랑' 운동으로 왕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속적인 인성교육 방안으로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1:1 멘토링 학습 △2010년 인성교육 대안학교 전국 최초설립 등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육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폭력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도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학력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지도 실명제를 도입, 학교 평가 확대, 고입전형 선발고사 실시 등의 학력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은 학교나 정부 측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 불자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혜철 충청지사장

동대 석 · 박사 학위 수여

광도 · 정운 · 희철 스님, 노채숙씨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2월 20일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석 · 박사 학위자들을 배출했다. 불교학 관련 전공자로는 광도 스님(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이 '천태지의의 중관사상 연구'로, 정운 스님(선학과 선사상 전공)이 '마조선 연구'로, 희철 스님(선학과 선종사 전공)이 '백파와 초의의 선리논쟁 연구'로, 노채숙(불교학과 불교교학전공)씨가 '지의와 길장의 이제설 비교연구'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제은 스님(선학과 선사상전공)이 '규봉종밀의 돈점관 연구'를, 김은영(불교학과 응용불교학전공)씨가 '원효 <열반종요>의 화회사상 연구'를 제출하는 등 불교사회복지학과와 불교예술문화학과 전공자 등 30여 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운 스님, 희철 스님, 노채숙씨, 김양순씨, 탁현규씨.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정배)도 같은 날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김양순씨와 탁현규씨가 각각 '경흥의 <무량수경연의술문찬> 연구'와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도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동섭 기자

옹산 스님 국제꽃박람회 후원금 전달



수덕사 옹산 주지스님은 2월 18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옹산 스님은 "꽃박람회로 태안 주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2009 정기총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2월 14~15일 대전 유진호텔에서 2009년 정기총회 및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또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활동 공유와 특성화 사업 활성화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 제17회 법사 품수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1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7회 법사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는 1년 법사과정과 2년 대법사과정 수료생 90여 명을 비롯해 2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옥천 대성사 삼사순례 기도 봉행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2월 14일 태고종 애종심 고취를 위한 삼사순례 기도를 봉행했다. 총림 선암사, 마이산 탑사, 남원 관음사 순례에는 대성사 신도 70명이 동참해 태고종정 혜초 스님께 법문을 들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천태종 금광사 덕궁 스님 주지 취임



천태종 광주 금광사는 2월 18일 금광사 대웅보전에서 주지 덕궁 스님(전 천안 만수사 주지) 취임식을 봉행했다.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용문 스님(홍천 강룡사 주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9학년도 구룡불교대학
전통의식교육 · 신.편입생 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입학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팔공산 구룡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일까지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 (현 구룡불교대학 강주/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범음범패과 강주)

※ 강 사 : 혜성스님 (현 구룡불교대학 강사)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9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시현회 -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에 뜻있는 분 동참바람 】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월요일 : 2학년 / 화요일 : 1학년)**

강의내용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 기초 : 목탁치는법.천수경. 도량석.종성 · 예불 : 향수해례.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각단불공의식 · 시식 : 관음시식.상용영반. 화엄시식.구병시식.외 · 기타 : 장의편.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 할향.등게.합장게. 고향게.개게.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 도량게.참회게. 천수바라. 요잡바라 등 (바라.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 (재채비.안채비.사물다루는과정)** ·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관음시식. 봉송회향.공덕게 ※다게작법.요잡바라.관욕바라. 화의재바라.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욕건이. 운심게.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바라지.목탁.태징.북.요령) 2.작법고급과정 (사방유신.귀경이.법고무.옴남) 3.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생전생칠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팔공산 구룡불교대학 학장 원봉

- 자비명상 -

자비명상은 모든 수행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비명상은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시작됩니다.
자비명상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십시오.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초급]
- 재가 과정 : 4, 5月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20명) 서울 노인복지센터(3층)
- 스님 과정 : 9, 10月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20명) 법련사(2층)
- 공개강좌 : 4月 7日 오후 7시, 서울노인복지센터 (3박4일 연수, 1년간 숙련기간)

원시불교 경전 읽기 모임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 4, 5, 6, 7月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법룡사)
- 공개강좌 : 4월1일 오후 7시, 수서동 법룡사 02-3411-8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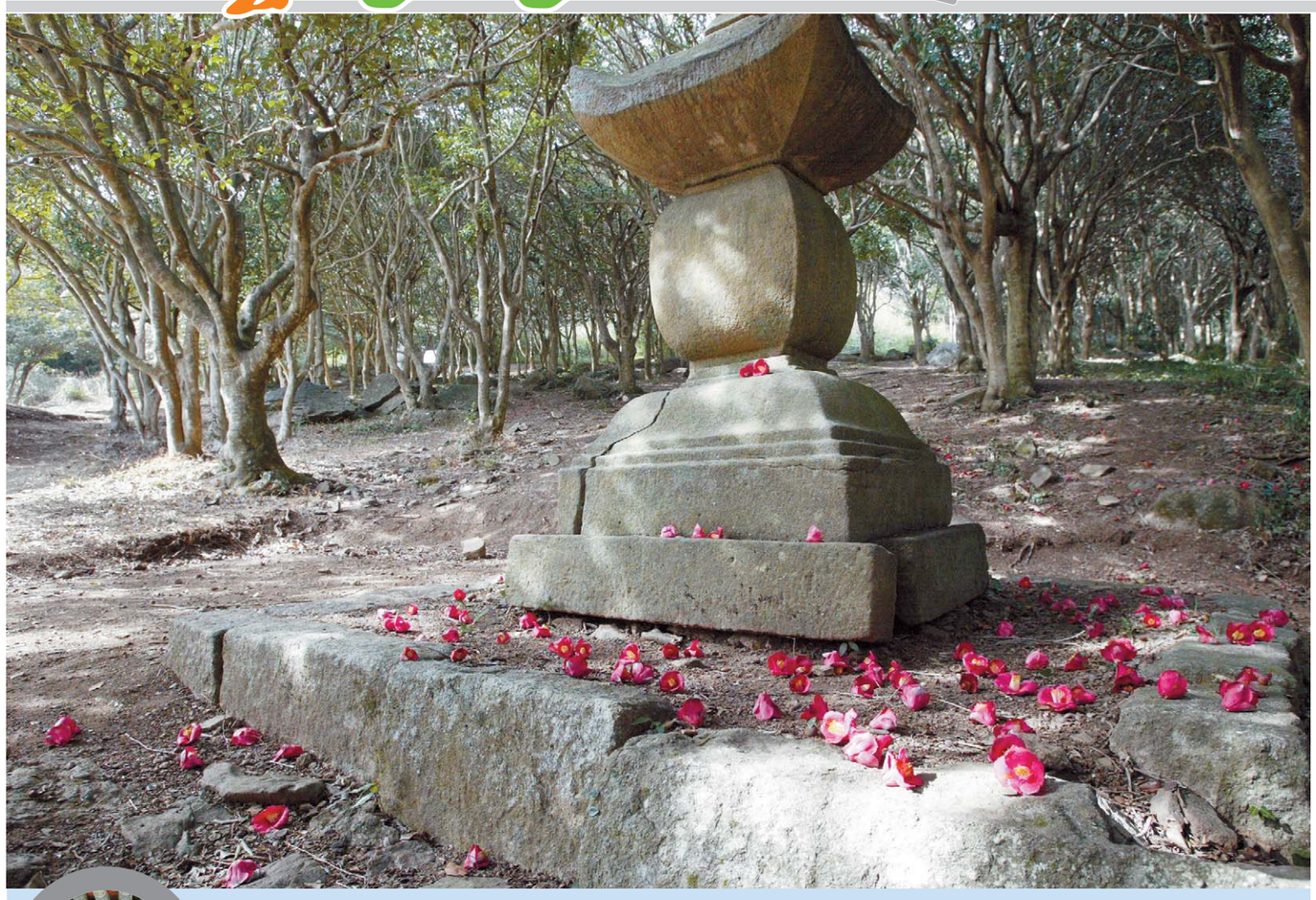
일반인을 위한 자비명상과정 (3,4,5月) 팀티칭, 동국대 사회교육원
- 주간반 화요일 오후 2~4시 (30명)
- 야간반 목요일 오후 7~9시 (30명)
- 공개강좌 : 3月 10日 오후 2시, 3月 12日오후 7시 사회교육원 강당 (02-2260-3730)

학인스님을 위한 자비명상 · 불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 부모 특강 및 연수
불교 교양대학 · 복지관 특강, "응어리·화" 풀기 명상, 기업연수, Temple Stay



행복나눔도량 **천안 만일사** (마가 두손 모음)
문 의 : 나누는 기쁨공동체 cafe.daum.net/jurira 041-622-1190

수행공동체 (명상센터)건립 불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산의 외로운 넋인듯

오늘도 붉은 동백이

붉은 오솔길 백련사.

마당 끝에는 남도의 봄 바다가 다가오고,
도량엔 아직도 듬성듬성 겨울바람이 떠돈다.
뜬금없이 마당에 선 부도의 그림자가 응진전 돌계단을 오르고,
대웅보전의 빛바랜 단청은 편액에 걸린 명필 원교(圓嶠 · 이광사 李匡師)의
글씨를 읽고 있다.

요세(了世) 스님이 백련결사(白蓮結社)의 원력을 펼친 도량 백련사.
만덕산 능선 너머엔 다산(茶山 · 정약용 丁若鏞)의 유배처 다산초당(茶山草堂)이 있고,
다산은 유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혜장(惠藏) 스님을 만나러 백련사를 다녔다고 한다.

겨우내 얼었던 돌담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동백숲에서는 산새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그 옛날 다산이 유배의 쓸쓸함을 밟고 걸었던 오솔길에는
오늘도 붉은 동백이 밟힌다.
봄이 오는 길목. 백련사 오솔길에서 만난 부도에는 문자 하나 볼 수 없고,
떨어진 동백꽃잎엔 촬나의 미련도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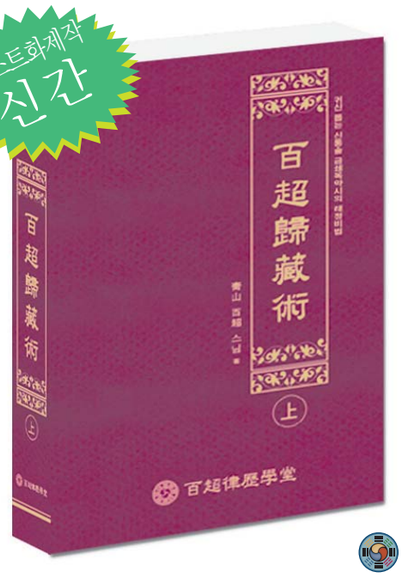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백련사는…

· 통일신라 생왕(문성왕 재위 839~856) 때 무염(無染,801~888)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 고려시대 월출산 약사난야에 주석하던 원묘국사 요세 스님을 최표 최홍 형제와 이인천 등이 만덕산으로 모시고 1211년(희종7)에 백련사를 중창하고 1216년(고종3)에 낙성법회를 열었다.
·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 왜구의 노략질로 폐사되다시피 했지만 그 명맥을 유지했으며 1760년(영조36)에는 큰 불이 일어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절의 여러 스님들이 중건을 서원하고 1762년 대법당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베스트화제작 신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3667-4446 /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진) :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길 위에서 만난 거룩한 인연”

부산개인택시보현회 창립 10주년

달리는 법당 부산개인택시보현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부산개인택시보현회(회장 우정수, 이하 보현회)는 2월 12일 오후 2시 동래구 칠산동 법륜사(회주 선래) 극락전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이웃 사랑 나눔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동래구청 주민생활 지원과의 후원으로, 불우이웃에 백미 70포대, 무량수요양원 30포대, 금정노인요양원 30포대 등 총 6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하며 10주년의 의의를 되새겼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보현회는 1999년 2월 창립 이래 성지순례 20회, 정기법회 124회, 이웃돕기 후원금 약 1945만원을 전달, 현재 1만 4000여 명의 개인택시불자들이 활동 중이다.

법회는 발원문, 연혁보고, 이웃 사랑 나눔 쌀 전달, 우수회원 표창, 회장 취임사,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정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법회 장소와 공양을 베풀어 주신 선래 스님과 법우들, 주지 각우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고사리 손부터 어르신들까지 길 위에서 만난 거룩한 인연들에게 고마운 마음 잊지 말자”고 말했다.

법륜사 회주 선래 스님은 법어에서 “달리는 법당에서 거리의 포교사로 활동하는 운전불자님들은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라며 “손님 한사람 한사람마다 고결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써, 의연하게 홀로 깨달음의 길을 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장학금 900만원 전달

성의신협 불교지점

성의신협 불교지점(이사장 최송홍)은 2월 21일 오후 1시 30분 초읍 어린이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제1부 기념식은 연혁보고, 장학금 전달,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제2부 본회의에는 의사록 기명날인 선임 및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의사 일정확인, 의안 심의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역 내 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중 · 고등부 24명과 이사장 특별 장학생 9명 등 총 33명을 선발해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시상했다. 본 장학기금은 성의신협 600만원 및 최송홍 이사장의 후원금 300만원으로 마련됐다.

최송홍 이사장은 “2008년 (구)통불원신협과 성의신협이 성공적으로 합병한 후부터 함께 상생하고 있다”며 “다시 태어난 성의신협 불교신협은 전국 1000여 조합 중 상위 10위 안에 진입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051)633-9120

박지원 기자

부산파라미타 2009 진로스키캠프 개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2월 3~6일 3박4일간 2009진로스키캠프를 개최했다. 부산시내 중 · 고등학생 180여 명이 참가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명문대학을 견학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등을 관람하는 등 진로 결정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 스키강좌를 신설해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스키 캠프를 열어 심신 수련의 좋은 기회가 됐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자들 공부 열기 활활~

범어사 통도사 삼광사 등 불교대학 일제히 개강…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눈길

불교계 각 대학 및 사찰에서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다양한 교리 · 수행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속속 개강한다.

금정산 범어사불교대학(학장 정여, 051-866-7277)은 재가신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문교육과정은 매주 월 · 화, 주간 · 야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전반은 1년 과정(매주 금요일 주간 · 야간), 6개월 과정(매주 목 · 금)을 개설한다.

양산 통도사 불교대학(주지 정우, 055-384-8380)은 입문반은 매주 수요일 ‘불교 입문 및 문화’, 본과반(매주 화)은 ‘불교학 개론 및 불교사’, 경전반(매주 목)은 <대승기신론>, 선어록반(매주 금)은 <선가귀감>을 강의한다.

삼광사 금강불교대학(학장 화산, 051-808-0713)은 불교학과 1 · 2학년(매주 월 · 화), 3학년 교법사과(매주 목)를 개설한다. 2 · 3학년의 경우, 본교 초급 및 중급 과정 수료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내원불교대학(학장 정련, 051-242-0691)은 제1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1년 과정으로 전문교육과정(매주 수), <금강경> 연구반(매주 목), <법화경> 연구반(매주 화)을 각각 개설한다.

해운대 대광명사 광명불교교양대학(주지 목종, 051-742-7610)은 교리반(매주 화 · 수요일 주 · 야간)과 경전반(매주 수요일 · 야간, 매주 목요일 · 주간) 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용두산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주지 하림, 051-253-8686)는 매일 수행과 문화생활을 하나로 잇는 다양한 참선수행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주지 하림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참선 수행’,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희상 스님의 ‘선화그리기’, 성각 스님의 ‘다도-선차(禪茶)’, 소프라노 박수진의 ‘찬불음악’, 박혜숙의 ‘요가’ 등의 불교문화 강좌가 마련된다.

거제동 연화사(주지 정법, 051-504-5522)는 불교 기초교리대학과 경전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초교리대학은 불교 상식과 교리, 경전대학은 <천수경> <금강경>을 강의한다. 특히, 현화사 회주 겸 통도사 백련암 주지 원산 스님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망미동 영주암불교대학(학장 정관, 051-754-2210)은 전문과정(불교 교리, 한국불교사 외) 및 경전과정(<금강경> <법화경>)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단, 경전과정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부산불교인재개발원 로터스불교대학의 수업 모습.

울산 월봉사(주지 오심, 052-251-4602) 교양대학은 제9기 수강생 및 경전반을 모집한다. 교양대학은 매주 월 · 목요일 총 28강을 강의하고, 경전반은 매주 화요일 신광사 주지 이지 스님이 <원각경>을 강의한다.

두구동 홍법사(주지 심산, 051-508-0345)는 제7기 숲속의 신행학교를 개강한다. 내용은 초심자를 위한 불자예절과 의식으로 초발심 불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3월 17일 입학식을 갖는다.

(사)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051-852-0852)은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불자를 지도할 제1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어린이 지도사와 전문지도자 과정으로 매주 화 ·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다. 졸업 후 어린이 지도사, 동화 구연 2급, 레크리에이션 2급, 아트풍선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대원불교문화대학 부산캠퍼스(학장 송석구, 051-583-7811)는 대학(2년 과정), 대학원(2년 과정), 법사(3년 과정) 신 · 편입생을 모집한다. 졸업 후에는 법사자격증, 불교상담심리사 1 · 2급 자격증, 명상전문지도사 1 · 2급 자격증, 국제포교사 자격증의 특전이 주어진다.

부산불교교육원(학장 원범, 051-466-4080)은 제41기 입문자 교육 및 제3기 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문자 교육은 주 1회, 6개월 과정으로 불교 신행과 사찰 예절, 불교문화, 기초교리, 수행법, 부처님의 생애 등이다. 또, 포교사 과정인 불교학과는 주 2회, 1년 과정으로 개설된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원장 이욱태, 051-853-8539) 로터스불교대학은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3월 9일부터 1년간 매주 월 · 화 오후 7시 열린다. 기초과정 수료자 및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불자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부부 또는 가족 중 2인 입학시 1명 수업료를 50% 감면해준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처님오신날관 웰빙관 등 7가지 테마 전문관 구경하세요

부산불교연합회 3월 26~30일 불교산업박람회 개최

불교수도 부산에서 ‘부처님오신날’과 ‘부산시민연등축제’를 앞두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불교 산업 육성을 위한 불교산업박람회가 열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이사 부산불교련)는 3월 26~30일 4일간 부산 벡스코 1층 제2전시관에서 ‘2553 제1회 불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관은 ‘홍보 · 안내관’ ‘부처님오신날관’ ‘불교용품 · 선물관’ ‘불사관’ ‘정보관’ ‘체험관’ ‘웰빙관’ 등 7가지 테마에 따른 전문관으로 구성해 총 29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출품 품목은 스님과 불자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불교기업의 사무용품 및 소모품 일체, 사찰 건립 및 장엄물, 법회 · 기도 · 재 용품, 다도 · 취미 · 불교공예, 사찰 · 종단 홍보 및 채용 · 취업안내, 해외 불교 대사 · 영사관 · 기업 · 사찰 · 단체 등이 해당된다.

참가 신청은 3월 15일까지 부산불교련 또는 불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로 하면 된다. 또한, 2008년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에 참가한 업체의 연속 참가 시, 부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2009년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신규전시회 개발분야’에 유일하게 선정돼 지식경제부로부터 3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불교상품과 불자기업으로 구성되는 불교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및 콘텐츠가 부산으로부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컨벤션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불교련은 “2008년 제1회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올해부터 봄에 불교산업박람회, 가을에는 불교문화박람회를 병행해, 부산 불교계의 변화 · 발전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2008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전시장에서 스님들이 목탁을 둘러보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08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세계적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불교산업계에 부산불교련의 새해 첫 불교산업박람회가 경기회복과 범불교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051)740-7900

박지원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 식 불량 사 소장 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장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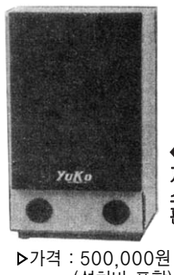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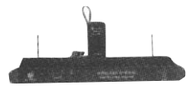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전북지역 불교대학 졸업

화엄불교대학 등

화엄 · 전북 · 이리 · 무주 · 남원불교대학 등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개최했다.

김제 금산사에서 운영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2월 2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불교과 20기, 학림원 18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원행 스님은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불법을 배워온 학인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졸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사회에서도 모범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22일 전주시 효자동 완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및 법사과 등 학인 100명이 참여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남원불교대학, 무주불교대학도 각각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전북도내 불교대학의 졸업식 봉행에 맞춰 각 불교대학은 불기 2552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불교대학 학인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활동가 자비쌀 나누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월 13일 산수동 광주사무소에서 '제2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활동가 27명에게 '자비의 쌀'을 지원했다.

이날 지원된 자비의 쌀은 광주전남지역 30여 사찰 및 개인으로부터 보시 받은 쌀로 1120㎏ 규모, 상근 활동가에게 약 40㎏씩 전달됐다.

행사에는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정화동 집행위원장(6 · 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서정훈사무처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대종 홍보차장(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사회를 건강하게 이끄는 NGO단체 실무자들에게 쌀을 나눠 서로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했다"며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한 쌀을 정토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화동 집행위원장은 "자비의 쌀 나누기는 불교와 환경에 가장 적합한 행사인 것 같다"며 "단순히 사회활동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정보교류의 시간을 갖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비의 쌀을 받은 활동가는 각 부분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체 실무자로, 김주비 기획팀장(놀이패 신명) 박경희 센터장(웃음만땅 지역아동센터) 이경나 활동간사(목포 생명의숲) 김병주 사무국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이대종 홍보차장(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7명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복지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2월 19일 고창군청 앞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는 'NO! 아동학대!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라는 부제로 진행돼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권리를 설명 △아동학대예방을 다짐하는 아동지킴이 서명운동 △아동학대예방 안내서 및 홍보물품 전달 △아동학대예방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무공 스님은 "아동학대 90% 이상이 가정, 이웃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해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 ·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면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유물 익산 살리네

익산시 "미륵사지 출토유물 관광상품화할 계획"

백제 금동대향로와 비견되며 백제 금속공예의 백미로 평가받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와 관련한 관광 · 상품화가 진행돼 익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을 관광 · 상품화해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관광 · 상품화 등 계획에 따르면 전국 주요기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익산미륵사지관광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2~10월까지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또 3월 중 익산 스토리텔링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인터넷과 시 홈페이지, 전국 학교 등지에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전국 여행 작가 50명을 초청해 익산 관광설명회와 관광객 유치전략 토론을 개최하고, 6월에는 국제 사이언스 관광도시인 일본 츠쿠바시를 방문해 관광설명회를 열고 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산하 아 · 태지역 68개 도시(한국 25개 도시)와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공동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전북권 및 금강권 관광공동사업을 통해 수학여행단 및 여행관련업체 팸투어 유치홍보, 국제관광전 참가, 관광설명회, 백제문화체험벨트 조성 등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사리장엄 모형 제작해 방향제와 귀걸이, 장신구, 열쇠 및 핸드폰고리 등 관광기념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국내 · 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문화관광 매력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라며 "특히 미륵사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출토를 계기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난주 전북도와 추진주체 등에 대한 협의했다. 익산시 담당자는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승격기준 등을 맞추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월 '익산역사문화지구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을 올해 8대 과제로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기성 작가 호남서 전통등 작업

호남불교문화원 제작·보급 나서


전통장엄등을 제작 중인 이기성 작가.

불교계의 가장 큰 축제인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는 5만여 사부대중이 어우러진 연등축제다. 연등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사찰과 단체별로 나오는 전통장엄물. 로보트 태권V등, 사명대사등 등 불교와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장엄등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서울에서만 제작되던 전통장엄등이 호남에서도 제작하게돼 눈길을 끈다.

이기성 작가(이심조형)와 이준엽 실장(호남불교문화원)은 호남지역에서 전통등을 제작 · 보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호남지역 불교계에서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활동 중인 이기성 작가의 전통등작업 참여로 호남지역 연등축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준엽 실장은 "수년 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조각가 이기성씨를 만났다. 그는 오래전부터 전통장엄물을 제작해 온 불자였다"며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연등축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고자 전통장엄등 제작·보급에 나섰다"고 말했다.

광주 한마음선원(선원장 혜월)의 30년 신도인 이기성 작가는 그동안 선원의 장엄물 제작을 도맡아 왔다.

이기성 작가는 "매년 용, 닭, 개 등 동물과 산, 구름 등 자연을 장엄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인연돼 광주비엔날레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비엔날레 참여 작가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사를 이용한 장엄물'로 독창적인 예술 영역을 지녔다. 그는 "철사는 가볍고 튼튼해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장점이 있어 대형 장엄물 제작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최근 봉축기획단을 구성해 빛고을연등축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장 스님(증심사 주지)을 단장으로 위원에는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 무진 스님(황룡사 주지) 등을 각각 위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원각사 청년회 범정택 회장

"대화 중심 법회로 청년불자 늘려요"

광주청년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가받던 원각사 청년회가 2월 7일 새 회장을 맞았다. 작년 대한불교청년지도자대회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어려운 책무를 맡은 이는 범정택 회장(33 · 법명 벽송 · 사진)이다.



범 회장은 대불련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청년회 활동을 꾸준히 해 온 광주불교의 큰 일꾼이다. 원각사 청년회, 아니 광주지역 청년불교를 진두지휘할 범정택 회장은 "잘 웃는 얼굴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미소로 세상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는 최근 재창립해 다시 법회를 봉행하기 시작한 문빈정사 청년회를 비롯해 30여 년 광주지역 청년운동의 중심인 원각사 청년회 등 두 곳의 청년회가 운영 중이다.

원각사 청년회는 이번 33 · 34대 회장 이 · 취임식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준비 중이다.

범정택 회장은 "연수국 등을 재정비해 조직관리에 힘쓰겠다"며 "법회 내용 등을 보다 알차게 꾸며 청년회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 회장은 변화를 위한 지역불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설문지 조사, 회원간 이야기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원각사 청년회는 매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연수국을 산하조직으로 두고 있다. 3개의 소모임(풍물단 빛을림, 연꽃나눔 봉사단, 차(茶)모임)도 원각사 청년회의 자랑이다. 매주 법회에는 30여 청년불자가 동참하고 있다.

"법회를 마치고 회원 간 이야기를 확대해 대화중심의 법회와 회원을 배가하는 포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범 회장은 자신의 원을 이루고자 매일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범정택 회장은 광주지역 불교계에서 '비밀요원'으로 통한다. 항상 끝까지 남아 일을 꼼꼼히 마무리해주는 뒤처리도 일품이지만 만능해결사기 때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불교환경연대,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 광주지역 불교단체에서 사건이 생기면 다른 도움을 청하다 마지막에 범 회장을 찾는다. 마치 영화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을 부르듯이.

"편안함이 좋아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어려운 법문이나 힘든 수행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마음의 안식을 주잖아요? 하지만 대불련 후배들에게는 수행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의 중요부분까지도 부처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범 회장은 불교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꿈도 있다. 아직 미혼인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향후 뚜렷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불교가 이들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종교편향으로 불교계가 혼란스러웠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많은 준비와 인재가 필요합니다. 청년불자 배가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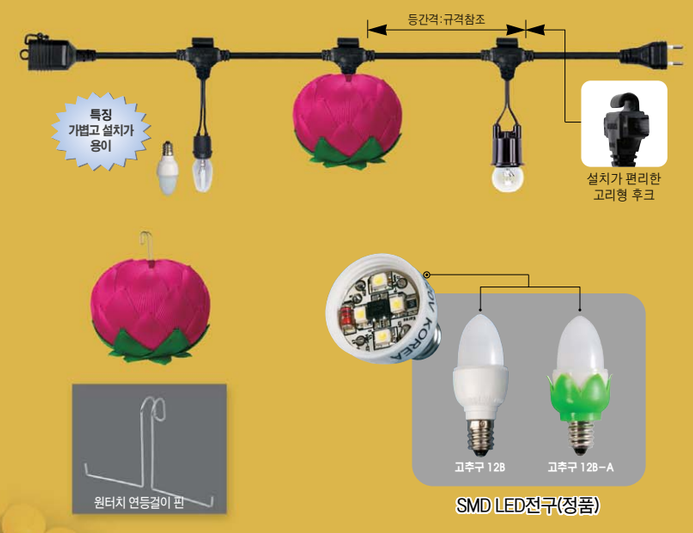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집중된 마음자리서 열심히 공부하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금강대 신입생 전원에 장학증서 전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2월 19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009학년도 금강대 신입생 전원(10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18~19일 산사수련회를 열었다. 종단 차원에서 금강대 신입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은 2003년 첫 신입생을 받은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장학증서는 종정 도용 스님이 직접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금강대 신입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금강대 관계자와 신입생 8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금강대 장학증서 수여 법회'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배우는 과정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정신 집중된 마음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안주하지 말고 자기발전에 더욱 힘쓰며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동명 · 김주영 · 위지훈 · 장진원 학생이 성적우수자로, 강완형 · 강은지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천태종이 신입생 전원에게 약속한 1년 등록금은 총 3억5000여 만원이며, 장학금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설립된 원각불교장학재단(이사장 도용)이 지급한다.

한편, 법회에 앞서 금강대 신입생 89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구인사 체험 프로그램 천태종과 금강대의 '아름다운 동행'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불교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천태종이 금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강화하고, 불교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천태종 교육과장 진성 스님은 "종교편향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불교계에 인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는 인재로 성장할 금강대 학생들이 종단의 고마움을 느끼고 신행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18일 구인사에 도착한 후 천태종 및 구인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절 교육도 받았다. 또 설법보전, 역대조사전, 대조사전, 적멸궁 등을 둘러봤다. 특히 저녁에는 천태종의 주요 수행법인 관음정진 수행을 체험하고, 19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박재현 학생(교양학부)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예불에 참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금강대를 모르는 이도 많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장학금 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만큼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 학생(일어통역 및 통상통역학)도 "개신교라서 처음에는 수행이나 절 하는 것 등에 많은 반감을 느끼고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1박 2일 동안 사찰 체험을 하면서 반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 · 2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엄격히 선발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재불사를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전교생에게 2인 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졸업생들이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고, 행정고시합격 등으로 정부 각 기관에 진출해 불교 인재 양성의 새로운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태고종 새 틀의 주인 되길"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및 전법사 교육원 수료법회



2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된 제1기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기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및 전법사교육원 수료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보경 스님, 중앙초심원장 정봉 스님,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등 8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에서는 강원에서 지난 2년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강원스님 60명이 졸업했다. 또한 졸업생 가운데 수행교화 활동에 모범이 된 혜화 · 대선 · 일봉 · 정인 · 혜충 · 자오 · 혜득 스님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운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과 공부를 마쳐 총무원장으로서 감사함을 느낀다"며 "오늘 졸업하신 분들이 앞으로 태고종이 새롭게 만들어갈 틀의 주인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보경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전답에 오곡을 심어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졸업 후 총무원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선한 마음으로 본분의 일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행된 제1기 전법사교육원 수료식에서는 35명의 전법사들에게 수료증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태고종은 중앙승가전문강원을 초심사집, 사교, 대교의 5년과정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명칭을 법륜승가대학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 총무과장 철오 스님은 "법륜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전해짐을 상징한다"며 "앞으로 법륜승가대학은 보다 차별화된 승려교육으로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홍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문화창달에 정진하길"

옥천범음대학 졸업·수료식 봉행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이 2월 13일 봉원사에서 제13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옥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 · 영산재보존회장),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79명(졸업 26명, 수료 53명)이 졸업 · 수료증서를 받았다.

옥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은 다른 의미에서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영산재 이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불교문화창달을 위해 새롭게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축사를 통해 "오늘 졸업 · 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인연의 소중함으로 나날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옥천범음대학은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의 향상 · 계승을 위해 1994년 9월 설립돼 어산, 범패 학승을 다수 배출하는 등 불교의식 교육기관의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표창장=진관 · 명규 스님(이상 영산과) △공로상 지허 · 대석 · 기연 스님(이상 영산과) 자운 스님(각배과), 선주 스님(작법과), 진원 스님(연구과) △공로상=지허 · 대석 · 기연 스님(이상 영산과), 자운 스님(각배과), 선주 스님(작법과), 진원 스님(연구과)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현대불교후원 | 계좌번호 038-25-0008-365
국민은행,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다문화가정 위한 근본 사찰로 거듭날 것"

명락사, 신임주지 무원 스님 '대종 속 사찰' 다짐

천태종 서울 명락사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근본 사찰로 거듭난다.

명락사 신임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2월 15일 주지 취임법회에서 "애국 · 생활 · 대중불교 실현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대중 속의 명락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지원의 원력을 다졌다.


무원 스님(사진 왼쪽)이 명락사 前 주지 화산 스님으로부터 직인을 전달받고 있다.

무원 스님은 황룡사 주지소임 시절 새터민 템플스테이와 다문화가정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다문화센터의 자문위원장으로서 '다문화 자녀와 대학생 1:1 멘토링'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명락사가 희망적인 불사의 출발점에 서는 기쁜날"이라며 "명락사에 마련될 생활불교의 전당은 생활 · 실천불교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축사를 통해 "명락사가 모든 국가의 불자들이 행복하게 방문할 수 있는 다문화 본원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후 주요 사찰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13개 사찰 불사를 주도했다. 또한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원만 회향하고, 남북 불교도 최초로 낙성대법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진성 기자

진각종 공작명왕 속초불축제에 '초대'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의 장엄물 청 · 황 공작명왕(孔雀明王)이 속초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선보였다.

진각종은 강원도 속초시불축제위원회가 2월 6~14일 개최한 '2009속초불축제'에서 장엄물 공작명왕을 전시했다. <불모대공작명왕경>은 공작명왕이 '악귀를 없애며 재앙을 물리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설명한다.

장엄물 공작명왕은 이전에도 연등축제와 각종 지역축제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진각종의 대표 장엄물로 날개를 움직이고 입에서는 화염을 뿜으며, 꼬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등의 정교함으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속초불축제는 희망과 정열의 상징인 불과 함께 기축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라는 의미로 청초호와 청초호유원지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로 이번 행사기간에는 체험프로그램, 전시, 공연, 경연대회, 봄맞이 행사, 거리 페스티벌 등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SHC 삼환양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양초전문 기업 삼환양초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최고의 상품만을 공급하여 드립니다.
• 신상품 : 실내용양초 - 밀압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문의]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도 '사리'

[원문]
시적쌍림문기추(示跡雙林問幾秋)
문수유보대시구(文殊留寶待時求)
전신사리금유재(全身舍利今猶在)
보사군생예불휴(普使群生禮不休)
–통도사 금강계단 적멸보궁

[번역]
묻노니,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지 그 몇 해인가
문수보살 보배를 모시고 때와 사람을 기다렸네.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들 예배하여 쉬지 않네.

[선해(禪解)]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신 전각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다섯 군데가 있다. 원래, 적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인도 마가다국 가야성의 남쪽 보리수 아래 금강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적멸도량회가 최초인데, 언덕 모양의 계단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 부처님이 항상 그곳에서 적멸(寂滅)의 법(法)을 설했던 곳이다.

불가에서는 진신사리를 부처님과 동일체(同一體)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 이상으로 숭배를 하고 있으며,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는 따로 불상을 조성하지 않는다.

불자들은 사리에 대해 수행자가 열반 후 남기는 구슬모양의 유골로만 대개 알고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부처님이 남기신 경전도 일종의 진신사리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골(遺骨)의 구슬이 유(有)의 사리라고 한다면, 경전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언(言)의 사리인 것이다. 때문에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항상 몸 가까이 두고 읽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적멸보궁이 있는데 불교 신도들에게 기도도량과 순례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장 신성한 성지(聖地)로 각인돼 있다. 불자라면 반드시 한번은 가 보아야 할 정신적인 기도도량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 중 하나인 통도사 금강계단에 있는 적멸보궁의 진신사리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이곳의 진신사리는 신라의 자장(慈藏) 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와 정골(頂骨)로 알려져 있다. 이를 나중 각각 다섯 곳으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이곳이 바로 5대 적멸보궁이다. 양산 통도사(通度寺),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설악산 봉정암(鳳頂庵), 태백산 정암사(淨巖寺), 사자산 법흥사(法興寺)이다.

통도사 금강계단에 걸려 있는 주련의 편액은 부처님의 진리사리에 대한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부처님이 쌍림에서 열반하신 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어리석은 중생들의 곁에서 머물러 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묻노니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지 그 몇 해인가 문수보살 보배를 모시고 때와 사람을 기다렸네.'

문수보살이 누구인가. 그는 바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대승보살 가운데 한사람이다. 문수는 묘(妙)의 뜻이고 사리는 머리(頭), 덕(德), 길상(吉祥)의 뜻이므로 지혜가 뛰어난 공덕을 가리키는데 석가모니불의 보처로서 지혜를 관하고 있는 보살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진신사리로 남아 2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문수보살을 데리고 '사람과 때'를 기다려 온 것이라 알 수 있다.

선현(先賢)이란 말이 있다. 이는 앞서간 지혜가 뛰어나고 고귀한 현자(賢者)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세를 살면서 아직도 뛰어난 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고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부처님은 문수보살을 모시고 그 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들 예배하여 쉬지 않네.'

그렇다. 부처님은 이미 열반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진신사리로 남아 우리를 돌보아 주고 있다. 이런 부처님께 우리 중생들이 어찌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있을 때는 사실, 가람도 필요 없었으며 경전도 필요치 않았다.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곧 가람이며 부처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곧 경전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곧 교(敎)였으며 마음이 선(禪)이 됐던 까닭이다. 그 후 교는 경전을 통해 법보(法寶)가 됐으며 선은 스님을 통해 오늘날의 승보(僧寶)가 됐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열반을 하신 이후에 사리로 남아 불보(佛寶)가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인 불법승 삼보(三寶)가 아니겠는가!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오직 법만을 따르되 나를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이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유는 바로 맹목적인 기복 신앙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 보면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유언에 대해 역행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과거 부처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마음이란 실상의 존재를 부인했을 것이다. 참마음'이 무엇이며, '참 존재'가 무엇이며, '참 나'가 무엇인지를 정녕 우리는 모르고 살아 왔을 것이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부처님을 두고 우리는 절대적인 성인(聖人)으로 모시고 있는 까닭이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짜 사리가 묻힌 곳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의 진신사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수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곳은 어느 노스님이 진신사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첩첩산중의 토굴 속으로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통도사 금강계단은 불가에서나 국가에서나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 알려져 있는데 국보 290호이다. 원래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한 과정을 거친 다음 계율을 내려주는 수계의식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부처님의 진리사리가 놓여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삶이란 타인 존경해서 얻는 겸손으로 존재가치 지녀
부처님 진신사리로 남아 지금도 '사람과 때' 기다려

그런고로 주련에 새겨진 그 깊고 깊은 선구(禪句)를 어찌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 진신사리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많은 군생들 예배하여 쉬지 않네.'

삶이란 남을 존경함으로써 얻는 겸손에서부터 그 존재가치를 지닌다. 부처님은 이를 현세의 사람들에게도 아직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 마음을 낮추어 보라! 그래야만 진정 자신의 '사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

법이 곧 마음(法卽是心)

[원문]
自性眞實 非因非果 法卽是心義 自心是菩提 自心是涅槃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無有是處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성은 진실하여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니라. 법(法;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곧 마음이라는 뜻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부처며 자기의 마음이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치는 열반이니라. 그러므로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해설]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하나로서의 마음과 내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내 마음은 나의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달마 스님이 제시한 마음은 우주와 하나인 본래 실상자리로서의 마음자리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마 수선도(修禪圖)', 금추 이남호 作(김창배 소장).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반야(般若; 지혜)를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자리는 바로 반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닦아 가는 것이 정도이고, 최상승 수행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의 본성(本性)은 진실하여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인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습니다. 그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항상 그 자리입니다. 마음이 모양이 있으면 생사가 있겠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습니다. 마음자리에서는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법(法)이 곧 마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견해가 법이란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마음이요, 부처님이요,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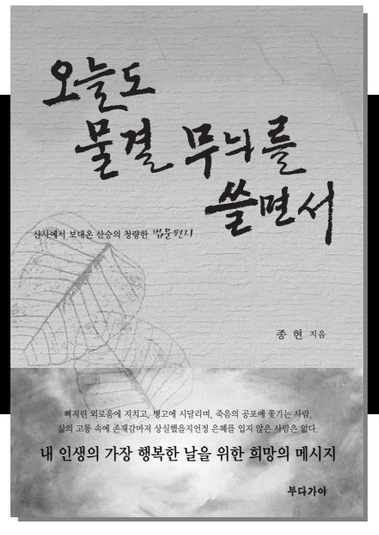
달마 스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의 마음이 뚜렷이 밝고 고요히 비치는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무시(無始) 이래 익혀온 습(習)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집 가고 장가를 가야 한다는 것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이라는 겁니다. 습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이래 익혀온 습 때문에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도리를 알 수는 있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익혀온 습을 녹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과 업(業)을 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정진을 통해서 업을 녹이면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무량수(無量壽; 무한한 수명)며 무량광(無量光; 무한한 빛)입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믿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정진하십시오. 일 분 정진하면 일 분 행한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한 시간 정진하면 한 시간 행한 만큼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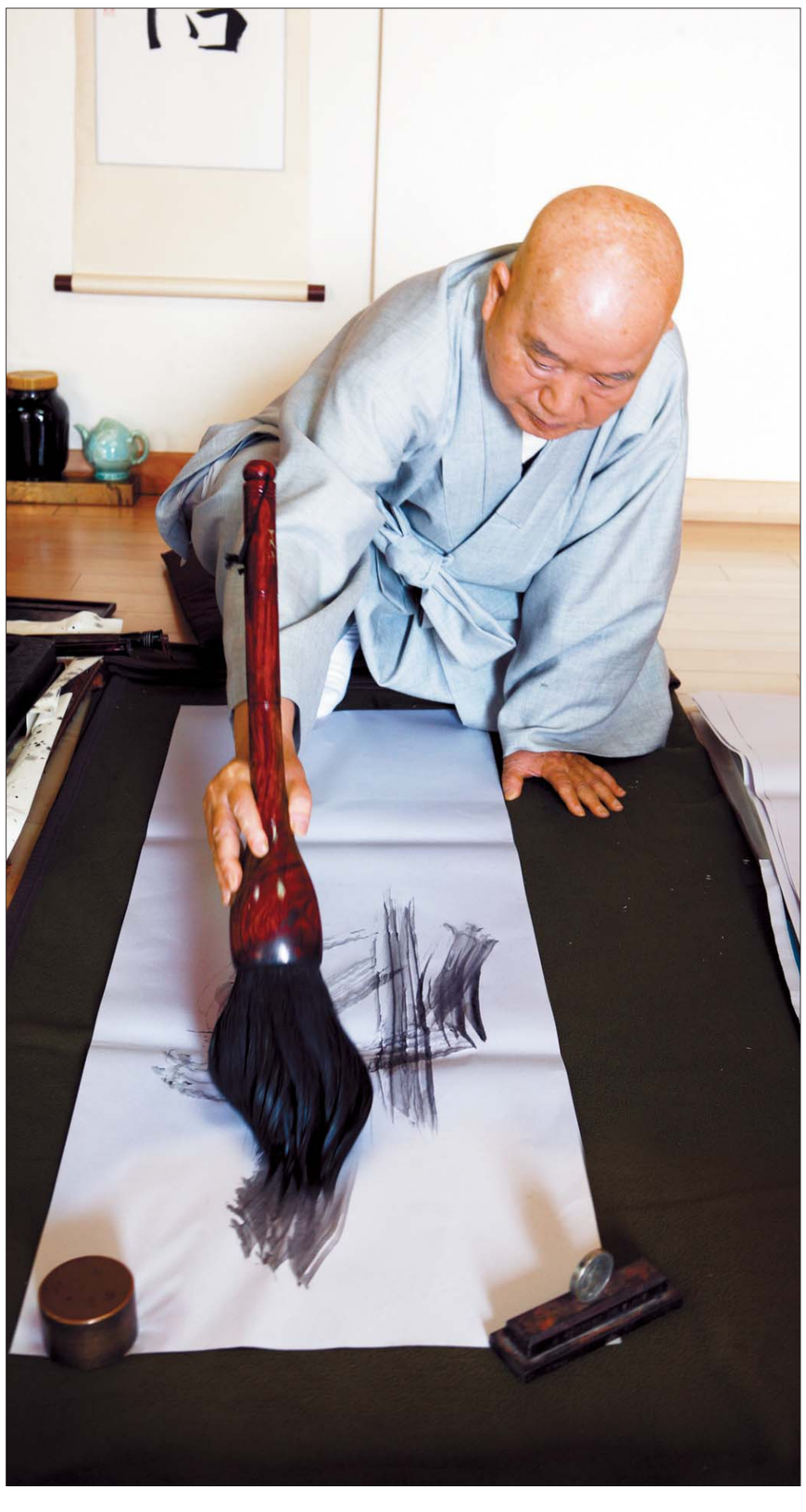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정확히 모르면 부처님 또한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인도에서 출현하셨던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부처님은 형상을 가진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반야부(般若部) 경전인 <금강경>에서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즉,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써 나를 알려고 하는 자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에도, 소리에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분명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설한 경을 믿고 행하면 된다'고 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삶의 고통 속에 존재감마저 상실했을지언정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벽 여명의 절 마당을 쓸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하는 산속의 스님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나날이 멀지 않음을 설파한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보낸다.
오늘도 물결 무늬를 쓸면서
종현 스님의 산사에서 보내온 청량한 법문 편지

종현 지음 / 255쪽 / 값 12,000원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경전연구회 2년결사 경전강좌안내
출가스님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2년 결사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 진심직설 • 몽산 법어 • 이입 사행론
• 증도가 • 간화 결의론 • 원각경
• 달마대사 혈맥론 • 달마대사 관심론
과 정 2년 과정
개 강 2009년 3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3~6시)
모집인원 50명 선착순(40여명 가등록 되있음)
장 소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50만원(1년)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공부모임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102608-01-001671(우체국) 예금주 :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 011-420-7838(지장스님) 총무 010-7963-7070(법정스님)
재무 : 016-9669-3917(정담스님)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고인물이 썩듯 마음도 안 닦으면 오염”



정관 스님 (영주암 회주)

“허공 끝이 어디인가?”
“허공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어디로 누워있나요?”
“서울시도 허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춤을 추면 하루 몇 번 춤을 춥니까?”
“내 마음에 따라 춤을 춥니다.”

정관 스님께 법문을 청했더니 대뜸 선문(禪問)을 던지신다. 마음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날아온 물음이기에 떠오르는 대로 답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화두선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직관입니다. 논리적인 것은 고정된 것이며 사구(死句)입니다. 화두는 직관이 답이 되어야 활구(活句)가 됩니다.”

스님이 따라주시는 구기자차를 한잔 마시고 나니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부산 망미동 배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영주암은 정관 스님께서 혼자 힘으로 일구어 온 사찰이다. 배산 자락을 깎고 주춧돌을 놓고 기와를 이기고 그렇게 한 가지씩 이루어 온 것이기에 눈가는데 마다 세월의 더께보다는 열정과 정성이 배어 있다. 정관 스님은 참선공부를 원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30년 전 부터 시민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선원을 거쳐 간 사람은 200여 명이 되고 지금은 사십여 명 정도가 토요일마다 화두참선을 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선문촬요> <육조단경> 등 옛 선사들이 참선 공부의 지침으로 삼았던 글들을 강의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독거유희락(獨居遊戱樂) 누리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스님의 처소에 ‘본래지당(本來知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 마음은 본래지(本來知) · 습성지(習性知) 두 가지입니다. 본래지의 마음은 대자연의 마음이요 천연의 마음이라면, 습성지의 마음은 세세생생 본인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마음입니다. 본래지는 천지(天地)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시방법계 두두물물 산하대지 어디에도 꽉 차 있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의 마음은 다겁생으로 익혀 온 습성지의 마음입니다. 탐진치, 거짓말, 양설(兩舌), 악구(惡口), 시기질투, 어리석음, 명예욕이 습성지의 마음입니다.”

인연 이전 본래지는 식(識)도 아니고 습(習)도 아니며 업(業)도 아니며 텅빈 적적(寂寂)인 것이며, 이를 가리켜 청정법신이라 한단다. 본래지가 차가운 연을 만나면 차갑다는 반응을 하고, 따듯한 연을 만나면 따듯하다는 반응을 하게 된다. 이처럼 본래지가 연(緣)을 만나 반응하게 되면 식(識)이 되고 식이 모이면 습(習)이 되고 습이 쌓이고 쌓이면 중업(重業)이 되는 것이다.

“마음은 본래지에서 출발해서 본래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습성지의 마음을 벗어나고자하면 분발하고 대발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수행과 성찰은 자기 제도입니다. 샘의 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늘 퍼 쓰는 데에서 다음의 좋은 물이 생산되는 것이지 퍼 쓰지 않고 고인 물 그대로 두면 좋은 새 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닦지 않으면 오염되고 노쇠해지고 탐진치에만 빠져드는 병든 마음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을 퍼 쓸 수 있는 수련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선이고 염불이지요.”

화두는 직관이 답 되어야 활구

닦지 않으면 탐진치에 빠져들어

지식·인식 틀 벗어나게 하는것이 禪

정관 스님은 마음공부 하는 데는 화두선(話頭禪)과 송화두(誦話頭)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염불을 송화두라고 칭한다.

“자기 인식 밖의 의문을 밖으로 던져 놓은 것을 화두라 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대를 강에 던져 놓으면 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들듯이 화두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두의문을 밖으로 던져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지식과 인식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선(禪)의 참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어놓은 알음알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범부들의 삶이지요. 화두공부는 화두의문에 착(着)이 되어야 하고, 화두의심이 깨달아진다면 대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간화선이 잘 안되는 사람은 우선 송화두로서 발심해야 합니다. 송화두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극한 신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송화두 공덕이 결국은 간화화두(看話話頭), 의정화두(疑情話頭)로 익어지고 발전이 있어요. 의정 없는 화두보다 오히려 처음부터 송화두로 신심을 다하는 것이 자기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에는 송화두로 시작하여 자연히 의정화두로 발전했지. 화두선이든 송화두선이든 간절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정관 스님은 출가사문은 출가하는 그 시간 그날부터 뼈에 사무치는 간절한 신심이 자기 집이고 자기 절이라 했다. 구도자는 물러서지 않는 지극한 신심이 중요한 것이지, 깨달음은 그 다음의 일이란다.

정관 스님은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일심으로 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다 보니 염주 줄이 자꾸 끊어져 나중엔 철사로 바꾸었지만 그것마저 끊어질 정도였다. 범어사 원효암에서 일주일 단식기도를 하며 주력을 하던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하는 이 놈이 무언가’ 하는 의심이 올라왔고 스님은 동산 스님께 달려가 여쭈었다. “그대로 하면 돼.” 은사스님의 그 말씀 한 마디에 공부 힘을 얻었다.

“송화두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내면성이 항상 밝고 깨어있지 않겠느냐”면서 활짝 웃으신다.

정관 스님은 세수 팔십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루에 9시간씩 목탁 치면서 ‘관세음보살’ 송화두를 하신다. 염불로 하루를 열고 염불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과를 수십 년 넘게 이어온 것이다. 젊은 스님들도 사분 정근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궁금하여 여쭈었다.

“수행은 마음 에너지로 하는 것이지 육신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불퇴보리심이 결국 도(道)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믿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계곡에 그저 흘러가는 냇물을 그대로 둔다면/ 억만 겁이 가도 저수지가 될 수 없듯이/우리들 마음에너지도 육신 요구대로/ 생각 없이 쾌락 쪽으로 흘려보낸다면/남는 것은 늙음의 슬픔과 허무뿐// 하지만 마음 에너지도 모으면 무형의 금싸라기가 된다네/염파(念波)도 금싸라기라네.

“화두 공부의 낙을 법열(法悅)이라고도 하잖아요. 법열은 어떤 물질을 바탕으로 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발하여 정진한 자기제도의 결과입니다. 법열의 즐거움은 조건부도 시한부도 아닌 것이며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낙(樂)이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잠깐이듯이 세속의 낙은 조건부이고 시한부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들 앞에 백 년 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백 년 후가 되면 현재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만나볼 수 없을 것이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육신은 뜬 구름 같고 아침이슬 같고 꿈과 같이 허망하고 그림자같이 잠깐입니다.”

정관 스님 처소에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요즈음 어느 때보다 하소연을

봉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행

제8대 총무원장 화엄 종사 이 · 취임법요식

삼보에 귀의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종하시는 전국 종도 여러분과 일붕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산하 본 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제8대 총무원장 화엄종사의 이 · 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예하의 법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9년 3월 5일(음. 2 .9) 목요일 정오 12시
2. 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3. 준비사항 : 당일 11시 30분까지 입장완료
4. 연 락 처 : 총무원 / 봉행위원회 **(02)998-8161,2**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 8대 총무원장 이 · 취임 봉행위원회

귀의 삼보하옵고
기축년을 맞이하여 자타가 두루두루 성불하옵소서!

대저 조계정토불교총원은 새로운 수행총원으로 미타불교와 미륵정토를 동시 수행하는 조계산맥인 돈오돈수(조사선/염불선/여래선/묵조선) 육화정신으로 정토세계를 건설하는 조계총원입니다.
고로 저희와 같이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수행자(스님/법사)와 본원에 사찰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내 용

◆**사찰등록**
구비서류 : 이력서/재산목록(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승 려 증**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법 사 증**
구비서류 : 이력서/주민등록등본1통/도장/사진2매(반 명함판)
◆**문의 및 접수처** : 본 총원 총무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38-5(2층)
전화 **02)720-3661** / 팩스 **02)720-3578** / 야간(구암사) **02)386-9679**
상담실 : 법운스님 010-7556-8333

나무정토세계(미타,미륵)

불기 2553년

사단법인 **대한조계정토불교총원**

직원일동 이사 정세영

"마음 건강하면 당당한 삶"

선지식을 찾아서 첫관

늘어놓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부귀를 한 몸에 누리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소연하니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단다.

"사람들 육신의 골절은 3백60골이나 되는데, 3백60 마디마다 근심 걱정이 사무치지 않은 골절이 없을 것이며, 번뇌 망상이 사무치지 않은 골절이 없을 것입니다. 3백60골절 마다 사무쳐 있는 근심과 번뇌망상을 깨끗이 씻어내는 약은 수행정진 밖에 없어요. 자기 수행이 결국은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요."

정관 스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수행이다. 스님은 평생을 철저한 자기 관리로 살아오셨기에, 또 철저한 자기관리로 인해 무량한 법열을 느껴보았기에 수행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송화두 외에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한 스님만의 방편이 하나 더 있다. 매일 불(佛)자를 열 번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일과다. 그만큼 스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다.

정관 스님은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또 명예를 한 번 높여보겠다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속된 것이라 여긴다.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진실 된 공부자가 되겠다'는 신심으로 시작하여 공부를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단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진실로 자기 것이지, 노력 끝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진실로 수행 정진하여 내면이 항상 밝고 깨어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관 스님은 스물한 살 때 범어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은 '이 뭣고' 화두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하루 9시간 넘게 정진하고 있다. 정관 스님의 정진 수행은 송화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정관 스님은 어린이 포교 조직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창설하여 2세 교육과 포교에 열정을 쏟았다. 또 복지재단 '불국토'를 설립하여 개금복지관, 두송복지관, 물운대복지관 등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에도 헌신했다. 영주암의 상락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백여 명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공덕이 바로 복을 짓는 것입니다. 작복(作福) 없이 복을 바래서는 안되요. 자기 제도를 위한 공부도 작복이 먼저입니다" 씨는 뿌리지 않고 열매만 따먹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경책이다. 정관 스님은 중생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 진실로 마음 아파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염불공덕이 사회로 중생에게로 회향되기를 간절히 발원하고 있다.

"요즈음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죽하면 그랬으랴 싶어 연민의 마음 가득합니다, 하지만 자살행위는 생각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요. 마음은 내가 있기 전부터 본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살하겠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결코 마음은 죽지 않아요. 마음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끝없는 윤회입니다.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아야지. 자살 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야. '나'라는 주인공은 역시 마음이지 다른 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소득 4만불을 약속하지만 외형적으로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지만 결코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 국민소득 2만불이나 되는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느냐고 물으신다. 외적인 복지가 충족되었다면 내면세계의 복지도 돌아보아야 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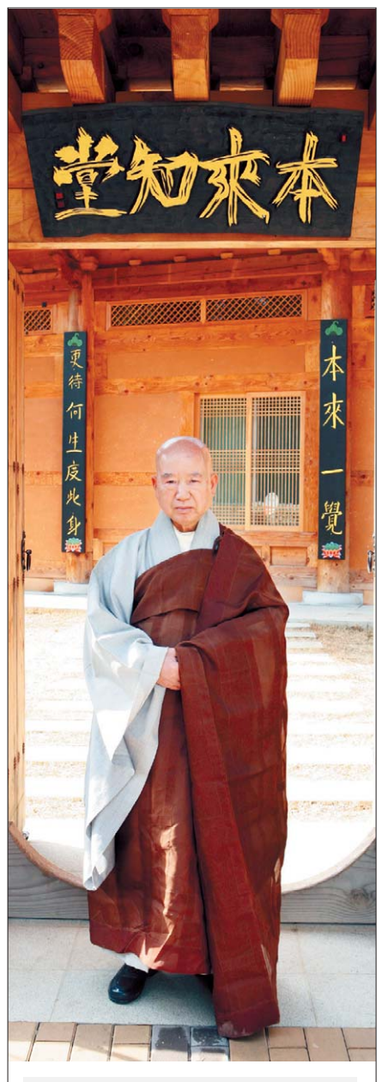
"인생에 실패는 없어요. 설령 실패했다고 해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요즈음 실업자는 많아도 3D업종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직분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생각이 선진국이 되어야지 물질적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니야.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은 자식이 판 · 검사, 의사, 장군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구두닦이를 하더라도 직분에 긍지만 있으면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기가 죽어요? 남이 무시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무시하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불교는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족 속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맛으로 사는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은 과시적인 삶에 불과한 것,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 정관 스님은 "마음이 건강하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다"면서 세세생생 이 말을 전할 것이라 했다.

본래지당을 나서는데 스님의 한 말씀에 코뚜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야생마도 길들이는데 자기 마음 자기가 왜 잡지 못하는가?"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정관 스님은 1954년 범어사로 출가하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57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와 보살계 수지.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수료. 범어사 선원에서 14안거 성만했고 이때 깨달음을 얻었다. 1986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1994년 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역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역임. 제18회(2006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쌍계사, 범어사 주지 역임. 지금은 영주암에 주석. 저서로는 〈죽음이 없는 선의 길〉 〈인도성지 참배〉 〈하늘같은 자유〉 〈간화선의 길〉 외 다수.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2〉 인간문화재 송암 대화상

철위산간옥초산(鐵圍山間沃焦山) 확탕노탄검수도(鑊湯爐炭劍樹刀) 팔만사천지옥문(八萬四千地獄門) 장비주력금일개(仗秘呪力今日開)

"철위산간의 옥초산과 확탕노탄의 검수도산, 팔만사천 지옥문이 신비의 주력에 의하여 열려진다"는 말이다. 하늘로 날아갈듯한 그 음성, 땅으로 파고드는 그 소리에 진짜 철위산간 속에 있는 옥초산과 확탕노탄 검수도산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송암 스님(1915~)의 그 높고 깨끗한 음성을 들으면 누구도 가슴을 졸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떠들고 시끄럽던 재장(齋場)이 조용한 호수처럼 가라앉고, 시야를 알아볼 수 없는 안개가 걷혀 맑은 허공이 금방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다.



높고 깨끗한 음성 '극락의 문' 열어 주는듯 즐거워

1915년 서울에서 태어나 80평생을 서울에서 보낸 스님이지만 조선 팔도강산을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고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일대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 큰 재(齋)가 있는 곳이면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밥 주지, 옷 주지, 가는 곳 마다 차비 주지, 부처님 복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방실방실 웃으시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천진동자와 같다.

스님은 1933년 봉원사 강원을 졸업하고 경성상업학교를 나와 박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이원화 남벽허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셨다고 한다.

"옛날이야 녹음테이프가 있습니까, 비디오가 있습니까. 그냥 선생님 입보고 따라 배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1973년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어 1987년 영산재보존회 총재로 추대되니 당장 옥천범음대학을 만들고 후배를 양성, 대통령으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으셨다. 그러나 항상 범패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하므로 〈석문의범(釋門儀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전화하거나 사람을 보내 확인하기도 하셨다. 특히 이화여대 체육무용학과, 청주예술대학, 경성무용전문학교 강사로 계실 때는 학생들이 낸 논문을 가지고 같이 심사를 하자고 하여 두세 번 동참한 일이 있는데, '도량무'가 어째서 '나비춤'인지, '천수바라'의 '바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는 춤을 추고 날아갈 것 같았다고 술회하셨다.

사실 스님은 나이 들어도 동자처럼 항상 깨끗하시고, 복장이 단정하여 불명 그대로 희덕(喜德)이었다. 늘 마음이 기쁘고 덕이 있어 얻은 옷이나 양발이나 내복이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받은 보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주자고 하여 삶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날마다 재불공을 드려도 피곤함이 없는 것은 환희심에서 살기 때문이라 했다.

"세계 각국의 성현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난 분이 없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으로 보아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 입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저 하느님도 따라올 수 없지요.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된 줄 아나요. 하느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되었다 하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대범천왕, 제석천왕이 와서 호위하고 받들지 않으셨서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공자님도 내생(來生)은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세는 알았어도 과거 전생은 몰랐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獨生子)라는 것도 본인이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예언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묵겁전(塵墨劫前)의 일을 아셨으니 성인가운데 성인이고, 왕 가운데 왕입니다."

이렇게 스님은 당신이 외우고 쓰고 하는 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쳤으므로 무속의 아류로 생각했던 범패가 국가문화재로까지 지정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수행하는 품위를 지키고, 계율을 청정히 가져서 남의 복밭이 되고, 귀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세계를 티끌로 만들어 한 세계를 지나 티끌하나 떨어뜨리고, 한 세계를 지나 떨어뜨려 그 티끌이 다하면 그 티끌이 떨어진 장소와 떨어지지 않은 장소까지 모두 합쳐 먹 갈듯이 갈아 먹가루를 만든 뒤에 앞서의 티끌을 하나씩 떨어뜨려 다 없애듯 뒤의 먹가루도 그렇게 하여 다 없어질 때까지 계산하여 먹가루 다 하는 세월 이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 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하하하."

하시고, 한손으로 이마를 만지시고 긁적 거리던 모습. 아마도 스님은 그 이전의 세계에 돌아가 거기서도 범패를 읊으시며 부처님을 찬탄하고 계실 것이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4>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⑧ 끝

좌선 중에 열가지 치료법 갖춰야만 효과

復次 用心坐中治病 仍須更兼具十法 無不有益 十法者 一信 二用 三勤 四常住緣中 五別病因法 六方便 七久行 八知取捨 九持護 十識遮障 云何爲信 謂信此法必能治病 何爲用 謂隨時常用 何爲勤 謂用之專精不息 取得差爲度 何爲住緣中 謂細心念念依法 而不異緣 何爲別病因起 如上所說 何爲方便 謂吐納運心緣想 善巧成就 不失其宜 何爲久行 謂若用之未卽有益 不計日月 常習不廢 何爲知取捨 謂知益卽勤 有損卽捨之 徹細轉心調治 何爲持護 謂善識異緣觸犯 何爲遮障 謂得益不向外說 未損不生疑謗 若依此十法 所治必定有效不虛者也

다음으로 마음을 사용하여 좌선하는 가운데 병을 치료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열 가지 법을 함께 갖추어야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열 가지 법이란 첫 번째는 신(信), 두 번째는 용(用), 세 번째는 근(勤), 네 번째는 상주연중(常住緣中), 다섯 번째는 별병인법(別病因法), 여섯 번째는 방편(方便), 일곱 번째는 구행(久行), 여덟 번째는 지취사(知取捨), 아홉 번째는 지호(持護), 열 번째는 식차장(識遮障)이다.

무엇을 '신'이라고 하는가. 이는 반드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용'이라고 하는가. 이는 치료법을 수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근'이라고 하는가. 이 치료법은 병 다스리는 방법을 전일하고 정미하게 사용하면서 쉬지 않고 차도가 있을 때까지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상주연중'이라고 하는가. 이는 빈틈없는 마음으로 생각생각 치료법을 의지해서 다른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별병인법'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병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구별하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한 치료법과 같다.

무엇을 '방편'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호흡으로 마음을 운행하고 그 인연을 상상하면서 훌륭한 솜씨로 성취하여 알맞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구행'이라고 하는가. 만일 치료법을 사용했는데도 즉시 이익이 나지 않으면 병이 나을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항상 수행하고 익히면서 폐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지취사'라고 하는가. 이는 치료법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손해가 있으면 즉시 버리고 미세하게 마음을 전환하여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지호'라고 하는가. 이는 치료법이 다른 인연에 저촉되고 범하는 것을 잘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식차장'이라고 하는가. 병이 나아서 이익을 얻었다 해도 외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병이 감손되지 않았다 해도 의심과 비방을 일으키지 않음을 말한다.

이 열 가지 법을 의지하여 치료한다면 단정코 효험이 있어 허망하지 않게 된다.

치료법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익없어
병환은 항구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치료해야

마음을 써서 좌선하는 가운데 병 치료하는 것에 대해 밝혀본다면 반드시 열 가지 법을 겸해야만 훌륭한 영험이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인데, 이 법은 단정코 병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 굳게 믿고 한 생각도 의혹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광대한 바다와 같은 불법에 들어가려면 신심이 으뜸이고 지혜가 번뇌를 건너는 도구라는 점에서도 신심이 가장 첫 번째로 요긴한 이치라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수시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였다. 만일 믿기만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칼을 도적 잡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와도 같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석으로 쉬지 않고 병이 나을 때까지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불을 부비다가 중도에 쉬면 불을 얻기 어렵듯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병이 낫기 어려운 것과 같다.

네 번째는 병을 다스리는 조건가운데 항상 안주하여 생각생각 병을 다스리는 인연에만 머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처럼 모든 주의력을 병을 다스리는 쪽으로 기울이는 것과도 같다.

다섯 번째는 병이 일어난 원인을 구별해야 한다.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잘못 치료하면 병과 치료법이 서로 호응하지를 않아 전혀 이익이 없게 된다.

여섯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방편인데,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상상을 성취하여 그 알맞음을 잃지 않아야만 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거문고를 탈 때에 반드시 거문고 줄의 완급을 조절해야만 소리의 운율이 잘 조화되듯 병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행해야만 한다. 수행인이 치료법을 사용하였으나 오래도록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항상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만 한다. 이는 도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항구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행하고 익히면서 쉬거나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치와도 같다.

옛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도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옛말에 "도는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며 떠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병을 다스리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여덟 번째는 버리고 취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지혜로 선택하여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서 털끝만한 미련이나 집착도 없어야만 한다. 우리 범부들은 종일토록 거친 마음과 급한 기운으로 망념이 요동하기 때문에 불법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친 마음을 전환해서 미세한 생각을 이루고 미세한 생각을 거두어 근본 마음자리로 되돌아가야만 도와 서로 일치할 수 있다.

아홉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하고 유지해야만 하는데, 병의 금기사항을 잘 식별하여 음식을 먹거나 행동하거나 앉거나 머물거나 눕는 가운데서 훌륭하게 몸을 조절하고 보호하여 금기사항을 범함으로써 도업에서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열 번째는 차단하여 가리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치료에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병이 낫지 않았다 해도 의심과 비방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이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그 물이 차가운지 따듯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도 같다. 이처럼 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만이 알 뿐이다.

그 예로서 옛날 고승대덕은 도만을 기르며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편안하게 여기고 도만을 지켰다. 이는 혹 한번 거동하면 만리 밖 타향에 구름처럼 떠돈다 할지라도 자기의 덕은 숨기고 허물만 드러내는 것을 차단하고 가리면서 도를 보호한다는 의미에 해당된다.

수행인이 이 열 가지 법을 의지하여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치료법을 사용한다면 단정코 효과가 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상으로 지관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대단원의 문장은 여기에서 끝났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실천수행론(實踐修行論)

팔정도(八正道)

6) 정정진(正精進) 또는 정근(正勤)

정(精)은 의지가 전일하여 게으르지 않고 사상은 순수하고 정직하여 이로 인해 끝없는 진보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물러섬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부정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밤낮없이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이는 올바른 정진이 아니라 그 반대인 해태, 즉 게으름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짓이 정도(正道)와 위배할수록 선 공덕으로부터 그만큼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정진'은 의연한 힘을 발휘하여 지혜를 수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의 경지에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 정각해탈을 증득함을 말합니다.

7) 정념(正念)

염(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대상경계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으킨 모든 생각을 지적한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신 밖의 사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감정을 일으키면 그 감정에 따라 생각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견해, 즉 정견을 의지하여 마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써 감정을 조화하고 행동을 인도하여 사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여유롭게 중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를 두고 '정념'이라고 합니다.

8) 정정(正定)

정(定)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한군데 집중하는 올바른 삼매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일곱 항목의 덕목을 관조하고 따르면서 수행해야만 올바른 지혜가 발생하여, 사물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단정함으로써 외물에 의한 간섭과 뇌란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마음은 청정하여 외부의 잡염(雜染)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정정' 또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총론적으로 결론짓는다면 부처님이 오도하신 이후 설법하심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제 · 십이인연 · 심법인'을 설파하셨으며, 이 같은 삼대강령을 수행 실천하는 방면으로 팔정도를 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했던 오온 · 십이처 · 십팔계 · 십이연기 · 사성제 · 삼법인의 이치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분명히 알아서 팔정도를 실천해야만 삼계육도의 혹업고를 영원히 벗어나 보리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간 생사해탈의 구경이며, 이를 자타가 동시에 완성하는 것을 '반야바라밀다'라고 합니다. ■정리=張如舟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을 받으려면 유마로 가라" 할 만큼 유마 최면 연구소의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선관책진’ 읽고 행자 때부터 장좌불와 평생 이어가





그림 · 최문정

남영은 해인사 일주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절 규모가 백양사보다 훨씬 더 컸다. 일주문이나 가람들의 크기도 웅장했다. 그러나 위압감은 들지 않았다. 곰삭은 가람들은 고향집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남영은 단청이 퇴색한 종무소로 바로 갔다. 종무소에는 이십대의 처사와 행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사는 의자에 앉아 있고, 어린 행자는 작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는 중이었다. 처사가 남영을 보더니 책상의 서류를 밀치면서 물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꺼.”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남영의 말에 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청소하던 어린 행자도 비질을 멈추었다. 남영은 자신의 방처럼 불쑥 들어가 보조의자에 앉았다. 처사가 말했다.

“주지시님께 말씀해보겠십니더.”

“그럴 것 있습니까. 제가 주지스님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출타 중인데 곧 오실낍니더.”

어린 행자가 비질을 하면서 말했다.

“반갑십니더. 해인사에는 저 말고도 행자가 여러 명 있십니더.”

남영은 행자가 여러 명이라는 말에 안도했다. 수시로 행자를 받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처사가 조건을 달았다.

“주지시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더. 주지시님께서 까다롭게 심사해서 받아들여도 한밤에 도망치는 행자가 있십니더.”

“왜 그렇습니까.”

“한 마디로 행자생활이 고되니까 그런다 아입니꺼.”

보살 신도 두 명이 종무소로 들어오자 처사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남영은 종무소를 나와 해인사 경내를 돌았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까지 올라갔다가 종무소로 내려오자 삿갓을 쓴 한 스님이 왔다. 한눈에 주지스님 같은 느낌이 들어 남영은 다가가 합장했다. 종무소에 있던 처사와 어린 행자도 뛰어나와 ‘주지스님 오십니꺼’ 하고 인사했다. 남영은 용건을 말했다.

“주지스님,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다른 절로 가보게.”

주지는 남영의 겉모습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이칼라 머리에 흰 양복을 입고 있는 남영의 행색이 생경했던 것이다. 주지는 남영을 따돌리려고 그러는지 종무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주지채로 가려 했다. 남영이 합장하며 사정했다.

“주지스님,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중노릇할 위인이 못되는 것 같네.”

“받아만 주십시오.”

“해 떨어지기 전에 떠나시게.”

그래도 남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간 버텨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생각했다. 남영은 어린 행자를 따라 공양간으로 갔다. 행자가 남영을 위로했다.

“오늘은 공양간에서 자시지예. 주지시님께서 마음을 돌리실지 모릅니더.”

남영은 오히려 어린 행자를 다독였다.

“내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주지스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지는 그날 밤 남영이 해인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소임을 보는 스님들과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공사의 결론은 ‘중노릇 할 사람이 아니다’였다. 어린 행자에게 공사의 결론을 전해들은 남영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부엌데기처럼 가야산 골짜기로 나무를 하러 가기도 하고, 방사에 불을 때고, 밥하며 물을 긷기도 했다. 공양간 행자들은 자신들의 일손을 거들어주니 남영을 반겼다. 남영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공양간 행자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러나 공사를 벌일 때마다 남영은 퇴짜를 맞았다. 4월 초순(음력 3월 1일)에 해인사로 온 이후 세 번이나 출가를 거절당했다. 그럴수록 남영은 도 닦을 마음을 더욱 굳혔다. 자신이 정해 놓은 길을 가는데 누구도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남영은 걱정은커녕 천연덕스럽게 공양간 행자처럼 생활했다. 주지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미 해인사 행자라고 여겼다. 다만 주지에게 허락받지 못했으므로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공양은 공양간에서 한 끼만 했고, 잠은 나무청이나 공양간 같은 찬 데서 잠깐 잤다.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면식이 있는 단아한 스님이 보였다. 일본 교토의 임제종 절에서 뵌 적이 있는 서옹이었다. 남영은 스님에게 달려가 합장했다. 서옹은 양복 차림의 남영을 곧 알아보고는 놀랐다.

“무슨 일인가. 해인사에 있다니.”

“스님, 도 닦으려고 왔습니다.”

“그런가. 퇴설당에 계시는 인곡(麟谷) 스님을 소개시켜 주겠네.”

남영은 바로 서옹을 따라 퇴설당으로 올라갔다. 서옹은 자신이 일본에서 남영에게 <금강경>을 주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남영을 소개했다. 그러자 인곡이 남영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묻는 말이 아니었다.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기 이전의 고향, 본래자리(面目)를 묻는 말이었다. 남영은 <선관책진>을 보고 느낀 대로 대답했다. 선사들의 방식대로 크게 고함을 쳤다.

“아악!”

인곡은 남영이 선사 흉내를 낸다고 여겼는지 다시 미끼를 던졌다.

“네 고향이 어딘가.”

이번에도 남영은 속지 않았다. 인곡 스님이 묻는 의도를 알고는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힘껏 쳤다. 그러자 인곡이 다시 물었다.

“우리 집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이웃집 말이 배탈이 났다. 천하의 명의를 불러서 말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랫집 돼지의 넓적다리에 뜸을 떴다. 이치를 알겠느냐.”

남영은 주먹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제야 인곡이 미소를 지으며 남영의 머리를 만졌다. 세상의 유무정물이 연기(緣起)로 얽히어 있는 이치를 아느냐고 묻는 인곡 스님의 질문에 남영은 그것들은 결국 한 몸이라고 주먹을 내밀어 답했던 것이다.

이후 남영은 정식으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장좌불와를 시작했다. 장좌불와란 하루 종일 단 한 순간도 눕지 않고 정진하는 두타행 중에서 가장 지켜나가기 어려운 수행을 말했다. 하루 한 끼만 공양하는 오후불식(午後不食)의 수행도 이어갔다.

훗날 장좌불와를 평생 동안 해 유명해진 스님은 행자 때부터 장좌불와를 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는데, 출가 전에 이미 결심했던 것이 분명하다.

–내가 평생을 장좌불와 한다고 말하면 상(相)을 내서 자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거북해요. 허나 평생을 장좌불와 해왔으니 사실인즉 맞습니다. 요새도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장좌불와 하게 된 동기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선관책진>이란 책을 읽다가 장좌불와 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때 나도 장좌불와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절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3일 5일 7일이면 견성한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주일이면 깨치지 못할 것이 있겠나 하고 입지를 세웠어요. 화두는 효봉 스님한테 탔지요.

세 번이나 출가 거절 당하고도
공양간서 먹고 자며 공양주 생활해
밥 푸다 대분심 일으켜
칠일 단식정진 들어가

혜암은 공양주 소임을 보면서 조실스님인 효봉에게 ‘무(無)’자(字) 화두를 받았다. 아직은 행자 신분이었으므로 혜암은 공양간을 선방 삼아 정진했다. 불구(佛具)를 닦을 때나, 밥을 지을 때나 늘 화두를 들었다.

가야산의 독한 모기들이 달려드는 여름철을 한결같이 밤새워 장좌불와를 하고 혼자서 참선하니 해인사 대중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문수 관세음보살 화신이 나타나 가야총림을 도우러 왔다.’

주지도 공양주 혜암을 신뢰해 이제는 쌀 곳간의 열쇠를 간수하는 미감(米監)의 일까지 맡겼다.

“밥도 잘 짓고 양도 잘 맞추니 앞으로는 쌀 창고 열쇠를 그대가 가지고 있게.”

그러나 공양주 혜암은 주지의 칭찬을 한 귀로 흘렸다. 오직 화두를 타파해 득도(得道)할 생각뿐이었다. 가마솥에서 큰 주걱으로 밥을 풀 때도 ‘나는 도 닦으러 왔는데 딴 스님들 공양 준비만 해주다 시간을 다 흘려보내는구나’ 하고 아쉬워했다.

마침내 혜암은 아침공양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효봉의 상좌가 되기로 한 행자에게 부탁했다.

“행자님, 내 배가 아프니 오늘 아침만 내 일을 좀 해주시오.”

“걱정 마시오. 어서 가 쉬어요.”

공양주 혜암은 행자에게 밥주걱을 넘겨주고는 백련암 뒤 환적대로 향했다. 백련암 뒷산에 환적 선사가 깨쳤던 환적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혜암은 유서 비슷한 글을 써 품에 넣었다.

‘일주일 안에 도를 깨치지 못하면 죽어도 좋다.’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가 백련암이었다. 혜암은 한 걸음에 백련암까지는 갔으나 암자 뒤에 있다는 환적굴은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그 부근에서 굴을 하나 발견해 그곳으로 동면하는 짐승처럼 들어갔다.

혜암은 산속에서 돌멩이 일곱 개를 구한 뒤 가부좌를 틀었다. 하루가 지나면 돌멩이 하나를 옆으로 옮겨 수행한 날짜를 헤아리기 위해서였다. 공양거리는 아무 것도 없었다. 계곡으로 흐르는 물도 단 한 방울 마시지 않았다. 칠일 단식정진이었다.

한편, 해인사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양주 혜암이 배가 아프다며 한 행자에게 밥주걱을 넘겨준 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이 혜암을 찾으러 해인사 뒷산인 가야산을 헤맸다. 그러나 혜암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굴에서 나오지 않았다. 화두가 성성하게 잘 들려 일주일이면 오매불망 그리던 도인이 될 것 같았던 것이다.

실제로 닷새째 되는 날까지도 혜암은 화두와 하나가 됐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이 문제였다. 귀속이 갑자기 바글바글 울리고, 손발의 마디마디가 뻣뻣해졌다. 손가락이 굳은 것 같아 돌멩이를 들어 옮기기조차 힘들었다. 얼굴은 산모기가 물어뜯어 곪이 오른 사람처럼 불긋불긋 했다. 화두를 의심하는 망상도 나타나 방해를 놓았다.

‘화두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큰일이다.’

결국 혜암은 엿새를 넘기지 못하고는 굴을 나왔다. 해인사로 맥없이 내려오자 효봉은 혜암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죄송합니다.”

그러나 효봉은 마음속으로 흐뭇해했다. 출가를 허락한 인곡도 마찬가지였다. 대중의 밥을 푸다가 대분심(大墳心)이 일어나 칠일 단식정진에 들어간 공양주 혜암이 대견하기만 했던 것이다.

마침내 공양주 혜암은 가을에 인곡을 은사로, 효봉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법명은 성관(性觀)이었다. 가야산에 단풍이 불붙기 시작한 10월 15일(음력)의 일이었다.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받아
법명은 성관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청산에 맑은 물은 원래 예전과 같고 명월 청풍은 같은 한 집이네.
눈 녹은 태산에 봄바람 부니 두견새 우는 곳에 두견화가 피었도다.
– 혜암대종사 법어



정진안내

- 철 야 용 맹 정 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4>

'교상 판석'의 내용과 의미

천태대사, 부처님 설법 시기와 '법화경' 비유로 설명

(718호 이어서) 이렇듯이 잡다한 중생들이 하나의 지구에 모여 사는데 어디는 평화롭고 어디는 시끄러운 까닭은 모두가 자기의 뿌리인 무명에 의해 생긴 세계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려는 것이 이 세계기시설(世界起始說)의 목적이다.

그 잘 산다. 못 산다. 함은 선업과 악업으로 대체되는 말인데 이 선업과 악업에 별업(別業)과 공업(共業)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과보가 같지 않다. 별업이란 제제마다 개별적으로 지은 업으로 개인적인 보를 받는 것이요, 공업이란 같은 업을 지어서 함께 받는 경우니, 국가나 민족 등의 공동체를 말한다.

교상(敎相)이란 부처님께서 긴 세월, 넓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근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설법인 <법화경(法華經)>에서 어느 장자(長者)가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를 다섯 단계로 설하셨다. 이를 토대로 중국 수(隋)나라 때 지자대사(智者大師, 538~597)께서 부처님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이 다섯 단계로 나눈 뒤, 이 비유에 맞추어 판석(判釋)하시니, 이로부터 교상(敎相)을 판석(判釋)하는 학풍이 생겼다. 이를 천태(天台)의 오교(五敎)라고도 하고, 오시교(五時敎)라고 한다. 먼저 오시교의 교상을 소개하고 다음에 궁자의 오사비유와 대조해 본다.

첫째,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달으시니, 일체가 오직 마음에서 생기는지라 마음 하나만 깨달으면 더 구할 것이 없음을 아시고 외치시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처니라"는 내용의 <화엄경>을 설하시니, 모두가 못 믿을 말씀이라고 놀라 도망친다. 이는 부처님 성도직후 삼칠일(三七日) 동안에 있었던 일로써 이를 제일(第一) 화엄시(華嚴時)라 한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낮은 동네, 즉 녹야원으로 가셔서 12년 동안 선악인과(善惡因果)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성제(四聖諦)의 법을 설하시니, 중생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지라 조금씩 알아듣고 모여들었다. 이를 제이(第二) 아함시(阿含時), 또는 녹원시(鹿苑時)라 한다.

셋째, 부처님께서는 조금 진리의 수위를 높이셔서, 선업(善業)으로 선과(善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의 색채를 조금씩 가미(加味)하셨는데 곧잘 알아듣기 시작했으니, 이 8년 동안을 제삼(第三) 방등시(方等時)라 한다. 방등(方等)이란, 방(方)은 방정(方正)하고도 광대(廣大)하다는 뜻이요, 등(等)은 같다는 뜻이니, 결국 방하고도 등한 대승(大乘)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다같이 갖추어있다는 뜻으로서 중생들이 적응하기 시작한 시기라는 뜻이다.

넷째, 중생들이 방등교(方等敎)의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소승을 버리고 대승을 취하려하거니와 그 취하려는 생각이 도리어 집착이 된다. 그럼으로 다시 그 집착을 끊어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시니, 이것이 곧 다음의 반야시(般若時)이다. 반야학(般若學)을 공사상(空思想)이라고도 하니, 공(空)이란 비운다는 뜻으로서 이전에 알던 것뿐 아니라 나는 반야를 아노라 하는 생각까지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반야부에 속하는 경전을 통틀어 반야부라 하고, 유명한 <금강경(金剛經)>이 여기에 속한다. 21년 동안 이 법을 설하시니 이 기간을 넷째 반야시(般若時)라 한다.

다섯째,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설하시기 41년간, 제자들의 교학적인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최초의 <화엄경>은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 예로 치고, 소승교 방등교 반야교를 통해 상중하(上中下) 삼근(三根)의 중생이 모두 의지할 곳을 찾았다. 그러나 아직은 유재본처(猶在本處)가 흠이었다. 유재본처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봉선사 조실

광덕 스님이 번역한 '무문관'… 간결한 해설로 '禪味' 극대화

'문 없는 문' 들어가는 길은 어디?



5조 홍인 선사로부터 의발(衣鉢)을 받은 날 밤, 6조 혜능 선사는 인연 있는 땅을 찾아 남으로 떠난다. 다음날 혜능이 달마이래로 이어져 온 법을 받아 떠난 것을 안 대중들은 혜능을 추격한다. 그 추격의 맨 앞에 선 사람은 명(明) 상좌. 대유령에서 추격을 당한 혜능 선사가 명 상좌에게 한 법문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이다. 이 법문 아래 명 상좌는 깨우쳤고 혜능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의 공안(公案)이 형성되는 순간이다.

'불사선 불사악(不思善不思惡).'

이 화두를 두고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는 "육조는 가히 급한 곳에 손을 썼고 또한 노파심이 간절하다. 마치 신선한 여지(荔支)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내어 입에 넣어주어 다만 삼키게만 한 것 같구나"라고 평했다. 또 "그릴 수도 없고 그림도 안 되고/ 찬양으로도 못 미치니 부질없는 고생은 그만두어라/ 본래면목은 감출 곳이 없으니/ 세계가 허물어질 때도 저는 변치 않는다"고 송을 붙였다.

1700 공안. 간화선의 화두는 많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많은 화두가 모두 둘이 아니라 하나다. 수행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계합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번잡스럽게 1700가지나 되는 화두가 나온 것이다.

무문 혜개 선사가 이 많은 화두 가운데서 후학을 지도하기 위해 자주 써 먹은 화두 48가지를 묶어 놓고 그 이름을 '무문관(無門關)'이라 했다. 깨달음에 이르는 '문 없는 문'을 가는 도리를 밝혔다는 것이다. 책의 구조는 공안의 예를 제시하고 거기에 평을 하고 송을 붙이는 형식이다.



광덕 스님.

<무문관>은 송(宋)나라 중기 이후 선사들에게 애독서가 됐다. 어록의 반열에서 빠지지 않는 <무문관>의 힘은 무엇일까? 무문 혜개 선사의 친절한 해설과 활달하게 펼쳐 보이는 지침의 힘일 것이다.

'불광법회'를 꾸려 도심포교와 역경불사를 주도했던 광덕 스님이 번역한 <무문관>의 생명도 친절함에 있다. 번잡스럽거나 지나치게 뻥튀기된 느낌의 용어들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시대의 언어로 1000년 중국 선사의 어감을 살려 놓은 솜씨는 중생에 대한 깊은 자비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원 작자인 무문혜개의 낙처를 포장하지 않고 보여주려는 것이 광덕 스님의 번역 제1원칙이었다면, 독자는 '문 없는 문'을 들어가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무문관>을 읽는 제1원칙이 아닐까? (불광출판사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재미로보는 불교 만화·동화

야단법석 여래네 집
스튜디오 돌 기획|솔바람 펴냄|1만원

이것은 상대방을 껄렁하거나 놀고 먹으면서 거들먹대는 사람 취급할 때 하는 말이다. 일종의 욕이기도 하다. 그런데 '건달'이란 말의 뜻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김혜리 글 그림|사계절 펴냄|9800원

물고기 등에서 나무가 자란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나 절에서 늘 보는 목탁은 물고기 등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역시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목탁을 만들게 된 유래를 동화로 재구성했다. 출판사의 '우리문화 그림책' 시리즈에 목어 이야기가 들어 간 것이다. "나를 꼭 닮은 목어를 그림책으로 만들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작가의 판화는 선이 굵고 역동적이다.

"야 이 건달 같은 놈아."

애나 어른이나 불교를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서 쓰는 용어에 친근감을 가진다면 불자로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 하는 것이다. <야단법석 여래네 집>은 자주 접하게 되는 108가지의 불교 용어를 재미있는 생활 에피소드를 통해 풀이해 주는 만화책이다.

구석구석 찾아낸 서울의 숨은 역사 이야기
권영택 글, 김진 그림
책 먹는 아이 펴냄|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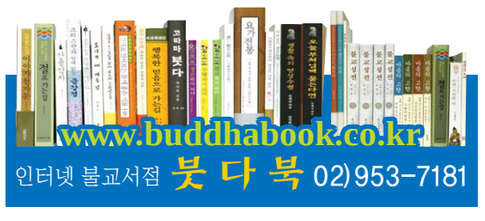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숱한 이야기를 남기고 간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흥미롭다.

마른내골, 탄천, 오금동, 명륜동 등등 지명에도 역사의 향기는 묻어 있다. 만화와 사진을 적절히 삽입하여 서울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 책은 서울 편이 3권으로 나왔고 조만간 경기 남부와 북부 편 각1권씩이 나올 예정이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5	인과경	현담	선
6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삶과 영혼의 비밀	대승불교양우회	양우
9	광명진언기도법	일타,김현준	효림
10	만화 백유경	김장열 글,그림	솔바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Human & Books Tel : 02-6327-3535~7 | E-mail : hbooks@empal.com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 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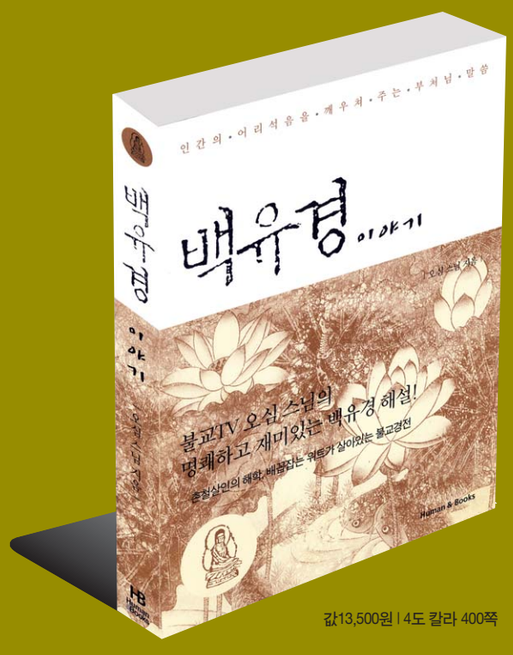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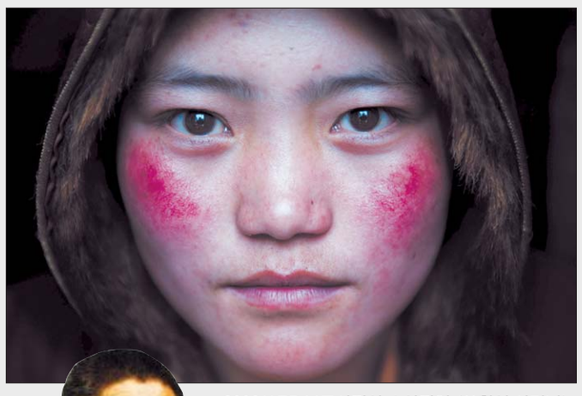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써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한 적은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아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위트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값13,500원 | 4도 칼라 400쪽

성남훈씨, '쓰촨성 사미니'로 세계보도사진상 수상

"티베트스님들 무언의 메시지 담았어요"



2009 WPP 보도사진상 수상작인 '쓰촨성 사미니'.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성남훈(46, 전주대 사진학과 객원교수 · 사진)씨가 2월 13일, '쓰촨성 사미니'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된 제52회 세계보도사진(World Press Photo) 심사에서 인물사진 싱글부문 3등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일상뉴스부문의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세계보도사진상이다.

지난해 7월과 올초 한미사진미술관과 예송미술관에서 '연화지정(蓮花之井)'을 주제로 연 개인전에서 소개되기도 한 이번 수상작은 중국 쓰촨성 깐쯔현 아추가르 불학원(佛學院)의 어린 사미니스님을 촬영한 것이다. 티베트 밀교를 가르치는 이 불학원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곳으로, 1만 여명의 스님 중 7000여 명이 여성 출가자이며 그들 중에서도 반 정도는 20대 미만의 학인들이다.

총 124개국 5508명의 사진가들이 응모한 작품 수는 모두 9만6268점.

올해 심사위원들은 전쟁과 같은 자극적인 뉴스 성보다는 문화와 일상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성남훈씨의 작품 역시 자극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분 대신 피사체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을 강한 인물상으로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남훈씨는 "수도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오지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언(無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개인의 허망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의 세계로 빠져가는 이 시기에 이들은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걸으며 소욕지족(少欲知足)과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인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물사진 부문 수상작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2년 전 시작한 '아시아여성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새 작업으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능인선원에서 불교에 대해 좀 더 공부하는 한편, 불교계의 전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비정부기구(NGO)인 기아대책기구와 손잡고 12개국을 돌며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찍고 있는 그는 올 12월 그 결과물을 모아 전시도 열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사진계의 선객 김아타,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초청

나는 토끼뿔·거북털을 찍는다





'최후의 만찬' 작품 앞에 앉은 김아타씨. 사진위는 'ON-AIR' 프로젝트 中 '사천왕상'

김아타: "순수(純粹)가 뭡니까?"

큰스님: "진광불휘(眞光不輝; 참다운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야."

김아타: "내일 순수를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큰스님: "하세요. 아름답겠네요."

다음날 사진작가 김아타는 절에 모델과 장비를 한 트럭 싣고 가서 세팅해 놓고 큰스님을 보여드렸다. 문제는 나체의 모델들이 법당 등에서 사진을 찍는 불경스런(?) 장면이 연출된 것.

김아타: "이렇게 아름다운 부처가 있겠습니까?"

큰스님: "중생과 부처가 하나일세."(<사진예술> 중에서)

나체의 모델들이 법당에 등장하는 '사원시리즈' 촬영으로 불상을 쪼개 불쏘시개로 쓴 단하천연(丹霞天然, 736~824) 선사와 같은 충격을 준 사진작가는 한국 대표 작가로 떠오르고 있는 김아타씨(53 · 사진).

어떠한 종교적, 사회적 고정관념도 거부하는 선(禪)적인 미학을 표현하고 있는 '사진계의 선객(禪客)' 김아타씨가 오는 6~11월 열리는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돼 개인전을 연다. 한국 작가가 특별전에 초청받은 것은 2년 전 이우환씨에 이어 김씨가 두 번째.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베니스비엔날레 관계자들을 사로잡은 김씨의 작품은 지난 2007년 인도 델리에서 시작한 '인달라(Indalla) 시리즈. 인달라는 인디아(인도)와 만다라를 합성해 김씨가 만든 조어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워싱턴, 뉴욕, 도쿄, 모스크바, 프라하, 베를린, 파리, 로마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각 도시당 일만 여컷의 풍경사진을 찍고 그것을 하나의 사진으로 포갰다.

한 도시를 찍는데 길게는 한 달, 포토샵 수정에도 보름이 걸리는 작업의 결과는 놀랍게도 아무런 형상도 없는 회색빛의 화면으로 나타났다. 1만여 개의 이미지를 중첩시킨, 그러나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그의 작품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을 상징한다. 마치 '돌여인(石女)이 아이를 낳는' 허깨비 같은 이 세상을 찰나에 화면에 담아내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똘똘 뭉친 '토끼 뿔, 거북 털'과 같은 화두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인달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컷에 8시간의 노출을 준 '도시 시리즈', 얼음으로 조각한 불상과 마오쩌둥의 초상, 파르테논 신전 등이 녹는 모습을 촬영한 '얼음의 독백 시리즈' 등 30여 점이 소개된다.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諸行無常)'는 컨셉트를 바탕으로 한 'ON-AIR(온에어)' 프로젝트의 일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좌선을 하고 날마다 넓은 작업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아타씨는 언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의 '작업과정이 곧 삶'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순례자라 생각하는 그는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기에,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여 얻은 나만의 세계를 드러내고 싶다"면서 "아직 표현하지 못한 90%의 영역을 사진에 담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아타씨는 3월 아일랜드 더 독 갤러리 전시에 참여한 후 5월 11~18일 뉴욕에서 ACAW(Asia Contemporary a Week)에 참가할 예정이며, 5월에는 중국 광조우사진 비엔날레에도 참가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교부문 신설 '세계합창대회' 경남서 열린다

제1회 월드콰이어챔피언십 7월 7~17일…28일 신청마감

불교부문이 신설된 세계합창대회 '제1회 월드콰이어챔피언십(WCC)'이 경상남도 주최로 오는 7월 7~17일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등지에서 개최된다.

'합창 올림픽'으로 불리는 WCC는 전 세계 143개국에 지부를 두고 세계적인 합창대회를 개최해 온 독일 인터콜투르재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대회로 경남에서 첫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83개국 400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밴드, 무용단 등 2만 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불교 합창단은 WCC의 오픈라운드인 한국국제오픈콰이어대회의 15개 종목 가운데 '불교합창'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연주곡(4곡), 연주시간(15분 또는 20분), 연령, 인원수, 반주악기 사용여부 등의 제한 규정이 있다. 참가신청은 2월 28일까지 WCC 한국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wcc2009.co.kr)에서 하면 된다. (02)211-6672~5

김성우 기자

〈유심〉 '문예 아카데미' 개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에서 발간하는 시전문 격월간지 <유심>이 3월 4일부터 3개월간 '유심 문예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시와 시조 창작 교실을 연다. 신달자(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이 매주 수요일 '시창작과 산문'을, 홍성란(성균관대 강사) 시인이 매주 월요일 시조를 각각 강의한다. 강의는 3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열리며, 강의실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2-9 MG타워 3층에 소재한 '유심 아카데미' 세미나실이다. (02)739-5781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83-235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대웅전 건립불사
천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 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 진 기 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 선 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16 인사동 사모곡2

소금인형 언니의 차이야기 1편

흔히들 술을 처음 배울 때는 어른에게 배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나는 어른에게 담배를 배웠다. 열린 마음의 애연가 어른들이 많았던 탓에 자유로운 흡연문화 속에서 지내다 담배를 끊은 지 일 년이 돼간다. 그 덕에 얼굴에 살도 붙고 피부도 한결 고와진 느낌이다. 하지만 흡연가와 함께하는 술자리에선 때때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간혹 한두 가치를 빌리곤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동냥으로 얻어 핀 담배 맛에 다시 길들여질까 염려돼 최근에는 더욱 독하게 금연을 결심했다. 매캐하고 독한 담배 기운에 어느 정도 정화됐을 오장육부를 다시 버려놓은 것만 같아 찜찜하던 차에, 예전에 누가 담배해독에 생강차가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이왕이면 기가 펄펄한 시장통 아줌마가 파는 생강이 더욱 제격일 듯싶어 간만에 재래시장에 나섰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강과 그 옆에 달금해 보이는 대추도 한 보따리 샀다.



재료의 본래 맛과 향을 살리는게 좋다. 사진은 대추차.

생강을 수세미로 빡빡 씻어 대충 토막을 내고, 대추도 물에 두어 번 씻어 건진 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다. 웬지 대추와 생강이 궁합이 맞아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다. 차를 달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생강냄새가 진하게 감돌며 대추는 뭉그러진 상태가 됐다. 곰탕 끓이듯 끓여야만 진국이 우러날 듯싶어 불 위에 한참 올려두었다가 결국 물이 바닥에 찰랑일 정도로 졸여졌다. 나름 기대를 잔뜩하고 후후 불며 차 한 잔을 홀짝여보니, 모양은 대추차인데 맛이나 향은 영락없는 생강차다. 그냥저냥 뜨끈하게 마실 만한데, 소금인형 가게의 차처럼 달곰한 감칠맛이라곤 전혀 없다. 주인언니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가게에 들렀더니 반가움이 역력하다.

소금인형은 인사동에서 낙원동으로 넘어가는 골목 한 귀퉁이에 정겨운 시골찻집마냥 자리를 잡고선 십 년째 '야무진' 차를 팔고 있다. 차가 '야무지다'는 데에 부연설명을 붙이면, 일단 인스턴트 차는 절대 사절이다. 국산의 천연재료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선별해 주인이 직접 차를 달인다. 옹골차고 야무진 주인언니 성격을 겪어보면, 그 주인이 달인 차는 얼마나 깐깐하고 세심한 공정과정을 거쳤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언니, 대체 대추차나 생강차를 어떻게 끓여야 달착지근한 맛이 나는 거유? 나는 왜 그 맛이 안 나지?"

"일단 재료가 좋아야지. 대추도 보면 씁쓰그리한게 있어. 알이 요만한 찌질이는 사면 안 돼. 알이 굵고 실하면서 그냥 씹어 먹어봐도 달콤한 게 있다고. 차를 달일 때도 좋은 걸 써야 맛이 제대로 나지. 그리고 대추면 대추, 생강이면 생강 한 가지로 끓여야지, 이거저거 섞으면 그게 무슨 맛이니."

"재료의 본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게 가장 좋다"는 주인언니는 주방에서 대추차에 고명으로 띄우려고 얌씰하게 썰어둔 대추조각을 몇 개 꺼내와 맛을 보라고 권한다. 확실히 달고 맛있다.

"그리고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 향이 다 날아가니까 끓일 땐 뚜껑도 닫고 끓여야해. 큰 주전자에 대추를 3분의1 정도 넣고 물을 반쯤 붓고 끓이다 대추가 조금 불면 그때 대충 으깨서 물을 좀 더 붓고 지켜 서서 한 번 더 바글바글 끓이는 거야. 한 15분 정도 될까. 그런 다음에 불을 딱 끄라고."

생강차도 요령을 듣고 보니 쉬우면서도 간단한 비법이 있었다. 생강을 얇게 저며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30분 정도를 끓여 어느 정도 색이 우러나오면, 그때 설탕을 넣고 한 번 더 팍팍 끓인 다음 불을 끄면 된단다.

"생강은 향이 강하니까 납작납작하게 썰어 한 컵 정도만 넣는 거야. 물은 집에서 흔히 보리차 끓일 때 쓰는 큰 주전자 있잖아. 거기에 반 정도만 붓고 끓이라고."

"차를 달일 땐 끓어 넘칠 걸 감안해서 큰 주전자를 사용해 물을 반만 붓고 끓이는 게 좋다"는 추가당부에 차를 끓이면서 몇 번을 넘쳐 가스렌즈를 버린 일이 생각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차를 다려 마신지는 찻집을 내기 이전부터 오랜 일상이었다고 하니, 수 십 년 생활 속에 녹아난 진정한 전문가의 살뜰한 조언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다음 주에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23 탄수화물 중독증 신드롬-2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탄수화물 중독 해결 방법

먹는 음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은 19세기 미국에서 건강개선 운동을 위한 필수 요소였다. 당시 사람들은 식이요법이 신체 · 정신적 건강, 영적 · 지적 능력 및 성적(性的) 능력도 결정짓는다고 믿기도 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미식가인 브릴라 서바린(Jean Anthelme Brillat-Savarin)은 '맛의 생리학(The Physiology of Taste)'이라는 논문에서 "나에게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겠다"라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므로 평소에 단음식에 집착하거나, 밥을 먹고 나서도 곧 간식을 먹어야 되고, 자꾸 군것질을 하고 싶고, 먹는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심하게 나른하고 힘이 없는 경우는 탄수화물 중독증을 의심해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탄수화물 중독증의 해결 방법

우리나라는 쌀밥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다. 탄수화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돼 혈액 내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당분의 과다 섭취로 이어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당지수(GI)가 낮은 음식을 섭취해야만 탄수화물 중독증이 해결된다. 당지수(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되므로 공복감도 쉽사리 느끼게 되고, 혈당량도 급속도로 증가한다. 반대로 당지수(GI)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분해 속도도 느리므로 포만감이 지속되고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대표적인 정제탄수화물인 빵, 파스타 등은 피한다. 즉 흰쌀 보다는 잡곡밥, 현미밥, 흰빵 보다는 호밀빵이나 잡곡빵이 당지수가 낮다. (참고로, 식빵, 감자, 백미, 도넛, 찜종류, 케익, 쿠키 등은 당지수가 매우 높다)
- 단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콩류 견과를 등을 많이 섭취한다.
-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 과자, 설탕 등의 섭취를 제한한다.
- 양질의 기름을 섭취한다. 오메가3와 올리브 유등의 풍부한 음식 섭취.
- 가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을 겸한다.
- 결론은 가공식품을 최우선적으로 멀리해야만 한다.

 # 경전에서 권하는 식생활

<입능가경(入楞伽經)>에서는 구체적으로 먹거리에 대해 "성인의 먹음이란 메벼쌀(粳米), 대맥(大麥)과 소맥(小麥), 대두(大豆)와 소두(小豆), 가지가지 기름과 꿀 등으로 때에 따라 섭취하면 식생활은 청정하게 된다"라고 했다. 선사들의 식생활이란 식욕을 채우는 것이 아닌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며 몸을 지탱하는 약에 비유될 뿐이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도 많으며, 수행자들의 식생활은 오늘날 웰빙과 건강 식단의 표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수행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란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며,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모두 건강하고 소박한 삶이다. 이는 곧 현대인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가장 우선 돼야할 지표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신드롬 엑스 정도는 가뿐하게 해결될 것이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18



침향 여신의 전설이 깃든 곳-하롱베이



침향의 여신 티엔이 몸을 숨겼다는 '하롱베이'.

침향이나 가남향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 알아보자.

편의상 침향과 가남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심마니라고 한다. 그들이 침향을 채취하고자 하는 노고가 희귀약재를 찾아다니는 심마니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침향을 귀한 물품으로 여겼던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고려인삼을 오래 전부터 전설의 영약으로 여기고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필자가 베트남을 드나들던 중 베트남의 관계자로부터 인삼을 좀 구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인삼을 아느냐고 물어봤다. 대답은 베트남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이나 왜(倭) 등과 인삼을 교역했으며, 고려인삼의 효능과 약성은 하늘아래 제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교역량이 너무나 적었기에 일반 귀족들조차 엄두도 못 내던 영약이었고, 다만 전설처럼 전해지는 고려인삼의 이야기를 동경했다는 설명이었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아련한 감흥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헌덕왕이 최초로 침향을 교역(AD919)한 것으로 나와 있고, 워낙 귀한 물품이니만큼 귀족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처럼 멀리서 전해오는 귀한 물건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나라를 격하고 시대를 넘어서도 한결 같은 동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침향과 가남을 채취하는 베트남의 심마니들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우선 그들은 4~8명씩 조를 이뤄 밀림으로 들어간다. 그전에 그들은 우리의 심마니들처럼 산신제와 비슷한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에는 자신들을 침향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달라는 것과 무사귀환의 뜻이 담겨있다. 이때 고사는 'Thien Y A Na' 라고 하는 침향의 여신을 향해 기원 하게 된다. 침향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티엔(Thien Y A Na) 여신은 지금도 베트남의 중부지방인 다낭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이 여신의 탑과 상이 있을 정도로 숭앙 받고 있으며 특히 사랑과 관련한 전설로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신은 애초에 하늘의 천녀였으나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다가 왕자와 사랑을 하게 돼 지상에 머물게 되는데, 훗날 왕이 된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된다. 이 때 이 여신을 흠모한 이웃나라 왕이 티엔을 차지하고자 하지만, 티엔은 이웃나라 왕을 피해 몸을 숨긴다. 이 곳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하롱베이라는 곳이다.(02)3663-6777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동양구운마늘환으로 활기찬 생활을!
마늘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여 드시기 편리한 100% 마늘환입니다
강한 살균력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고지혈증등의 성인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간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준다.
2.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3. 면역력을 키워 체질개선에 효과적이다.
주문 전화 080-323-7575 동양물산
인터넷:http://gk24.co.kr, 한글주소:건강24시

초·중·고 입학기도 상담
재학생 신학기, 대학 입시 기도
보살님,거사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아들, 딸 액운 소멸과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을 올바로 하기위해 기도합시다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미만
전화주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퇴마 심령 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 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불임여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육효(초급,고급)
◇초급 3개월 36만원
◇고급 3개월 45만원
◇3개월 강의료 60만원 - 36만원 (40%DC)
•개강일 : 2009년 2월 26일(목) 14:00~17:00
국제역학진흥원 02)3676-4500
서울 종로1,3,5호선 5번출구 낙원상가 옆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역학초급 사주명리
◇초급 3개월 36만원
•개강일 : 2009년 2월 26일(목) 14:00~17:00
국제역학진흥원
02)3676-4500
서울 종로1,3,5호선 5번출구 낙원상가 옆

글로벌 작명 대사전 I II III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286성씨 별로 모든조건을 다 갖추어 지어진 좋은 이름을 당사자 팔자와 접목시켜 기록만하면 작명작업끝. (작명소用)
참좋은 이름나라 운동본부 편저
송금후전화주세요, 가격:150000원
국민은행 038701-04-039079(설현우)
주문전화 02)928-8123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절입니다
선원불사를 위해 영원히 함께할 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1인1실황토방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조용한 산속암자에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이나 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평생 도반 경치좋고 아늑한 암자터를 소유하고 있는 오행,뜸,벌침,역학에 능한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통나무 황토집을 지으려 합니다
조금만 협조하시고 함께 살 아가실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무료봉사,만수무강 집짓기
스님, 불자님, 토굴명당에 집을 짓고, 천기와 지기를 받아 건강을 지키는 공법입니다
설계내용은 전화로
자재비는 본인부담
011-454-8315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건당 상좌될 인연있는 조계종비구니. 법랍 20년 이상이된 50대 건강한 스님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행 자 모 집
비어있는 사찰 비구니스님 되길 원하는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분
(의식지도함)
011-307-0117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청정한 나반도량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들 모십니다
011-9790-1779
055)835-9450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9929-9501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840-4355
051)334-4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계속 상주하시거나 출퇴근 하실분도 환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해동 성취사
051)727-0859,0809

50대 비구승입니다
각종 예불 및 천도재 가능함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연락 주십시요
010-3189-3420

참신한 女행자와 기도정진할 원주 보살님을 구합니다
▷수원(조계종 사찰)
010-9336-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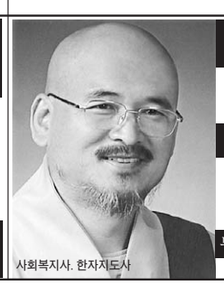
도심 산속사찰에서 기도하며 무보시로 사실 처사 부부 연락바랍니다
011-9707-3490

女 사무장 구합니다
(40세에서 50세)
▷서울 강북구 소재
011-9087-6287

조계종 노승이 쉬고싶어 지장보궁을 평생관리 운영할 건당상좌될 인연 있는 비구니를 전화요망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秘 法 무 료 강 의
귀의 삼보하옵고!비구 비구니들아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별것아니다. 본 강의 들으시고 홀륭한 선지식 되소서!
1.전생요법, 빙의치유법, 최면학, 확실한 천도재식 | 2. 귀신병에 침놓는곳, 건강따주기, 관상학 등 | 3. 통술학(신비그자체다) 심식법, 약손법 등
*** 비구, 비구니 스님들 꼭 이강의를 들어보라 ***
•장소 : 마산 무약산하 법향사 內 / •법당 시간 : 매주월요일 10시~17시까지
전화 : 055)221-33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2/16(월) 18:30 [개강 강사 : 이선종 선생]
● 2/19(목) 18:30 개강 [강사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총本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한국불교불광종입종환영
종단이 총학협회 속협회 소속업는스님 법사보살 철학사 입종환영
신당 법당 명산에 빌어도 조상 칠성 풍파로 가정 우환 고통받는분 상담환영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산신불공 · 지장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병시식법
누구라도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배울수 있는 각각 단권으로 출판된 불공책
스님 법사 보살 철학사 불자님께 필요한책 (농협 :150022-51-167171 한국불교불광종)
사무실관리 PC가능 40세이상 여. 공양주 구함 숙식가능 급여 상담후 결정
053-561-4440, 011-9422-1885 주소 : 대구시서구내당 2,3동923-142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드디어 우리 활인천역자의 친견 임상 실기用 활용서 CD가 名品으로 최종 완결 되어 절찬리 판매 교환 中 입니다
"특히, 매일 매 시간별로 왜 왔는가? 어떤 정황인가? 어떤 수법이 필요한가? 일이 되는가, 안되는가? 장차 좋은가, 나쁜가?는 물론,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침범여부와 그 해소 방법 및 각종 수법효과 유무 까지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육임학의 고등차원의 백미로서, 「적중도」와「효과성」을 동시에 보장시킨 이처럼의 상세한 전문가용 형이상법 책과 CD프로그램은 본「효사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 효사 활인천역집 Ⅰ·Ⅱ·Ⅲ 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活人天役 전문가 用 CD프로그램 완결판 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효사육임산책 '09 신간' /육임1년신수비결(09 증보판)/효사육임사주감정법(활용편)/육임대계전서(09 휴대용개정판)/도사에게물어봐/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09 개정판)/성명학/월영도/매화역수/효사숙사주/부적보감/동의보감/육임풍수/육임길흉성부단정법/육임래정비법(09 개정판 좌정 · 휴대용) 등 15종이 종합 장착되어 있고, 위 각 분개(分個) CD프로그램으로도 판매하며, 위 각 활용서, 위 각 CD와, 학습총서「효사육임강론」上 · 下(09 7판본 완결판)을 권해드립니다.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 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부록 · 부연CD · 1800쪽(분할)
맞춤 권수선택 : 60갑자 60일치 1권 •60갑자 각 순별6권 •60갑자 매일 60권 中
맞춤 크기선택 : A5휴대용 •A4 좌정용 •A3 노안용 中
『지난 2000년도 이래 꾸준히 진화시켜온 저 고복자 효사의 각 육임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 들을 2009년 1월 현재 모두 개정 · 개편 · 증보 합산 · 교열 · 교정하여 「최종판」과「완결판」으로 재간행하였음을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제위께 알려 드립니다』
서울 02)833-8683 지역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 051)908-8683 지역 담당 진민경
www.taotemple.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15평
● 요사 : 10평
● 부지 : 80평
● 전세 : 1억5천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4억5천만원 (세:1억 월150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계곡접
● 약 30억불사 ● 가액:12억
지리산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 총평수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양도가 6억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팬션같은토굴안내
● 위치 : 양평 단월
● 대지 : 205평
건물 1층 34평, 2층 24평
● 순수 황토 목조 너와지붕
신축불사 중 4월 완공
● 쉬산 계곡, 지하수,
동남향, 찜질방
● 가액 : 전세가 2억(매도가능)
010-6438-3561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 4동 대로변 위치
● 4층 건물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절충
010-8606-7918
051)767-0313

(급) 안 내
● 위치 : 대구권 경산시
● 대지 237평, 터밭 666평
모두 903평
● 법당 25평, 요사 30평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 동대구역에서 대구시내버스 왕래함
급해서 가격을 확 줄였습니다
011-509-0124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 1
● 가액: 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8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장천면
● 총평수 236평
● 법당, 삼존불, 용왕당, 산신당
● 요사채, 방 5, 공양간 1
● 가액 : 5천만원
● 절앞까지 주차가능,시설완비
010-5340-6357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 제주 10분거리
018-590-3583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 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포교당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부산대사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3억
● 20년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월세가능)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사 찰 안 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굴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9억 8천만원
016-286-510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방 2개,주방
● 전세 1,0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0-4427-2256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부천시
● 평수 : 110평
● 법당 : 약 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 50평, 방3개, 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3억 1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
● 요사(2층건물)
● 공양간 별도로 있음
● 가액 : 3억 6천만원
010-8853-384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동
● 대지 : 130평, 건물 : 45평 (법당,산신각,방3칸,거실,주방,욕실)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임대, 양도가능
055)366-3822

전통사찰 안내
● 가액 : 40억
010-2533-89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상가 4층중 4층,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 최고위치
● 평수 : 54평
● 거실,법당,요사채,원주실,목욕실
● 가액 : 1억 5천만원
● 주지스님 불사 관계로 급매
010-3443-2859

사찰 암자 펜션 부지 안내
천하절경 풍수지리 명당
● 위치 : 춘천시 남면 발산리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강촌IC 진입로 부근
● 지역 : 관리지역
● 지목 : 전면적: 645평
● 특징 : 마을에서 200M거리 야산밑 남서향, 서측완료, 도로포장,전기유(有)
● 가액 : 평당 50만원
011-9797-38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800평, 요사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지리산 토굴안내
● 위치 : 남원시 지리산 백사골 입구
● 평수: 양옥 슬라브 건평40평 보일러실 4평, 대지 198평, 전139평(주차장사용가능)
● 가액 : 2008년 감정가로 8300만원 협의
● 특징 : 앞이 트이고 샛강이 보이고 주위는 송림, 한적한곳
010-9452-48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 대지 : 300평, 법당 20평
● 방3개, 거실, 주방, 대도로변 조경, 잔디밭 200평
●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절충가능)
011-468-991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 20평
● 심야보일러, 벽돌스라브단청
● 시내중심권 큰 길변
● 가액 : 절충,
스님 사정상(유학) 양도
019-375-9051

지리산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요사채, 집3채
● 옆산,옆계곡,마당잔디,텃밭 각종유실수,정원수,평지
● 국도 2차선 100m밑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50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총면적 : 1,460평
대지 280평, 종교부지 150평
● 대웅전 목조 25평,
요사채 목조 30평
산신각 약 2평
텃밭 10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8488-861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0-4100-9497
011-9765-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시청옆
● 평수 : 약45평
● 보증금+시설비 3300만원
월25만원
010-3167-5225

사찰임대 및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 평수:임법당12평,임요사채55평
● 삼존불,계곡접,산세수려
주위가 산에 둘러쌓인
조용한 사찰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수행공부 하실스님 적합
역학인도 가능
● 임대전세 5000만원
매매도 가능
011-9240-1384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366평, 임야 40평
● 요사채 60평, 대웅전 33평
● 삼성각 10평, 실사용평수 약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조경잘되어있음
● 지하철 및 시내버스
● 가액 : 7억
011-9143-009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
● 법당 : 100평 방4
삼존불,신중,산신,인등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20만원
시설비4000만원
010-6293-17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223-7757

사찰(급)안내
● 위치:구미시송정동(터미널5분, 구미역10분거리)중심지역
● 법당 : 약 5평(관세음보살)
● 요사채: 대지60평, 건평25평 (방3,거실및주방,화장실2)단독주택
● 보증금 : 무, 월세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 임대기간 : 2011년6월10일까지
● 포교당으로 최적지,몸만 오시면 됨
010-2499-30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 70평
● 법당, 방3, 공양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에,월1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112-18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 등기필
와가법당 20평 2층
● 요사채 38평(창고15평)
옥외화장실6평,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전화사절
● 가액 : 3억 8천 5백만원
방문시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70평
● 법당 : 16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 ● 대지 1500평 ● 가액 : 15억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010-9797-54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전동 소재
● 대지 약 230평 전220평 법당 15평(삼존불) 요사채(신,구)방 7개,욕실 3개
● 심야전기보일러,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507-0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옥산면 구성리 부근
● 국도접, 법당15평, 요사채(목재 방5개) 황토방1채 창고1(10평), 대지 약220평. 마당에 잔듸
● 가액 : 5,000만원
010-9911-3425

포교원 안내
● 위치:전주시 코아백화점부근. 최고의 요지
● 평수:70평, 3층 옥상사용가능
● 시설특A급,전체난방,에어컨설치, 고급엠프설치
● 법당, 주지실, 공양간, 욕실, 화장실 2
● 불교대운영중, 몸만오셔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으로 저렴함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9656-020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복대동
● 본존불, 아미타부처님, 지장보살,좌우협심불, 관음보살,후불탱화,산신후불탱화, 백고산신할아버지
● 바로운영가능 ● 점한식한지 1년 8개월
● 가액 : 년 3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2066-5835

사 찰 주 실 분
● 지역 : 서울, 경기, 강원, 충북소재
● 산사사찰로 법당과 요사채등이 갖춰져 있지만 포교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찰로 불사 성공과 유명 사찰이 되기를 원하는 창건스님또는 창건불자님
● 조건 : 2009년 불사준비기간이 끝나면 2010년 정월달부터는 매월월세를 지급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사찰양도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본회는 : 유명불자회로 현재 1000명이상의 회원이 있으며 회원불자들이 수행 기도하는 도량을 만들고저 본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2011년내로 5000명 이상이 기도 정진하는 큰도량이 될것입니다.
010-9346-1207

“황벽 선사의 즉심·무심사상은 일심이자 최상승”

<28>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9)

황벽 희운 선사 문하 배휴 거사 가문 대대로 불교 신봉
회창법난 때 중신이었기에 피해 적고 교세 빠르게 회복

마조(馬祖) 선사 문하의 방온(龐蘊) 거사, 남전(南泉) 선사 문하의 육긍(陸亙) 거사와 함께 선종에서 유명한 거사는 바로 황벽(黃檗) 선사 문하의 배휴(裴休; 797~870) 거사이다.

배휴 거사는 자(字)가 공미(公美)로서 하내(河內) 제원(濟源; 현재 河南省 濟源)사람이다. 장경(長慶) 연간(797~824)에 진사에 급제해 대화(大和) 초년(827)으로부터 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다가 회창(會昌; 841~846)연간에 상서랑(尙書郞)을 맡았다. 대중(大中)연간(847~859)에 병부시랑(兵部侍郞), 동평장사(同平章事), 그 후에 선무(宣武), 소의(昭義), 하동(河東), 형남(荊南) 등의 절도사(節度使)를 역임했다. <구당서> 권177에 실린 전기에는 거사의 가문이 역대로 불교를 신봉했고, 특히 경전을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거사도 어려서부터 태원(太原) 등의 명산을 찾아 학승들과 불법에 대해 논하기를 즐겼고, 중년 이후에는 훈채와 고기를 먹지 않고 항상 재계(齋戒)해 법락(法樂)을 즐겼다고 한다.

<거사전>에는 거사가 어려서 과거를 공부하고 있을 때, 청량산(淸凉山)으로부터 어떤 기이한 승려가 찾아와 사리 3과(顆)와 죽간(竹簡) 하나를 거사에게 전했는데, 그 죽간에는 범어(梵語)가 쓰여 있었다. 범어에 능통한 이에게 이를 번역시켰더니, “대사(大士)는 속세에 노닐며, 소사(小士)는 출가에 머문다. 불도(佛道)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찌 홍진(紅塵)을 떠나겠는가”라는 의미였다. 그 후 거사는 진사에 급제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거사는 늘 불법을 연구하면서도 평생을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황벽 선사를 만나기 전 거사는 규봉종밀(圭峯宗密; 780~841)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종밀 선사는 화엄종 제5조(祖)로 추앙받는 당시 최고의 종장(宗匠)이다. 늘 불법을 연구하던 거사와의 만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종밀 선사 입적 후, 거사는 친히 <규봉선사비명(圭峯禪師碑銘)>(<전당문>권743)을 찬술했다. 비명에는 거사와 종밀 선사의 관계를 “법에 있어서는 형제요, 의(義)에서는 친구이고, 사유(思惟)에 있어서는 선지식(善知識)이요, 교(敎)에 있어서는 내외의 호법(護法)”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종밀 선사의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專心地禪門師資承襲圖)>가 바로 거사의 질문에 의해 찬술됐고,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 또한 ‘서(敍)’를 지었으며, <화엄원인론> <원각경략소> <주화엄법계관문> 등에 ‘서(序)’를 찬술했다.

그러나 거사가 마음 깊이 스승으로 모신 분은 황벽 선사이다. 거사가 쓴 <전심법요서(傳心法要序)>에서는 회창법란이 시작되던 회창 2년(842), 일찍이 관직을 맡았던 종릉(鐘陵; 洪州의 경내, 현재 江蘇省 南昌市 東南)의 용흥사(龍興寺)에서 황벽 선사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도를 물었고(旦夕聞道)”, 또한 대중(大中) 2년(848) 완릉(宛陵; 현재 安徽省 宣城)에 관직을 맡게 되자 다시 예로써 선사를 맞아 개원사(開元寺)에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법을 받았다(旦夕受法)”고 한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선사를 모시며 법을 묻고 받음을 “물러나면 기록하되, 열에 한 둘밖에 얻지 못했다. 거사는 이를 심인(心印) 삼아 지니다가 감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다가, 이제 입신(入神)의 정밀한 법의(法義)가 미래에 듣지 못할까 두려워, 드디어 내어놓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전심법요>와 <완릉록(宛陵錄)>이다.

<거사분등록>에서는 황벽 선사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거사가 홍주(洪州)자사로 있을 때, 용흥사로 가서 헌향했다. 그때 선사는 대중을 버리고 용흥사로 와서 막일을 맡아 전당(殿堂)을 청소하고 있었다. 주지스님이 배휴를 맞자 벽화를 보고 “이는 무슨 그림입니까?”라고 물었다. “고승의 참다운 모습(眞儀)입니다”라고 답하자, “고승들의 참다운 모습은 볼 수 있는데,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자 스님들이 모두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거사는 “이곳에는 선승이 없습니까?”라고 물으니, “최근에 한 스님이 절에 와서 막일을 하시는데, 마치 선승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거사는 “빨리 청하십시오”라고 했다. 선사를 뵙고, 전의 일을 물었다. 선사는 큰 소리로 “상공!”하고 묻자 거사는 대답했고, 바로 이어서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거사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황벽 선사를 만나기 이전에 거사는 어려서부터 불법을 연구했고, 더욱이 종밀 선사로부터 이미 깊게 불법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황벽 선사를 만난 뒤 얻은 거사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문제는 아마도 거사가 <전심법요서>에서 논한 다음과 같은 황벽의 선사상에 대한 대체적인 소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홀로 최상승(最上勝)을 지니고, 문자(文字)의 인(印)을 떠났고, 오직 한 마음(一心)만을 전하고 다시 다른 법이 없으니, 심체(心體) 또한 비었다. 만 가지 인연이 함께 고요해 마치 대일륜(大日輪)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을 밝게 비춰 깨끗하기가 가는 먼지 하나 없는 것과 같다. 이를 증득한 이는 새롭고 오램이 없고, 얕고 깊음이 없으며, 이를 설하는 이는 의해(義解)를 세우지 않고, 종주(宗主)를 세우지 않고, 문호를 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것이다. 생각(念)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한 뒤에 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말이 간명(簡)하고 그 이치가 곧으며(直), 그 도는 준엄하고(峻) 그 행이 고고(孤)하다.”

황벽 선사는 마조-백장의 법계를 이은 선사로서 이른바 “즉심시불(卽心是佛), 무심시불(無心是佛)”의 선법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즉심(卽心)’과 ‘무심(無心)’을 거사는 분명하게 ‘일심(一心)’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바로 ‘최상승’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마음에 접근함(卽心)’이 이루어진 상태가 ‘마음이 무의 상태(無心)’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한 마음(一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볼 때, 거사의 심중에는 종밀 선사로부터 훈습된 화엄의 ‘일심론(一心論)’과도 연결해 황벽 선사의 선사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사실상 이러한 설명은 보다 깊은 선학적 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선사상이 최종적으로 ‘무심’으로 흐르고, 그 무심은 다시 ‘일심’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전개는 상당히 중요한 사상사적인 의의가 있다.

청대(淸代)에 거사불교에 관심을 두고 <거사전>과 <선여인전(善女人傳)>을 찬술한 팽제청은 <거사전> 권13에서 당대(唐代)에 가장 불법(佛法)에 뛰어난 사대부(士大夫) 거사 3인을 ‘삼군자(三君子)’라고 해 이사정(李師政), 양숙(梁肅), 배휴를 들고 있다. 그 가운데 이사정 거사는 역대로 중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호법(護法)의 논서(論書)라는 평가를 받는 <내덕론(內德論)>(<광홍명집(廣弘明集)> 권15에 수록)의 저자로서 유명하다. 양숙 거사는 형계담연(荊溪湛然)으로부터 직접 불교를 사사했다. <천태지관통례(天台止觀統例)>를 찬술해 심성론(心性論)에 있어서 불교와 유가(儒家)를 회통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배휴 거사는 무엇 때문에 팽제청 거사로부터 당대의 3대 거사로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 <거사전>에서는 이사정, 양숙, 배휴 등 세 거사의 전기를 차례로 논술한 다음에 수대(隋代) 불유도 삼교조화론으로 유명한 수대(隋代)의 대표적인 거사인 문중자(文中子; 王通; 580~617)를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운행이 결핍됨이 없어 지혜의 공(功)이 있고, 그 <주역(周易)>에 있어서 가까웠다”라고 평하고, 이어서 “배휴 거사는 원각(圓覺)에 있어서, 문중자는 <주역>에 있어서 모두 단서(端緖)를 보여주었다”라는 극찬을 했다. 그리고 ‘삼군자’ 모두에 대해 “불문(佛門) 가운데 문질(文質)이 빛나고 빛나는구나”라고 찬탄했다.

또한 명대(明代) 주시은의 <거사분등록>에서는 배휴 거사에 대해 “황벽 선사의 설법은 마치 손을 거칠게 들어 화산(華山)을 부순 것과 같아, 임제(臨濟)의 큰 담장에 구멍을 뚫었고, 목주(睦州)의 짚신을 삼았다. 또한 그 나머지 단초로 오히려 능히 질그릇을 만들었도다. 배상공은 그 <전심법요(傳心法要)>를 읽고서 참답게 대장교(大藏敎)를 해석하고 주해하니, 후인이 쫓을 수 없도록 훌륭하구나!”라고 찬(贊)했다. 이러한 배휴 거사의 평가는 종밀 선사가 찬술한 전적들의 ‘서’와 황벽 선사의 <전심법요>를 편찬하고 <완릉록>의 재료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배휴 거사는 회창법난의 과정을 겪고 그 후에도 조정의 중신을 역임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법난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법난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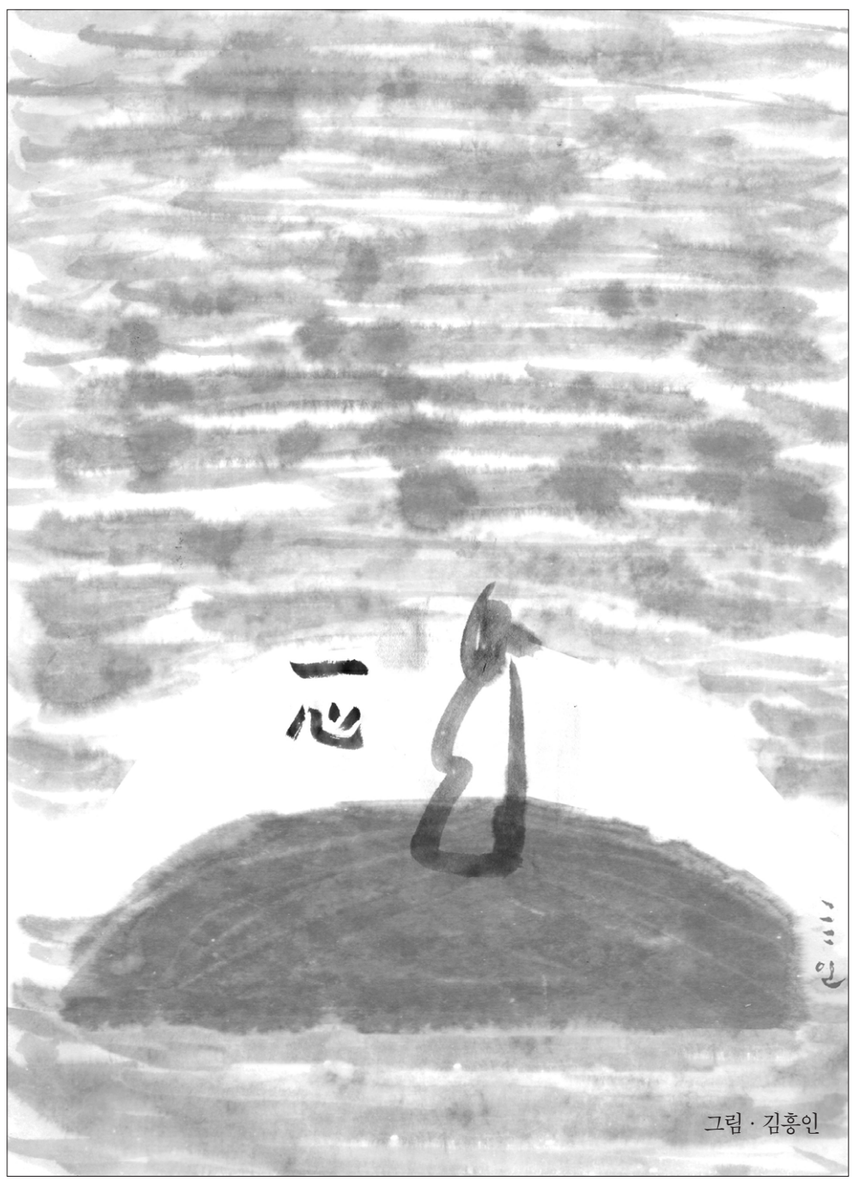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탈 종 공 고

• 승려번호 : 1400-36
• 주 지 : 혜 봉(김일석)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번지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총무원장 법하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완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CD판매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판매가 : 150만원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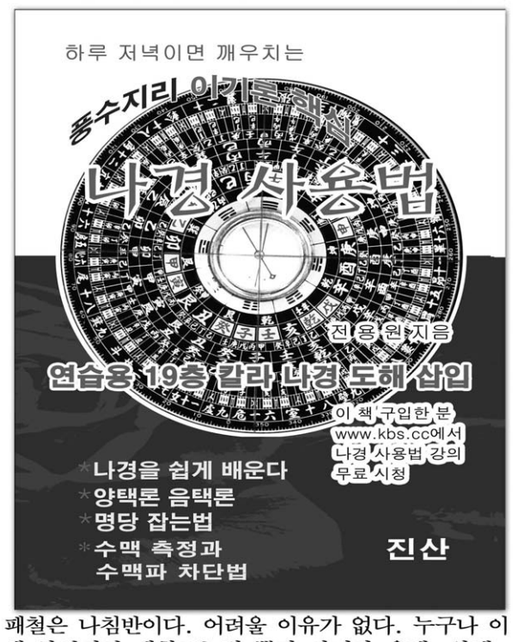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패철 보는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웃음보살 불등거사 〈36〉

구성 : 김흥인



삼층누각

〈백유경(百喩經)〉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부잣집의 화려하고 웅장한 3층 누각을 보고 목수에게 그와 같이 짓도록 주문했다. 목수가 땅을 고르고 누각을 짓자 부자는 "어떤 집을 지으려는가" 하고 목수에게 물었다. "3층집을 지으려 합니다." 목수는 대답했다. 그러자 부자는 "아래 두 층은 갖고 싶지 않으니 먼저 제일 위층을 지어라"고 말했다.
비유하면 이렇다. 부처님 제자가 삼보(三寶)를 공경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깨달음을 구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아래 세 가지 결과는 필요 없고, 오직 아라한의 결과만을 구하고 싶다' 고. 그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은 저 어리석은 부자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자장 스님이 새들과 감응하다
자장감금(慈藏感禽)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자장감금(慈藏感禽)편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자장 율사가 수행할 때 양식이 떨어지면 감응이 일어나 기이한 새들이 각기 여러 가지 과일을 물고와 자장 스님의 손에 내려주는 장면이다. 자장 스님은 신라 진골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자, 처자를 버리고 원녕사를 짓고 고골관(枯骨觀)을 닦았다. 선덕여왕이 대보(臺輔)에 임명했으나 사양하고, 636년 왕명으로 당(唐)나라에 가서 오대산(五臺山)의 문수보살을 만나보고 가사(袈裟)와 사리를 받았다. 종남산 운제사에서 도를 닦고 화엄종의 두순과 계율종의 도선에게 배운 뒤, 643년 장경(藏經) 1부와 불구(佛具)를 가지고 귀국했다. 분황사 주지로 있으면서 궁중과 황룡사에서 <대승론(大乘論)> <보살계본(菩薩戒本)> 등을 설한 후,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니(僧尼)의 규범과 승통(僧統)을 통괄했다. 황룡사 9층탑 창건을 건의, 645년에 완성한 데 이어 통도사를 창건하고 이듬해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세웠다. 전국 각처에 10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제경계소(諸經戒疏)>(10권)와 <출관행법(出觀行法)>을 지어 율부(律部)를 넓혔다. 649년에는 왕에게 상주해 중국의 제도를 따라 신라에서 처음으로 관복을 입게 했으며, 당나라의 연호 사용을 건의해 실시하게 했다. 만년에는 서울을 떠나 강릉(江陵)에 수다사(水多寺)를 짓고, 뒤에 태백산에 석남원 정암사(石南院, 현 淨巖寺)를 세워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후에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개조로 받들어졌다. 본문에 다음 내용이 보인다. "양식이 떨어지면 감응이 일어나 기이한 새들이 각기 여러 가지 과일을 물고 와 자장 스님의 손에 내려주었고, 새도 자장 스님의 손바닥 위에서 함께 이를 먹었는데 식사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여 조금도 절도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자장 스님이 잠들었을 때 두 장부가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깊이 숨어 있어서 무슨 이익 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자장 스님이 말했다. '오직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곧 자장 스님에게 오계를 내려 주고 나서 말했다. '이 오계를 가지고 중생들을 이익 되게 할 수 있다.' 이에 자장은 산에서 나오니 나라 안의 청신사 청신녀들이 계를 받는 사람이 무궁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공손한 손

추운 겨울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밥뚜껑 위에 한결같이
공손히
손부터 올려 놓았다

–고영민/ 시집<공손한 손>에서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본원 불교 의식(범음범패)대학
수강생 모집

[본, 본원불교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개 강 일 : 2009년 3월 4일 오후 6시
2. 출 강 : 매주 수요일 · 목요일 오후 6시 ~ 8시
3. 교육내용 : 송주, 도량석,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등 모든 재의식, 바라춤, 나비춤(도량게, 다게작법)
4. 교육기간 : 속성단기 3개월, 장기 6개월
5. 원서접수 : 2009년 3월 3일까지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여권용 4매)
7. 자격요건 : 승려가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또는 사찰(포교원)을 개설하고자하는 자

◆ 특 권 :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하여 승려증을 발급함.
사찰(포교원)을 창건시 등록과 함께 초심자라도 여법히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재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사단법인 대한불교본원종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 FAX 02)379-2746

불교범패작법전수원 2009학년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 하옵고, 사중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새벽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천도재, 49재, 사물(태징, 북, 목탁, 요령)다루는법 등을 기초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불교의식을 모르시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일반인반
▷ 수 업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업내용 : 종성, 예불, 사시불공, 각단청, 작법(나비춤, 바라춤)
▷ 수업기간 : 1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바라
▷ 소 집 일 : 3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 스님반
▷ 수 업 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7시
▷ 수업내용 : 사물다루는법, 각종재의식, 작법(나비춤,바라춤)
▷ 수업기간 : 1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목탁, 요령, 태징, 바라
▷ 소 집 일 : 3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 구비서류 : 이력서1통, 수강신청서 (소정양식)1부, 사진2매
◆ 문의전화 : 033)731-7759 / 011-269-4168

송원사 불교범패작법전수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50-1 (문막 I.C~문막방향3분거리)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4. 사다라니바라
2. 사물 다루는법	5. 오공양작법
3. 천수바라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마음 속에서만이 구할 수 있어

오늘 셋째 일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도반으로서 오늘은 실천궁행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 자체가 첫째 돼야 한다는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법신이 된다 이러기 이전에 인간 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들이고 내는 것을 정(定)으로써 한자리에다 두고 들이고 낸다면 정향(定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향부터 돼야 계향(戒香)도 역시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스님네들만 계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평등한 마음으로써 웃으면서 대해 주고, 둘 아닌 그 마음씨로 항상 둘 아니게 나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모든 것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로 보고 그렇게 풀 한 포기도 남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지견이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 되죠.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모르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몰라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인과응보라는 그 엄청난 문제를 천차만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고 넘어가는 말을 오늘은 수박에 비유해볼까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예가 있죠. 과거는 현실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박 한 덩어리라면 그 수박 속에 씨가 있지 딴 데 있겠습니까? 어저께 수박을 심었더니 오늘의 수박에 그 씨가 도로 들어 있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 수박씨가 싹이 되고 또 그 싹이 수박을 열리게 했기 때문에 수박씨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넝쿨과 수박,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신다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나 인간의 뿌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못 보듯이 그렇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씨를, 내가 마음내기 이전이 과거 씨인데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니 바깥에서 찾아집니까? 항상 안에 있는 수박씨와 같은 건데.

그러니 절대로 바깥에서 지식이나 학식에 끄달려서는 아니 되고, 한곳으로 들고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을 다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앉았어도 그것이 참선이 아니고 좌선이 아닙니다. 지금 뺑뺑 둘러 돌아가면서 사방이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끝없는 진리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해드렸습니다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고 오직 꺼내는 것도 거기요, 넣는 것도 거기, 들이는 것도 거기고 내는 것도 거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내 몸에 중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혹성이라는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 되겠기에 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 무슨 인연으로 병이 생겼으며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고 문수가 유마힐 거사한테 물었듯이 말입니다. 그 뜻에서 벌써 그랬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직감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지혜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거기에 그런 뜻이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뒷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문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방이 왜 비었으며 왜 시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마힐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뭐 저는 무지렁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것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깐 "모든 부처님 국토도 비어 있으며 외도나 마구니가 다 내 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어떠한 연고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가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문이기도 하고, 물론 말 잘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잘하시겠지만 또 말을 할 것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말이라는 건 귀신 방귀와 같으니깐요. 말은 하지 않되 하시면서, 종은 쳤는데 종소리만 났지 종 친 사이가 없고, 그 종소리는 우르르 퍼졌는데 퍼진 사이도 없이 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뜻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돌아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었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물과 산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속에는 뜻이 들어 있어요. 뭐냐? 아까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비었느니라. 비었으며 또는 마구니나 외도가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어디가 똑같으냐 그러겠죠? 빈 것은 찰나로 돌아가니까 비었고, 외도나 마구니가 전부 내 시자라고 한 것은 안팎이 다,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또 도반이고.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마구니도 따로 없고 외도도 따로 없어요. 언어가 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니라.' 한 뜻은, 예를 들어서 컵이면 컵대로 물을 담거나 또 커피를 담거나 뭐 음료수를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컵이 필요하겠죠. 그릇대로니까 컵에 담을 물건은 컵에 담고 접시에 담을 물건은 접시에 담고, 대접에 담을 물건은 대접에 담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릇대로 물건을 요리를 해서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차원에 따라서 담아준다는 뜻입니다. 밥을 한 솥 해서 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이게 자꾸 엇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터지면 즉, 물리가 터지면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가요.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박이 따로 없듯이. 그러니까 물리가 터지면 모두가 한데 붙어 돌아가죠. 싹과 수박과 씨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물은 둘이 아니나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느니라. 천차만별로 각각 있지만 한데 돌아가고, 한데 돌아가지만 각각 분리가 돼서 네 모습 다르고 내 모습 다르고 네 차원 다르고 내 차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고 자기가 그냥 천백억화신 노릇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는 아촉불이라고 떠억 상표를 붙여놨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게. 석가가 석가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떠억 아촉불로 붙여놓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로 붙여놓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음 말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해가 뜰 때, 돌아서 동방에서 해가 뜨고 또 서방으로 가고, 서방은 동방이 되고 동방은 서방이 되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올 때에, 서방에서 올 때는 남방을 통해서 동방으로 통하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때는 북방을 통해서 서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쪽은 봄소식이 오고 다른 쪽은 가을로 가죠. 겨울로 간단 말입니다, 겨울잠 자러.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빠르리라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엔 뭘로 이름을 붙여놨느냐 하면 관세음으로 붙여놨죠. 또 지천국에는 무엇으로 붙여놨느냐 지장으로 붙여놨고요. 그러니 자기가 이름을 자기 마음으로 붙여놓고 자기가 움죽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또 한편에는 문수를 놔놓고 한편에는 보현을 놨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아까 수박 얘기 했죠? 싹이나 수박이나 씨나 이것이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요. 부처는 생각 내기 이전이 부처라고 보고요, 생각을 냈다 하면 그게 바로 문수입니다, 법신! 그럼 생각을 낸 것이 뭐냐? 바깥으로 나온 게 보현이에요. 그래서 들이고 내는 것도 보현이요, 모든 걸 보호해나가면서 화하는 것도 보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내기 이전이요.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 보신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어디 다리가 다쳤으면 "아이쿠!" 하고 여러분 손이 가서 털고 얼른 일어나지, 딴 사람이 털어주고, 딴 사람의 손이 와서 털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바로 보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신이며, 그리고 자꾸 찰나찰나 화하니까 화신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름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야! 이걸 털어주고 남이 엎드러졌어도 일으켜서 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현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데도 보호해나가면 보현이 되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리로 저리로 화해서 바꿔질 때에는 화신이죠. 그러니 이름이 수차적으로 바뀌져요. 여러분이 부모를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자식을 만날 때는 부모가 되고 아내를 만날 때는 남편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 내 아내를 만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깐 경을 보면 밑바닥의 백지를 볼 수 있어야만이 경을 올바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경 구절에 있는 것도 그 뜻을 헤아려서 실천궁행을 해야지 부처님의 참 불제자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죠. 자식한테도 부드럽게 해주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라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니깐요.

☞26면으로 계속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께서 구증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여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었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법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 강 선 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buddhanews.com

말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냥 집어먹으세요

☞25면에서 계속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 것은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비었다고 합니까? 내가 항상 말씀해드렸죠. 말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배우시라는 얘기죠. 뜻을 아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집어먹어야 돼요. 말로 옮기려 하지 말고 그냥 집어먹어야 되죠. 목마르면 물 먹듯이 말이에요.

"본래 공했기 때문에 비었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본래 공한 것을 어떻게 공이라고 체험을 합니까?" 하고 또 물었대요, 글쎄. 그래 꼬리에 꼬리가 붙어서 돌아간 거죠. "공했다고, 그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은 어디서 구합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공한 것을 어디서 구하느냐니까, "육십이 소견, 외도 소견 속에서 구합니다." "그래,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한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참 묘하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육십이견 속에 소견, 외도 소견 모두를 종합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전체를 한마음속에서 구했다는 뜻이죠. 거기서밖엔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뜻을 우리가 삼키면서, 또 삼키고 행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넓혀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대나무 귀신 방귀를 먹고 넓혀간다.'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싹을 구하려면 대나무 방귀씨를 구해야 하고 그 방귀씨를 싹을 틔어서 기르려면 대나무 귀신 방귀를 더 먹이지도 말고 덜 먹이지도 말고 아구창 나지 않게 먹여서 키워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낚싯밥인지도 모르죠. 이 도리를 아는 분들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십이견은 어디서 구합니까?" 하니깐 부처님 해탈 속에서 구하고 "부처님 해탈은 어디서 구합니까?" "중생들 마음속에서 구한다." 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내 어찌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벗이요, 모두 도반이요, 모두 스승이요." 하고 말을 했죠. 그쯤 해놓고요, 요거 한마디를 하고 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난과 병고와 우환 등 여러 가지죠.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데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식들을 이끌어가려면 움죽거리는 그 생활도 그렇고 자기 몸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 도리를 알고 공부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도리, 또 생산적인 도리, 개발적인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으로서 그대로 편안하게, 언어조차도 붙지 않는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바깥에서 유전성으로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뭐, 안팎으로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도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 공부를 하다가도 그냥 지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켜보고 관한다면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놓고 지켜보는 그것이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아!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까 뭐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런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집니까? 네? 뭐가 붙었습니까?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 딴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부었습니다. (컵의 물을 뚜껑에 조금 부었다가 다시 컵에 부으신 후) 그럼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와서 딴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치운다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한데 들어갔으니까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무슨 내가 이렇고 무슨 누구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물컵에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야. 한 물이야. 영에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허허.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집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고통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야! 아무나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야,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땀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난,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뭣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니라고요. "사방은 툭 터졌느니라."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드렸으니 인제는 모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들면서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됩니다

중용을 하세요. 활용이 아니고 중용입니다. 안팎이 다 들리는 그런 활용 말입니다. 그것이 중용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해드릴 것은, 내가 항상 오신통, 오신통 했는데 오신통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니깐요. 무슨 없는 것을 발견을 해야 그게 대단한 거지, 본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떡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현실의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대 용어로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머리 위에 신통이 다섯 개라면, 즐창 말을 하죠? 숙명통이니 타심통이니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또는 천안통이니, 이 다섯 가지 문제가 여러분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대뇌로 돌아간다면 모두 통신이 된다 하는 걸 레이더망으로다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신족통이라는 것은 아까 팩스로 한번 비교해봤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니까요. 또 탐지기 보셨죠? 그것은 타심통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컴퓨터와 탐지기, 즉 컴퓨터는 과거를 짊어지고 나온 겁니다. 과거에 살던 것이 모두 입력이 돼가지고 나온 자동컴퓨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그게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악도 선도 속상하는 것도, 또 머리가 틔는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사는 대로 입력이 돼 있죠. 자기가 아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법이죠! 그러니 묘한 법이라고 할 수밖에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이렇게 억겁을 거쳐서 인간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죠. 참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거룩하고 그렇게 즐겁고 소중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육신이 아니었더라면 이 도리를 또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으로 살다가 자식이 하나 죽으면 그렇게 슬프죠. 또 식구가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으면 그렇게 외롭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다가 그건덤으로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어요. 컴퓨터도 붙어있고, 보이지 않는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는 숙명통을 컴퓨터로 비유했으니까, 그것도 붙어있고 남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타심통도 붙어있고, 또 팩스도 붙어있고요. 또 요거는 무전통신기도 붙어있고, 천체망원경도 붙어있습니다. 요렇게 조르라니 붙어있어서 (왼손을 펴서 그 주위를 오른손으로 돌려 보이시며) 요것이 돌아갑니다. 네? 들이고 내는 요것. 통신망은 바로 레이더망이 하고 있죠. 그래서 레이더망은 통신이 오면 대뇌에서 모든 것이 통신이 되듯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이 거기에 통신이 되면 다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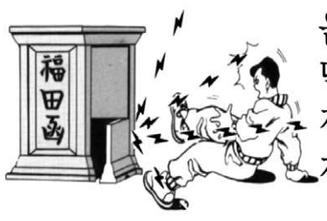
여러분은 그거 쉽게 물질적인 컴퓨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물질적인 컴퓨터도 사람이 입력을 해야 쓸 수 있지 입력을 안 해놓은 거는 못 씁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다가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을 해드려야 이것이 증명이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 자동기계를 굴리려면 따로 이 오신통이 돌아가는 바깥에서야만이 이걸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린 그대로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오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오는 거,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닌, 자기가 그대로 한생각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3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자 세상보기

이 병 인
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물 관리' 국민적 지혜 필요

작년 한해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 비가 일년 강수량의 채 절반도 내리지 않았다. 일부 지방은 연평균 강수량의 10~20% 정도만 내려서 2월 현재 가뭄으로 전국 807개 마을 9만9244명의 주민들이 제한 · 운반급수를 받는 등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리지 않는다면, 최악의 봄 가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식수원(食水源)이 고갈돼 심각한 식수문제와 밭작물이 말라죽는 등 농촌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천이 고갈돼 하천생태계가 고사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한급수와 물 아껴쓰기, 지하수의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용수원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뭄의 원인으로서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수년에 한번 씩 반복되는 현상이였기에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316mm 정도지만, 계절별 · 연도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수자원(水資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단기적인 대책과 현안중심적인 처방에 그칠 뿐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항시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적어도 십 년에 한두 번 이상은 반복해 가뭄을 겪는 점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물은 물 쓰듯 사용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資源)으로서의 중요성(重要性)과 가치(價値)가 확실하게 부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水資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의 근원이 되는 비와 눈 등의 강수(降水)를 잘 저장하여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댐이나, 저수지 등 대규모 저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의 저류시설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저류시설보다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저류시설이나, 단위 시설이나, 주택 등 개별적인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수자원에 대한 용수원(用水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용수원은 댐 등을 설치하여 댐호나 농업용 저수지 등을 저장한 지표수(地表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수의 경우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나, 근원적으로 가뭄과 수질오염 등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항시 강수에 의존하는 지표수 위주의 용수확보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지하수(地下水)로의 용수원의 전환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중수도 등 물의 재활용과 절수기기 등을 사용하여 물 절약 등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각 가정 등 수요처에서 수돗물 등 용수를 절약하고, 13% 정도의 수돗물이 누수되는 노후관교체 등을 통한 누수대책 등이 마련된다면 현재 이용하는 수자원 이용량의 수십 %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대책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流域管理)방안이다. 녹색댐이라 부르는 유역의 산림을 조성하여 강수 시 일시에 유출되는 물들을 산림 중에 가두어 연중 고르게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늘에 달린 일이기도 하지만, 조만간 많은 비가 내려 온 대지를 적시는 좋은 소식이 같이 하기를 마음깊이 고대하며, 지금부터라도 단순한 하천정비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서 가뭄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겨울가뭄 '온정'과 반성'을

겨울가뭄이 극심하다. 전국 곳곳에서 식수가 모자라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는 결코 물을 물 쓰듯 해도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물 부족 국가임을 강조해 왔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불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명약이다. 보다 많은 불자들이 가뭄 지역에 식수를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운동을 통해 불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겨울 가뭄은 점차 온난화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연은 생명체다. 오랫동안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온 인간에게 자연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아픔을 호소했을 것이다. 개발지상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그 호소를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연은 그 근본이 굴절되고 뒤틀리면서 인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재해를 줄 수도 있다.

불교는 '숲의 종교'다. 자연 순환의 질서에 순응하는 가치를 가르친 종교인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존대하는 불교이기에 불자들에게는 기후 변화와 환경보존 문제 등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책무도 있다. 개발단체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모여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겨울의 가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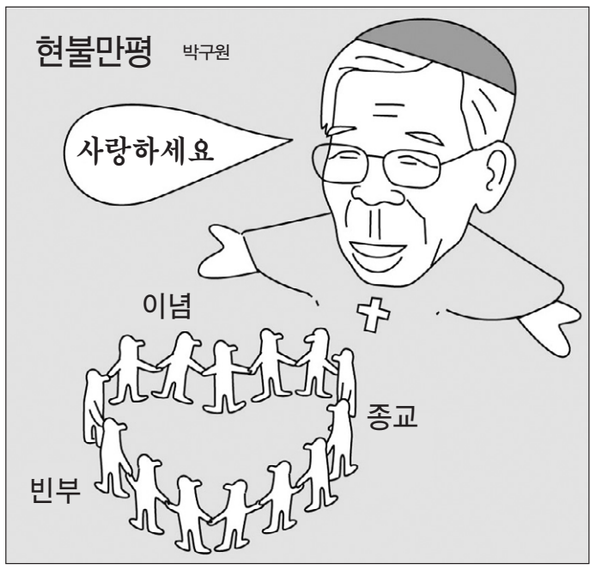
공부하는 불자가 참불자다

불자는 불자답게 살 때 불자가 된다. 불자다운 삶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삶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따진다면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성제와 8정도 그리고 12연기를 들 수 있다. 이들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에 입각해 세상을 보고 사유하고 행동한다면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자다운 삶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교리를 익히는 것에서 염불이나 선수행 등 다양한 수행을 생활화 하는 것이 다 공부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공부의 순간이고 그 순간순간에 지옥과 극락이 교차한다. 공부를 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불자는 공부하는 사람인 것이다.

새 봄을 맞으며 곳곳에서 공부하러 오라고 손짓을 한다. 각종 불교대학과 수행센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사찰의 문화 강좌도 다양하다. 배울 곳이 없어서 못 배울 사람은 없다. 오직 배울 마음이 없어서 나태하고 번잡스러운 삶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올 봄에는 모든 불자들이 단기 강좌라도 하나씩 수강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 세상의 들끓는 번뇌를 식히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하심 통해 부처님 만나"

2월의 테마-예경공양

나는 본래 자만스럽고 도도한 면이 있다. 불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이러한 단점을 더욱 반성하게 된다. 반성과 함께 "작은 것부터 고쳐야지. 커다란 길이 정말 부처님 말씀 그대로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쳐보려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법당에서 삼배를 올릴 때도 하심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알려주는 상대를 보며 나도 모르는 감동을 느낀다. 특히 매주 절에 가서 삼독(三毒)의 때를 지우고 관세음보살님께 서원을 비는 행위에서 지극한 정성이 부처님께 감응됨을 느낀다.

하심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공경하면 할수록 내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내 업장이 전환될 때마다 심한 떨림을 느낀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부처님이 계시기에 세상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기성찰의 마음이 생긴다. 무지의 세계관에서 밝음의 내용으로의 전환은 힘들지만 불보살님이 항상 내 옆에서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

내 이런 신행의 모델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집안의 종부로서 모든 대소사일을 두루 챙기고 친척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마음 씀씀이를 몸소 보여왔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심으로 받들어 공양하는 자세는 초인적이랄까? 인내력이 대단한 것이 마치 생불(生佛)을 친견하는 듯 하다.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니 예경을 실천하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은 넓은 포용성, 따뜻한 마음, 이해심,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예경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이다.

<법화경(法華經)>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의 상불경보살(常不輕菩薩)은 눈에 띄는 사람마다 "내 그대들을 깊이 존경해 감히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다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예배하고 찬탄한다. 보살은 경을 독송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찾아가 예배하고 찬탄했다. 욕설을 퍼붓는 자가 있어도 성내지 않았고, 돌로 때리고 던지는 이가 있어도 피해 달려갔다. 보살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감히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대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굴하지 않고 '내 그대들을 깊이 존경해 감히 업신여기지 않습니다'"는 구절은 인간예배가 성불로 이어지는 전제임을 반증한다. 더욱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경애하는 마음은 정말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가족, 동료 등 힘들고 지친 이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함께 성불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김은희
동국대 강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귀 있는 자 들어라 '이고득락'의 위대한 법문을



❻ 태안사, 적멸의 편안함이 여여하니

곡성 태안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동리산문의 본찰입니다. 태안사 부도밭은 일주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주문을 넘어서서 잠시 망설입니다. 절 뒤편에 있는 적인 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 '조륜청정탑(照輪淸淨塔, 보물 제273호)'을 먼저 참례하느냐 눈앞의 부도밭을 먼저 둘러보느냐 살짝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인 선사 혜철은 동리산문을 연 개산주이고 부도밭에 온전히 부도가 전해지는 광자 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 865~945)는 적인 선사의 손자뻘이니 말입니다. 이것도 견물생심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부도밭을 먼저 둘러봅니다. 푸른 대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부도밭에는 3기의 석종형 부도와 광자대사의 부도(보물 제274호)를 포함한 2기의 팔각 원당형 부도 그리고 광자대사탑비 한 조각, 빗돌은 잃어버린 광자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275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대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어 부도에 낀 검푸른 이끼들이 붐하게 빛을 발하는 듯 귀해 보입니다.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은 도의 선사의 제자 염거화상의 부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팔각원당(八角圓堂)'이란 이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전당(殿堂)이 원형이라는 데서 유래 합니다. 목조건축에서 완전히 둥근 형태의 집을 짓기가 어려우므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의 집을 짓고 원당형으로 본 듯합니다. <불교대사전>에도 '8각8릉(八角八楞)은 아미타의 삼매야형으로 미타와 관음의 전당은 대개 8각이며 8각당을 원당이라 함은 8각이 거의 원형인 까닭이다. 관음의 정토 보타락가산이 8각이란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미타와 관음은 동체(同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유골(사리)을 안장하는 부도는 미타신앙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묘탑이고 그 전형이 팔각원당인 것은 선사가 입적해 아미타국토로 갔음(혹은 가기를 원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뒤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석종형은 범종이 중생계에 깨달음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법기(法器)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숭유억불의 시대에 석종형이 일반화 됐다는 것은 팔각원당형의 조형 수법이 치밀하고 공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선택된 양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안사 일주문 옆 부도밭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승에는 어디에도 완전한 적멸(寂滅)의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도 중생이 죽어 묻히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하셨듯이 중생의 번뇌가 완전하게 사라진 곳은 없는 것입니다.

봉두산 정상 쪽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듭니다.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그렇게 찬란하게 다가와 부도를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부도 옆에는 깨진 탑비의 조각 하나가 시멘트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빗돌을 잃어버린 귀부와 이수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이 힘차고 전체적으로 활달한 기상이 뿜어져 나오는 귀부는 당당합니다. 이수는 참으로 현란합니다. 극락세상의 새 가릉빈가의 펼쳐진 날개는 금방이라도 창공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만 머리 부분을 누가 떼어 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날지도 못하고 부도밭에 남아 있는 가릉빈가는 언제 중생계에 깨침의 노래를 들려주려는지요.

팔각원당형의 광자 대사 부도는 조각이 매우 수려합니다. 지엄한 임금의 분부와 큰스님의 덕화를 가슴에 품고 한껏 솜씨를 부리는 석공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광자 대사는 고려 태조의 존경을 받았고 태안사를 당대의 '큰절'로 중흥시킨 장본인입니다. 신라 제48대 경문왕 5년(865년)에 태어났습니다. 비문

동리산문 연 적인 선사 부도 균형미 '일품'

광자 대사, 고려 태조에게 조언 "지금 마음 변하지 않으면 민생 행복"

빗돌 사라졌어도 비문 사본으로 행장 전해져

에는 '순산함이 마치 가을에 서리를 맞은 씀바귀가 쉽게 뽑히듯 산고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친에 대한 효성과 전생부터의 불연(佛緣)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종대의 신하 손소(孫紹)가 찬한 광자 대사의 비문에는 스님의 행장(行狀)이 잘 드러나 있는데 비는 없어졌어도 그 빗돌에 새겨졌던 글은 <한국금석전문>에 남아 있습니다. 광자 대사는 혜철 선사의 적손으로 손자뻘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 도선의 제자라는 의견도 있고 '□여(□如)'스님의 제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비문을 해석하는 데 앞의 한 글자가 판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는 견해의 차이인 듯합니다.

광자 대사가 고려 태조의 초치를 받아 궁으로 들어 가 나눈 대화는 오늘날의 위정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경전이 그 설한 시간을 '일시(一時)'로 하여 관념을 초월한 시간을 상징하듯 큰스님의 친절한 가르침도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나라 무제와 달마 스님이 대면해 나눈 대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왕건과 윤다 스님의 대화를 읽습니다.

임금이 묻되,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대사가 답하되. "만약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이는 부처와 마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묻되, "부처님께서 어떤 경지를 지나서야 이 열반에 이르게 됩니까?"

답하되, "부처님은 지나가는 과정이 없으며 마음도 또한 그대로일 뿐 경과함이 없습니다."

묻되, "짐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난세를 구제하기 위해 흉포한 무리들을 주살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민생을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답하되, "전하께서는 오늘의 묻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국가가 부강하고 민생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묻되, "대사는 어떠한 덕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까?"

답하되, "신승(臣僧)은 힘이 없어 자신을 구제함은 가능하지만,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배알문(拜謁門)은 작습니다. 선원을 지나 열댓 계단을 올라서서 배알문을 들어설 때는 저절로 허리를 숙이게 됩니다. 문턱은 없지만 높이가 낮고 폭이 좁습니다. 배알문 안쪽은 적멸의 공간입니다. 둘러쳐진 담 바깥은 대숲이어서 서걱서걱 바람이 댓잎을 흔들어 대지만, 적인 선사 혜철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담 안쪽은 고요합니다. 안개가 물러서고 햇살이 가득 들어차는 동안 아침인사를 나누는 새들의 우짖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그 소리가 시끄럽기 보다는 고요를 더 깊은 고요로 침몰시키는 듯합니다.

아직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붉은 꽃잎을 머금고 있을 동백 망울들이 속닥속닥 때를 기다리는 소리도 적멸의 부도밭을 더욱 근엄하게 해 줍니다. 그러한 절대 고요의 공간에 적인 선사의 부도가 계단(戒壇)처럼 준엄하게 서 있습니다. 적인(寂忍)이라는 시호, 세상사를 다 견디어 내고 절대고요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 부도밭에 꼭 맞는 가르침입니다. 신라의 경문왕은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러 떠난 혜철 선사를 부러워했나 봅니다.

부도는 화려함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균형미를 극대화 했습니다. 한 수행자가 우주법계를 무너뜨리고 남을 진리의 원음을 몸 가득 채우고 앉아 자비의 향기를 뿜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륜청정탑은 바라보기만 해도 몸속의 오욕칠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도와 탑비 그리고 그 뒤로 선원의 지붕을 지나 아스라이 겨울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생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 고요한 부도밭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인(寂忍)의 힘'을 전해주는 도량이고 허공을 가득 채운 저 아침나절의 새소리는 적인 선사가 들려주는 법문이 아닐런지요.



배알문 안쪽으로 보이는 적인 선사 조륜청정탑. 엄격한 균형미가 압권이다.

선사의 탑비 앞에 서서 1100년 전에 우뚝했던 수행자의 향훈을 그려 봅니다. 적인 선사 혜철 스님을 수태한 어머니는 위의와 모양이 엄숙하고 우아한 어떤 호승(胡僧)이 법복 차림으로 향로를 들고 서서히 와서 침상에 앉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열다섯 살에 출가해 부석사에서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한 번에 다섯줄씩을 읽어 내려가는 총명함이 드러나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불교계의 안자(顔子)'라는 칭을 들었다고 합니다.

814년(헌덕왕 6년) 가을에 중국 땅으로 구법의 길을 재촉한 혜철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정맥을 이었습니다. 기이한 암시를 보이며 태어나고 일찍이 출가하여 남다른 수행의 예봉(銳鋒)을 보이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의 본맥을 받고 대륙의 성지들을 유력(遊歷)하다가 귀국, 동리산문을 열고 교화의 장을 열었던 혜철 스님. 77세를 맞이한 이른 봄, 2월 6일 제자들에게 "만물은 봄에 나고 가을에 이별하나 나는 그와 반대다. 앞으로는 너희들과 선(禪)을 말하고도를 맛볼 수 없을 것이다"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비문에는 '돌아가실 때에 들짐승이 슬피 울부짖어 산과 골짜기가 모두 흔들렸으며, 갈가마귀와 참새가 모여들어 모두 슬피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월 보름 무렵, 선사가 입적한 초봄의 기운이 감도는 태안사 적인 선사 부도밭에는 여전히 새소리가 요란합니다. 다만, 그때의 새소리는 선사의 입적을 슬퍼하는 소리였고 오늘의 새소리는 만생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선사의 법문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여기 태안사 배알문 안에서 적인 선사 조륜청정탑을 휘감아 도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위대한 법문을.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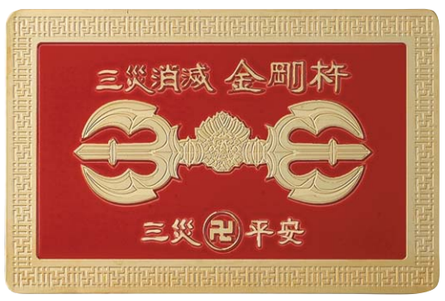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색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분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